

2017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17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RT 01

미래인적자원 육성 연구

- 영유아의 하루일과에 비추어 본 아동권리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3
- 창의성과 양육환경 관련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21
-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37

PART 02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57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례 및 시사점 73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위한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 85
-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실태 및 지원 방안 97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PART 03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

-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131
-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개선 과제 151
- BSC 모델 지표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169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187
- 다문화유치원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 방안 199

PART 04

육아정책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누리과정 정책수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워드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217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정책적 요구 ... 231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 개발 및 향후 과제 247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통한 신체 건강 증진 방안 263

PART 05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 및 부모지원 연구

-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 279
-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지원 요구 분석 297
-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 315
-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333
-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통한 학령초기자녀 육아지원 방안 347

미래인적자원 육성 연구

- 영유아의 하루일과에 비추어 본 아동권리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김은영 연구위원
- 창의성과 양육환경 관련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남희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김은영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7-01

영유아의 하루일과에 비추어 본 아동권리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김 은 영 |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2. 영유아의 하루일과 실태
3. 우리나라 영유아 하루일과의 현주소
4. 정책 제언

영유아의 하루일과에 비추어 본 아동권리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김 은 영 | 연구위원

요 약

-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하루일과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음.
- 국외 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시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습시간은 지나치게 긴 편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영유아의 놀이시간은 영유아를 특정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호주 보건부 기준인 3시간에 비추어볼 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영유아의 전자기기 노출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며 특히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의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임.
- 하루일과에서의 영유아의 놀 권리 및 균형 보장이 필요하며, 자녀와의 시간 보장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 회복, 장기종단 연구 수행 및 결과 공유를 통한 교육의 방향 제시가 요구됨.

1 문제 제기

-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맞게 하루일과를 균형 있게 보내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김은영, 2016).
-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하루일과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본 원고는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사교육 대상이 점차 하향화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유아 발달특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교육에 노출시키고 있음.
-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 수가 증가할수록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커짐(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여유 없는 하루일과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영유아의 기관이용이나 사교육으로 채워진 하루일과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달권이 있으며,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
 - 영유아의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교육으로 채워진 하루일과는 영유아의 발달권과 놀 권리에 위배되는 사안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2세 영아와 5세 유아의 하루일과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함.¹⁾

2 영유아의 하루일과 실태²⁾

가. 생활시간

1) 2세아의 생활시간

- 2세아의 평일 밤잠 시간과 낮잠 시간은 주말에 비해 15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남.
 - 2세아의 평일 밤잠은 9시간 49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1시간 36분,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을 포함하는 기본생활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임.

1)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2세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인 5세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2세와 5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

2) 2세 부모 537명, 2세 교사 434명, 5세 부모 704명, 5세 교사 601명, 총 2,27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 2세아의 토요일 밤잠시간은 10시간 6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1시간 50분, 기본생활시간은 2시간 15분으로 나타남.
- 2세아의 일요일 밤잠시간은 10시간 5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1시간 52분, 기본생활시간은 2시간 16분임.
- 2세아의 평일 밤잠시간은 지역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2세아의 평일 밤잠시간은 9시간 40분인 반면 대도시는 10시간임.
 - 맞벌이가정의 2세아는 9시간 41분, 외벌이인 경우 10시간으로 나타남.

〈표 1〉 2세아의 평일 생활시간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589.2 (41.2)	96.1 (43.7)	102.5 (46.7)
지역			
대도시	600.9 ^b (41.0)	87.3 (37.8)	95.6 ^{ab} (47.9)
중소도시	580.4 ^a (38.9)	105.4 (48.9)	110.3 ^b (45.7)
읍·면	581.0 ^a (42.1)	100.2 (39.2)	88.5 ^a (35.6)
<i>F</i>	17.13 ^{**}	3.06	8.10 ^{**}
맞벌이여부			
맞벌이	581.8 (38.5)	94.3 (32.9)	100.0 (48.2)
외벌이	600.1 (42.8)	97.8 (52.1)	106.5 (44.0)
<i>t</i>	-5.16 ^{**}	-0.49	-1.58

** $p < .01$, *** $p < .0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1) 각 생활시간에 참여하는 사례의 평균임.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5세아의 생활시간

- 5세아의 밤잠시간과 낮잠 시간은 주말에 10~15분 정도 길게 나타남.
 - 5세아의 평일 생활시간 중 밤잠시간은 10시간 정도이며,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 평균 1시간 6분, 기본생활시간은 1시간 28분임.
 - 5세아의 토요일 생활시간은 밤잠시간 10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1시간 15분, 기본생활시간 2시간 2분으로 나타남.
 - 5세아의 일요일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밤잠시간 10시간 9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1시간 21분, 기본생활시간 2시간 3분임.

□ 5세아의 평일 밤잠시간은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유치원에 재원 중이거나 가정양육을 하는 5세아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재원 5세아보다 밤잠을 조금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밤잠시간이 길었음.
-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구 5세아의 밤잠시간이 15분가량 길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265만원 미만 가구 5세아의 밤잠시간이 10시간을 넘어 가장 길었고, 480만원 이상 가구 5세아가 가장 짧았음.
-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서는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밤잠시간이 조금 길게 나타남.

〈표 2〉 5세아의 평일 생활시간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594.5 (37.8)	65.7 (32.5)	87.6 (40.7)
재원기관			
어린이집	589.7 (33.8)	76.6 (31.3)	83.3 (40.8)
유치원	599.0 (40.0)	44.4 (21.1)	88.0 (38.5)
학원	593.5 (39.0)	70.0 (24.5)	97.6 (45.5)
가정양육	599.4 (43.4)	82.5 (41.7)	101.2 (44.6)
<i>F</i>	3.31*	na	na
지역			
대도시	599.2 (39.4)	70.1 (38.9)	90.9 (43.2)
중소도시	592.3 (36.5)	62.0 (25.6)	85.7 (39.2)
읍·면	589.5 (37.1)	62.3 (32.8)	86.0 (39.4)
<i>F</i>	3.37*	na	1.25
맞벌이여부			
맞벌이	587.7 (36.1)	63.3 (31.2)	83.7 (38.5)
외벌이	604.0 (38.1)	67.8 (33.9)	92.9 (43.1)
<i>t</i>	-5.79***	-0.55	-2.89**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02.6 ^b (39.4)	81.8 (35.3)	84.9 (49.8)
265~370만원	595.8 ^{ab} (38.9)	58.2 (29.2)	89.8 (38.5)
370~480만원	600.5 ^b (37.7)	73.0 (44.1)	85.0 (38.5)
480만원 이상	586.9 ^a (35.3)	55.0 (21.8)	89.0 (39.8)
<i>F</i>	6.94***	na	na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지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589.0 (37.7)	62.1 (29.0)	80.3 (39.3)
없음	596.7 (37.6)	67.5 (34.3)	90.5 (41.0)
<i>t</i>	-2.44*	-0.62	-2.98*

* $p < .05$, ** $p < .01$, *** $p < .0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1)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나. 놀이시간

1) 2세아의 놀이시간

- 2세아의 놀이시간은 평일에 비해 주말에 놀이 유형에 따라 30분~2시간 50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와 외출 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세아가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 평일 평균 1시간 14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은 1시간 57분,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은 1시간 10분으로 나타남.
 - 2세아의 토요일 놀이시간을 살펴보면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1시간 48분, 실내놀이시간 2시간 53분, 바깥놀이 및 외출 3시간 50분임.
 - 2세아의 일요일 놀이시간을 살펴보면,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1시간 47분, 실내놀이시간은 2시간 52분, 바깥놀이 및 외출은 4시간 2분으로 바깥놀이 및 외출을 많이 함.
- 2세아의 평일 놀이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외벌이 부모의 2세 자녀가 맞벌이 가정의 2세아보다 전자기기놀이, 실내놀이, 바깥놀이 및 외출에 참여하는 시간이 각각 9분, 20분, 16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2세아의 평일 전자기기 놀이시간은 부모학력,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고졸이하 1시간 33분, 대졸 1시간 20분, 전문대졸 1시간 6분, 대학원졸 이상 57분 순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과 고졸 이하 부모 자녀의 전자기기 놀이시간은 평일 하루 40분 이상의 차이가 남.

-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2세아의 전자기기 놀이시간은 15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남.

〈표 3〉 평일 놀이시간(2세)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74.1 (45.1)	117.1 (66.0)	69.8 (40.2)
재원기관			
어린이집	69.0 (40.9)	108.9 (56.6)	61.9 (30.5)
학원	70.4 (37.5)	109.7 (81.5)	66.2 (34.0)
가정양육	101.9 (57.1)	168.1 (86.0)	115.4 (57.2)
<i>F</i>	na	na	na
지역			
대도시	73.4 (48.8)	127.0 (70.2)	74.9 (42.2)
중소도시	74.4 (42.6)	111.5 (63.5)	63.6 (35.6)
읍·면	76.4 (37.1)	95.1 (45.3)	80.8 (51.8)
<i>F</i>	0.07	na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70.0 (42.9)	109.2 (62.7)	62.7 (36.4)
외벌이	79.2 (47.3)	129.0 (69.2)	79.1 (43.0)
<i>t</i>	-2.15*	-3.43***	-4.35***
부모학력			
고졸 이하	93.1 ^c (34.7)	112.1 (49.6)	68.4 (28.8)
전문대졸	65.8 ^{ab} (44.2)	105.3 (56.1)	64.0 (35.6)
대졸	79.5 ^{bc} (45.8)	122.3 (72.5)	73.2 (45.7)
대학원졸 이상	57.3 ^a (42.6)	124.5 (66.1)	69.1 (28.3)
<i>F</i>	8.00***	na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64.0 (39.3)	122.5 (74.9)	69.4 (32.9)
없음	79.4 (47.0)	114.2 (60.8)	70.0 (43.5)
<i>t</i>	-3.71***	1.29	-0.16

* $p < .05$,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 c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5세아의 놀이시간

- 5세아의 놀이시간은 전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주말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주말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와 실내놀이시간은 평일에 비해 2배 정도로 증가하며,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3배 이상 증가함.
 - 5세아는 평일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12분 참여하였고,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은 1시간 26분,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1시간 4분으로 나타남.
 - 5세아의 토요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2시간 11분, 실내놀이시간 2시간 43분,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 3시간 35분임.
 - 5세아의 일요일 놀이시간을 살펴보면,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2시간 15분, 실내놀이시간 2시간 43분, 바깥놀이 및 외출 3시간 44분임.
- 5세아의 평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맞벌이 여부, 부모학력,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
 -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구 5세아의 평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이 길었음.
 - 부모학력이 고졸이하 가구 5세아가 다른 학력수준보다 20~30분가량 더 오래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5세아의 평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이 길었음. 이는 2세아와는 반대로 나타난 결과임.
 - 이상의 경향은 주말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 5세아의 평일 실내놀이시간은 재원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가정양육을 하는 5세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30분가량 더 오래 실내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일 5세아의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음.
 - 평일 5세아의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가 9분 길었음.

〈표 4〉 평일 놀이시간(5세)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72.1 (42.7)	85.6 (46.4)	63.9 (35.0)
재원기관			
어린이집	69.7 (39.3)	82.5 ^a (43.3)	60.1 (25.9)
유치원	69.4 (42.0)	84.8 ^a (46.1)	59.4 (30.7)
학원	83.6 (47.7)	87.0 ^a (41.2)	75.4 (42.1)
가정양육	92.7 (57.4)	117.3 ^b (70.5)	104.5 (65.9)
<i>F</i>	na	5.74 ^{***}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68.5 (37.6)	83.1 (47.4)	60.0 (28.4)
외벌이	76.9 (48.4)	88.9 (44.7)	69.0 (41.5)
<i>t</i>	-2.34 [*]	-1.62	-2.89 ^{**}
부모학력			
고졸 이하	91.6 ^b (46.6)	80.3 (50.2)	58.7 (25.7)
전문대졸	72.6 ^a (38.8)	84.3 (43.7)	66.4 (30.6)
대졸	67.2 ^a (42.7)	83.4 (42.3)	63.6 (36.5)
대학원졸 이상	69.5 ^a (40.4)	102.8 (59.5)	66.1 (43.9)
<i>F</i>	7.37 ^{***}	na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79.5 (46.8)	87.5 (45.5)	64.4 (29.9)
없음	69.0 (40.5)	84.8 (46.7)	63.8 (36.6)
<i>t</i>	2.79 ^{**}	0.68	0.17

* $p < .05$, ** $p < .01$,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다. 교육시간

1) 2세아의 교육시간

- 2세아의 교육시간은 시청각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시간에서만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있었으며, 주말의 교육시간이 평일에 비해 15분 정도 길게 나타남.
- 2세아의 평일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강사에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중 학습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평균 56분, 예체능은 61분이었으며,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51분으로 나타남.

- 2세아의 토요일 교육시간은 학습 56분, 예체능 1시간 6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1시간 6분으로 나타남.
- 2세아의 일요일 교육시간은 학습 54분, 예체능 1시간 4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1시간 7분으로 나타남.
- 강사에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중 일요일의 학습시간은 재원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임.
 - 2세아의 일요일 학습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이용아가 46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학원과 가정양육 2세아는 1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일요일 교육시간(2세)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학습	예체능	
전체	54.1 (25.6)	63.8 (42.1)	67.0 (44.6)
재원기관			
어린이집	45.9 ^a (20.9)	58.9 (36.7)	58.4 (34.4)
학원	71.4 ^b (22.7)	60.0 (0.0)	86.7 (45.9)
가정양육	66.1 ^{ab} (29.1)	69.3 (53.4)	84.4 (62.0)
<i>F</i>	6.63**	0.23	na

** $p < .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5세아의 교육시간

- 5세아의 교육시간은 평일에 비해 주말이 교육 유형에 따라 5~30분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 컸음.
 - 5세아가 평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강사에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54분, 예체능 교육시간은 1시간 4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53분으로 나타남.
 - 5세아의 토요일 교육시간의 경우, 강사에 의한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은 1시간 수준이었으나 강사에 의한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은 1시간 24분으로 학습보다 길게 나타남.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1시간 20분임.

- 5세아의 일요일 교육시간 중 강사에 의한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은 1시간 2분이고, 강사에 의한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과 시청각이나 교재를 이용한 교육시간은 1시간 20여분으로 더 길게 나타남.
- 5세아의 토요일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음.
 - 맞벌이 가구 5세아가 외벌이 가구 5세아보다 토요일에 시청각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표 6〉 토요일 교육시간(5세)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학습	예체능	
전체	63.8 (41.4)	84.4 (49.6)	79.9 (45.3)
맞벌이여부			
맞벌이	63.6 (48.8)	91.0 (48.9)	85.7 (46.7)
외벌이	64.0 (33.2)	75.8 (49.6)	72.0 (42.1)
<i>t</i>	-0.07	1.92	2.76**

** $p < .01$

- 일요일 강사에 의한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과 시청각 및 교재 등을 이용한 5세아 교육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음.
 - 5세아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은 35분, 시청각 및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15분 더 길게 나타남.

〈표 7〉 일요일 교육시간(5세)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학습	예체능	
전체	61.7 (44.7)	86.2 (51.2)	82.1 (45.4)
맞벌이여부			
맞벌이	65.3 (50.1)	97.9 (56.8)	88.1 (46.8)
외벌이	57.0 (36.5)	62.7 (24.6)	73.5 (42.1)
<i>t</i>	1.141	4.20**	2.89**

** $p < .01$

라.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 예

□ 영어학원에 다니는 5세아 하루일과의 예는 <표 8>과 같음.

- 해당 유아는 평일에 보통 8시에 기상하여 9시 30분경에 잠자리에 들.
- 반일제 이상 학원의 일과는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경 마침.
- 오후 3시 하원 후 주 3회 놀이터를 가고 주 2회 미술학원, 주 1회 학습지를 하거나 도서관에 가고, 주 1회 중국어를 함. 이후 숙제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함.
- 저녁 8시부터 다시 영어공부를 하고 취침 전 30분 정도 책읽기를 함.
-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는 디즈니 채널을 시청하고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가짐.
-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시간 이후에는 주말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함.
- 주말에도 저녁식사 이후 8시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2가지 영어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취침함.
- 실제로 해당 유아가 평일 하루 중 놀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이며, 주말에는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학습으로 채워져 있음.

〈표 8〉 영어학원 재원 5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00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오전 9:00	등원	등원	등원	등원	등원	디즈니시청	디즈니시청
						자유시간	자유시간
10:00							
11:00							
12:00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점심	점심
1:00							
2:00							
3:00	하원	하원	하원	하원	하원		
오후 4:00		미술학원		미술학원		주말마다 다름	
	놀이터	놀이터	키즈스마트 빨간펜 (or도서관)		놀이터		
5:00		씻기	씻기	중국어	씻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00	씻기		숙제	숙제	숙제		
		숙제		씻기			
7:00	저녁						
8:00	튼튼영어						
	로제타스톤						
9:00	책읽기						
	취침						

3 우리나라 영유아의 하루 일과의 현 주소

가. 수면시간

- 본 조사 대상의 밤잠 시간은 2세와 5세 모두 10시간 정도로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밤잠 시간 이 외벌이 자녀에 비해 2세는 18분, 5세는 10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국립수면재단(NSF)의 기준을 살펴보면 권장수면시간은 영아의 경우 11~15시간, 유아의 경우 10~14시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시간은 영아의 경우 9~11시간, 유아의 경우 8~10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음(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경우 권장수면시간보다는 짧지만, 적당한 범위 안에 있음.

나. 놀이시간

- 평일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2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가 54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3분, 가정양육의 경우 106분이며, 5세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아 각각 47분, 46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8분, 가정양육이 105분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별도로 바깥놀이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체로 2시간 내외의 실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권장 운동시간은 5~17세 아동의 경우 하루 최소 60분 이상이며, 호주 보건부는 영아는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3~5세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해야 하며, 영유아 모두 1회에 1시간 이상 앉아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 우리나라 영유아의 놀이시간은 영유아를 특정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호주 보건부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다. 전자기기 노출 시간

- 평일 전자기기 놀이 시간은 2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 57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 56분, 가정양육 96분이었으며, 5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 64분, 유치원 재원아 5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 73분, 가정양육 84분으로 나타남.
-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간까지 합하면 전자기기 노출시간은 2세아와 5세아 모두 2시간을 훌쩍 넘는 수치임.
- 미국 소아과의사협회(AAP)에서는 2세 이하의 영아는 TV나 다른 오락 매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2세 이상이라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1~2시간 시청하는 것 이외는 해서는 안 된다고 권장하고 있음. 호주 보건부에서도 0~2세 영아는 TV 등 전자 매체를 보지 않아야 하며 2~5세는 1시간 이하로 볼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이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전자기기 노출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며 특히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의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임.

라. 교육(학습)시간

-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도 등의 평일 시간제 교육시간은 가정양육 2세아의 경우 69분, 5세아의 경우 175분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2세아는 각각 13분, 71분이며, 5세아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 68분, 유치원 재원아 59분, 학원 재원아가 81분임.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제시된 시간에 기관이용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들은 더 긴 시간을 학습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외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 숙제시간(집에서의 공부시간)에 영유아는 아예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도 하루에 0~30분(Cooper, 2008) 혹은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재인용).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습시간은 지나치게 긴 편으로 판단됨.

4 정책 제언

가. 하루일과에서의 영유아의 놀 권리 및 균형 보장

- 우리나라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길며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도 다소 길게 나타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지나친 학습시간은 많은 부분 지나친 사교육과 관련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의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하도록 함.
 - 더불어민주당 공약(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17. 4. 28)에 제시된 아동의 적절한 학습기간과 휴식시간 보장,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는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기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함.
- 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영유아의 놀 권리와 하루일과에서의 균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북유럽 영유아들이 이후 성취가 뛰어나다는 사실과 어린 시기에 지나친 학습에의 노출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홍보함.
- 향후 아동 생활시간조사에 영유아를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피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나. 장기종단 연구 수행 및 결과 공유를 통한 교육의 방향 제시

- 지나친 조기사교육의 부정적인 결과와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현실을 일깨움.
- 사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에 초점을 둔 장기종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학부모에게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함.
 - 국외의 장기종단 연구는 종종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장기종단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국가 수준의 장기종단 연구 지원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 김은영·최효미·최지은(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2016).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 육아정책 Brief 55호. 육아정책연구소.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2017. 4. 28).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1), 23-43.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아동권리지표 개발연구보고서: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 활용 및 분석.

[법령 및 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1989. 11. 20 채택, 국문)

이슈페이퍼 2017-02

창의성과 양육환경 관련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 남 희 | 부연구위원

1. 창의성의 중요성과 개념
2. 창의성향과 양육환경
3. 창의성과 양육환경
4.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제언

창의성과 양육환경 관련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 남 희 | 부연구위원

요 약

-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의 핵심이 창의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부모 특성 중 부모의 연령과 학력 및 창의성향과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창의성향의 차이를 가져옴.
- 창의성과 양육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횟수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쳐 사교육횟수가 증가할수록 창의력이 감소하였고 창의적 가정환경 중 독립심 자극은 창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들의 사고력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관심과 선택을 존중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발달시키고 본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취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유아기부터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서 창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필요함.

1

창의성의 중요성과 개념

가. 창의성의 중요성

-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으로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고는 도남희·박창현·김지현·조혜주·서유현·최옥수·이은정(2014).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의 내용을 일부 발췌, 재분석 및 재정리한 것임.

- 현재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미래사회의 준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사회에 직면하게 될 문제와 위험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됨.
- 향후 20년 안에 기존 일자리의 30% 정도는 없어지며, 전 세계 8세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6)에서 발표됨.
- 저출산 기조가 10년 동안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과 투자의 방향은 ‘양적’ 관점만이 아닌 ‘질적’ 관점에서 창의성 높은 인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재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 어린 시기부터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고 성취위주의 지식 축적과정이 강조되는 등 선행학습, 사교육 및 암기와 해답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과 활동은 제한적임.
 - 이른 시기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해야 함.
-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1990년대 말부터 창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음.
 - 1995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처음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라 조금씩 변화됨.
 - 2009년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됨.
 - 유아 대상 창의성 교육 정책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완성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내용에 반영된 창의성 교육 방향만이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음.

나. 창의성 개념과 관련 요인

- 창의성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창의성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으로 인지적 접근, 성격적 특성 등이 논의되었고 최근에는 사회적 환경 또는 맥락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관심을 받고 있음.

- 창의성의 개념과 하위요소들이 다르므로 측정도구는 연구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계속성, 완성도, 새로운 요소 첨가, 선 연결, 주제 구성 등의 세부요소부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 다양한 영역들이 측정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Urban과 Jellen(1986; 채선희·홍용희, 2001, 재인용)에 의해 개발된 도형 창의성 검사를 사용하여 창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 창의성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 태도, 가치관 및 인지양식을 포함하는 창의적 성향이 있음.
 - 창의성이 인지적 능력을 강조하고 측정한다면 창의성향은 창의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성격을 강조한 것임.
 - 창의적 성향을 성격의 요소로 두고,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일부 변인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많은 연구에서 창의적 성향을 창의성 대신의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도 함.
- 창의성과 아동 개인특성 요인
 - 선행연구 통해 창의성과 관련 있는 아동 개인특성 요인으로 아동 연령, 성별, 지능, 성격 및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많이 제시되어 있음.
 - 관련 요인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결론이며, 성별과 지능 및 창의성 관계는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음.
- 창의성과 양육환경 요인
 - 창의성과 관련 있는 양육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행동, 가족상호작용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육환경 요인도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향과 창의성에 대한 양육환경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및 인천지역 5세 유아, 초등2학년과 5학년 아동 270명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 유아와 아동에게는 창의적 성향과 창의성 및 수행검사를 진행하고 부모에게는 일반적 특성과 양육환경에 대해 설문조사함.

2 창의성향과 양육환경

가. 창의성향과 부모특성

- 부모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력 및 월소득에 의한 아동의 창의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음.
 - 부모의 연령을 20~30대, 40~50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연령에 따라 창의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나 부모의 연령이 많은 아동의 창의성향이 더 높았음.

〈표 1〉 아동의 창의성향과 부모특성 1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69	4.13	3.93	
부모의 연령				
20~30대	112	3.24	4.15	10.25**
40~50대	157	4.77	3.64	
부모학력				
초대졸 이하	108	3.33	4.29	4.25*
대졸	126	4.52	3.49	
대학원졸 이상	35	5.20	3.88	
가구월소득				
400만원 미만	69	3.70	4.16	0.67
400~600만원	112	4.18	3.83	
600만원 이상	88	4.42	3.89	
부모의 자녀수별				
1명	45	4.00	3.55	.60
2명	176	4.31	3.82	
3명 이상	48	3.63	4.63	
지역규모별				
대도시	176	4.32	3.91	1.69
중소도시	65	4.18	3.42	
읍면	28	2.86	4.96	

* $p < .05$, ** $p < .01$

-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창의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아동의 창의성향이 높았음.
- 부모의 월소득, 자녀 수, 사는 지역 규모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부모의 특성 중 부모의 창의성향, 부모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부모의 창의성향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아동의 창의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이는 부모의 창의성향이 아동에게 학습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함.

〈표 2〉 아동의 창의성향과 부모특성 2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69	4.13	3.93	
부모의 창의성향				
높음	137	2.92	3.82	29.49***
낮음	132	5.39	3.64	
전체	265	16.45	6.35	
부모의 창의성 인식				
높음	138	3.79	3.83	2.68
낮음	126	4.58	4.00	

*** $p < .001$

- 한편, 부모의 창의성 인식의 정도는 아동의 창의성향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나. 창의성향과 양육행동

- 부모의 양육 행동으로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을 측정하였고,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라 창의성향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함.
 - 유아와 아동의 창의성향에는 지능과 자녀의 연령이 영향력을 가지기에 양육행동만의 효과를 보기 위해 통제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 변수를 평균을 기점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눈 상태에서 지능과 자녀연령을 통제한 후 부모의 양육 태도가 창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음.

- 통제적 양육 행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온정적 양육 행동은 지능과 자녀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창의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냄.
- 부모가 온정적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창의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 온정적 양육에 따른 창의성향 차이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430.036	3	143.345	12.422	.000
절편	6.911	1	6.911	.599	.440
지능	293.154	1	293.154	25.405	.000
자녀 연령	7.897	1	7.897	.684	.409
온정적 양육 그룹	43.202	1	43.202	3.744	.054 ⁺
오차	3057.904	265	11.539		
합계	30308.000	269			
수정 합계	3487.941	268			

$R^2 = .123$ ($\Delta R^2 = .113$)

주: 온정적 양육의 평균 점수: 3.71, α (평균 이상 집단)= 139, α (평균 이하 집단)= 130.
⁺ $p < .1$

다. 창의성향과 가족상호작용

- 가족상호작용으로는 응집성과 유연성을 보았는데, 지능과 자녀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응집성과 유연성을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창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음.
- 가족의 유연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았으나, 응집성은 $p <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음(표 4 참조).

〈표 4〉 가족 응집성에 따른 창의성향 차이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430.703a	3	143.568	12.444	.000
절편	6.157	1	6.157	.534	.466
지능	291.544	1	291.544	25.271	.000
자녀 연령	9.293	1	9.293	.806	.370
응집성 그룹	43.869	1	43.869	3.803	.052 ⁺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오차	3057.238	265	11.537		
합계	30308.000	269			
수정 합계	3487.941	268			
$R^2 = .123 (\Delta R^2 = .114)$					

주: 응집성의 평균 점수: 4.22, r (평균 이상 집단)= 150, r (평균 이하 집단)= 119.

⁺ $p < .1$

라. 창의성향과 창의적 가정환경

- 창의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아동존중, 풍부한 학습 환경, 독립심 자극, 가족의 압력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창의적 가정환경을 측정하였음.
-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나누어서, 지능과 자녀 연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따라 창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음.

〈표 5〉 아동존중 가정환경에 따른 창의성향 차이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429.329a	3	143.110	12.399	.000
절편	6.168	1	6.168	.534	.465
지능	300.828	1	300.828	26.064	.000
자녀 연령	6.553	1	6.553	.568	.452
아동존중 그룹	42.495	1	42.495	3.682	.056 ⁺
오차	3058.611	265	11.542		
합계	30308.000	269			
수정 합계	3487.941	268			
$R^2 = .123 (\Delta R^2 = .113)$					

주: 아동존중의 평균 점수: 3.62, r (평균 이상 집단)= 149, r (평균 이하 집단)= 120.

⁺ $p < .1$

- 가정환경 중 아동존중과 풍부한 학습 환경이 창의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아동을 존중하는 가족환경 점수가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창의성향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 다른 가정환경으로 풍부한 학습환경에 대해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풍부한 학습환경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창의성향을 나타내고 있었음.
- 다양한 학습경험과, 흥미롭고 유능한 성인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등 풍부한 학습 환경에서의 노출이 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향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6〉 풍부한 학습환경에 따른 창의성향 차이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427.861a	3	142.620	12.351	.000
절편	7.052	1	7.052	.611	.435
지능	305.059	1	305.059	26.418	.000
자녀 연령	5.163	1	5.163	.447	.504
풍부한 학습환경 그룹	41.026	1	41.026	3.553	.061 ⁺
오차	3060.080	265	11.547		
합계	30308.000	269			
수정 합계	3487.941	268			

$R^2 = .123$ ($\Delta R^2 = .113$)

주: 풍부한 학습환경의 평균 점수: 3.00, t (평균 이상 집단)= 125, t (평균 이하 집단)= 144.

⁺ $p < .1$

3 창의성과 양육환경

가. 창의성과 부모특성

- 부모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력 및 월소득, 자녀 수,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검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음.
- 부모의 연령, 학력, 부모의 월소득, 자녀 수, 사는 지역 규모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검사의 결과는 단순 통계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7〉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특성 1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70	16.43	6.37	
부모의 연령				
20~30대	112	15.71	5.95	2.40
40~50대	158	16.93	6.63	
부모학력				
초대졸 이하	109	16.35	6.85	
대졸	126	16.19	6.04	.60
대학원졸 이상	35	17.51	6.05	
가구월소득				
400만원 미만	69	15.55	6.69	
400~600만원	113	17.06	6.33	1.23
600만원 이상	88	16.30	6.16	
부모의 자녀수별				
1명	46	17.17	6.12	
2명	176	16.63	6.23	1.69
3명 이상	48	14.96	6.70	
지역규모별				
대도시	177	16.15	6.41	
중소도시	65	17.06	6.26	.52
읍면	28	16.71	6.53	

■ 부모의 특성 중 부모의 창의성향, 부모의 창의성 인식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부모의 창의성향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아동의 창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 한편 부모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아동의 창의성 검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표 8〉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특성 2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69	16.46	6.37	
부모의 창의성향				
낮음	137	16.14	6.20	.70
높음	132	16.79	6.54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65	16.45	6.35	
부모의 창의성 인식				
낮음	139	15.68	6.21	4.34*
높음	126	17.30	6.42	

* $p < .05$

□ 아동의 사교육 횟수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아동의 연령과 지능을 통제하여 사교육 횟수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 횟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창의성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사교육의 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창의성 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사교육 횟수와 창의성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875.157a	3	625.052	19.246	.000
절편	100.865	1	100.865	3.106	.079
자녀 연령	583.063	1	583.063	17.953	.000
지능	744.369	1	744.369	22.920	.000
사교육 횟수 그룹	169.756	1	169.756	5.227	.023*
오차	7307.419	225	32.477		
합계	74415.000	229			
수정 합계	9182.576	228			

$R^2 = .204$ ($\Delta R^2 = .194$)

주: 사교육의 평균 점수: 1.52, r (평균 이상 집단)= 120, r (평균 이하 집단)= 109.

* $p < .05$

나. 창의성과 양육행동

-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의 수준 정도에 따른 창의성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았음.
-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에서 창의성 점수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10〉 부모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창의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70	16.43	6.37	
온정적 양육행동				
낮음	131	16.05	6.81	.87
높음	139	16.77	5.93	
전체	270	16.43	6.37	
통제적 양육행동				
낮음	132	16.54	6.66	.08
높음	138	16.32	6.11	

다. 창의성과 가족상호작용

- 가족상호작용으로서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 정도에 따른 창의성 점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함.
 - 가족상호작용의 응집성의 정도가 높은 집단과 유연성이 높은 집단의 창의성의 점수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표 11〉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창의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70	16.43	6.37	
가족 응집성				
낮음	120	16.65	6.82	.266
높음	150	16.25	6.01	
전체	270	16.43	6.37	
가족 유연성				
낮음	108	15.84	6.46	1.510
높음	162	16.81	6.31	

라. 창의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 창의적 가정환경의 하위영역은 아동존중, 풍부한 학습 환경, 독립심 자극과 가족의 압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영역의 평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음.

- 창의적 가정환경의 아동존중이 높은 집단과 풍부한 학습 환경이 잘 구비된 집단의 창의성 평균 점수가 단순 기술 평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표 12〉 창의적 가정 환경과 아동의 창의성 1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70	16.43	6.37	
아동 존중				
낮음	121	16.13	6.50	.47
높음	149	16.66	6.28	
전체	260	16.42	6.38	
풍부한 학습환경				
낮음	226	16.39	6.35	.04
높음	34	16.62	6.64	

- 창의적 가정환경의 독립심 자극과 가족의 압력에 대한 창의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독립심 자극과 가족의 압력이 높은 집단의 창의성 점수는 에서 창의성 점수가 높았음.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13〉 창의적 가정환경과 아동의 창의성 2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70	16.43	6.37	
독립심 자극				
낮음	132	16.14	6.32	.50
높음	138	16.70	6.44	
전체	270	16.43	6.37	
가족의 압력				
낮음	192	16.14	6.31	1.33
높음	78	17.13	6.52	

4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제언

-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창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필요함.
 - 성취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유아기부터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함.
- 양육환경으로서의 부모의 영향에 대한 인식
 - 양육환경은 창의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창의성향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의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회제도적 측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태도도 중요함.
 - 부모가 평소에 보이는 자녀와의 대화나 행동에서의 특성이 아동들에게 인식되고 전이되므로 부모의 개방적인 자세나 태도는 중요함.
- 가족과의 유대 관계 증진의 필요성
 -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보다는 아이들과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는 수용적인 부모가 되도록 해야 함.
 - 자녀의 요구와 행동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여 가족에게서 물리적·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함.
- 아동 존중의 필요성
 - 어린 시기는 호기심도 많고 일상생활의 경험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 시기인 만큼 부모는 자녀의 관심과 선택을 존중하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격려함.
 - 부모나 어른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하도록 함.
- 다양한 경험의 제공
 - 다양한 경험의 제공은 다양한 학습과는 구별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지원하도록 함.
 - 새로운 사물, 친구와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학업 중심에서 벗어나 문학, 예술과 문화 및 체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장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창의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지원

- 창의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성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함.
-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대화하거나 활동 시에 어떻게 자녀의 창의성향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를 알려주어 부모로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 강의위주의 교육에서 체험 중심과 학생 주도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교수방법을 실천하고 교사들의 개성에 맞는 새로운 기회와 지원을 제공함.

참 고 문 헌

도남희·박창현·김지현·조혜주·서유현·최옥수·이은정(2014).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발달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채선희·홍용희(2001). 창의성 측정도구 TCT-DP의 한국 유아에의 적용 가능성 검증. 교육평가 연구, 14(2), 109-125.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이슈페이퍼 2017-03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김은영 |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2. 영유아 학대 현황
3. 영유아 학대 원인 및 영향
4. 영유아 학대에 대한 부모 및 교사 인식
5.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김 은 영 | 연구위원

요 약

-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영유아는 발달특성상 학대에 더 취약하여 사망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음.
- 아동학대에는 개인, 부모,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호자의 양육기술 미숙 및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는 아동의 적응 문제, 행동문제 및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로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와 교사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

1

문제 제기

-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최근 가정을 비롯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본 원고는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영유아는 발달특성상 학대에 더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는 학대에 노출되어도 표현능력이 낮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위험이 높고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높음.
 - 2015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9건 중 피해 아동이 0~6세 영유아인 비율은 약 89%(17건)로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음.
 - 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및 피해아동 보호 방안을 마련함. 또한 원가정 보호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그 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면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인식을 살펴보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영유아 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은 전년과 대비하여 36.0%로 역사상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015년에는 19,203건으로 지난 15년간 4.6배 증가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2015년에 신고된 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다루어진 건은 16,651건으로 신고된 건수의 86.7%이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11,715건으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의 70.4%임.

□ 아동학대 사례 중 영유아 학대 사례의 비율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11,715건 중 1세 미만은 2.9%, 1-3세는 11.2%, 4-6세는 14.4%로 영유아기 학대 사례의 비율이 28.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표 1〉 연령별 아동학대 건수

단위: 건(%)

구분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건수	344	312	457	543	570	485	628	2,123	2,289	2,600	1,364	11,715
(비율)	(2.9)	(2.7)	(3.9)	(4.6)	(4.9)	(4.1)	(5.4)	(18.1)	(19.5)	(22.2)	(1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06.

〈표 4-2〉를 재구성함.

□ 아동학대 사례 중 영유아 학대 사례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임의 비율은 적어지나,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1세 미만 아동의 학대 유형은 방임이 54.5%로 과반수임. 1~3세의 경우 정서학대를 당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는 그 다음으로 30.5%임. 4~6세 아동의 경우에도 정서학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체학대가 35.3%임.

〈표 2〉 아동학대 유형별 비율

단위: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수)
1세 미만	68(16.4)	121(29.2)	0(0.0)	226(54.5)	100.0(415)
1~3세	564(30.5)	750(40.5)	6(0.3)	530(28.6)	100.0(1,850)
4~6세	877(35.3)	1,054(42.2)	29(1.2)	524(21.1)	100.0(2,484)
7~9세	1,171(37.1)	1,241(39.3)	78(2.5)	668(21.2)	100.0(3,158)
10~12세	1,319(38.2)	1,401(40.6)	140(4.1)	594(17.2)	100.0(3,454)
13~15세	1,738(41.7)	1,737(41.7)	234(5.6)	455(10.9)	100.0(4,164)
16~17세	924(43.2)	893(41.8)	142(6.6)	178(8.3)	100.0(2,13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5.

〈표 4-18〉을 재구성

3 영유아 학대 원인 및 영향

가. 영유아 학대 원인

- 아동학대에는 개인, 부모,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7. 31).

〈표 3〉 아동학대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특성	2013		2014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양육기술 미숙	7,099	32.6	10,076	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883	22.4	6,200	20.4
부부 및 가족 갈등	2,049	9.4	3,050	10.0
성격 및 기질문제	1,543	7.1	2,134	7.0
중독 문제	1,275	5.9	2,026	6.7
기타	4,939	22.7	6,968	22.8
계	21,788	100.0	30,454	1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7. 31).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발표-. p.8.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메타분석 결과¹⁾, 영유아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요인은 아동특성, 가족특성, 교사특성, 지역사회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애착, 양육태도였음.
- 최근 10여 년 간 국내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빈곤, 가정의 갈등적 구조, 부모의 음주 등은 일관되게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보고됨.
-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와 유기의 원인으로 자녀의 특성이나 양육자의 특성 외에 지역·사회적 요인으로 가난, 사회적 자본을 들고 있음(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68).

1) 아동학대 관련 872개의 논문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영유아 학대 관련 20개의 논문을 분석함.

나. 영유아 학대의 영향

- 아동학대는 아동의 적응 문제, 행동문제 및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침.
 - 아동학대는 아동의 위축,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과잉 행동,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김수정·정익중, 2013, 재인용²⁾).
 - 방임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는 아동의 우울성향,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나은숙·정익중, 2007)
 -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문제는 증가함.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특히 여아의 우울과 공격성 문제는 증가함(유정아·정익중, 2014).
 -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불안감,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민대기, 2014).
 -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의 탄력성과 인지기능,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임(주소영·이양희, 2008).
- 아동학대는 아동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아동학대의 지속 효과가 강력하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동학대의 최신 효과도 존재함. 아동학대는 초등학교시기에 최신효과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지속효과가 큰 영향을 미침(김수정·정익중, 2013).

2) 재인용한 논문은 다음과 같음(김광혁, 2009; 정익중, 2008; Lamont, 2010; Shonk & Cicchetti, 2001; Mills, 2004; Stirling, Amaya-Jackson, & Amaya-Jackson, 2008).

4 영유아 학대에 대한 부모 및 교사 인식³⁾

가. 영유아 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영유아 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부모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심각성 정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유치원, 가정 순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에서의 학대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 교사는 가정에서의 학대 심각성 정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학대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여 부모의 인식과 차이를 보임.

〈표 4〉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점(명)

구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	3.8	1.72	4.5	1.58	4.2	1.50	(1,139)
교사	4.0	1.67	3.5	1.72	3.2	1.56	(1,247)

주: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나. 영유아 학대 경험 및 인식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 목격 여부에 대해서는 0.2%에서 31.8%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율로 나타남.
 - 부모와 교사 모두 가장 많이 목격한 행동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으로 각각 18.4%, 31.8%였으며, 그 다음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으로 각각 14.1%, 26.4%,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각각 11.9%, 20.0%로 비율은 다르지만 순위는 유사함.
 - 부모의 경우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을 목격했다는 응답이 11.5%로 교사의 응답 1.8%와 큰 차이를 보임.

3) 영유아 학부모 1,139명,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1,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함.

〈표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학대 의심 행동 목적 여부

단위: %

구분	부모	교사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6.6	7.5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4.3	1.3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4.4	1.7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3.9	0.8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7.0	2.7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9.8	6.8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14.1	26.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8.0	2.4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11.9	20.0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18.4	31.8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10.5	19.1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1.6	0.2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1.4	0.2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9	0.2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11.5	1.8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표 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아동을 위로 ²⁾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부모	8.0	27.6	16.3	15.7	4.3	3.3	28.5	28.6	4.9	(390)
교사	3.2	26.7	60.2	13.7	0.2	1.8	47.4	10.5	2.0	(561)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부모조사의 경우 아동에 자신의 자녀도 포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와 교사 모두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표 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보육/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부모	48.1	1.7	10.8	2.3	1.1	15.6	15.3	100.0(112)
교사	71.2	11.9	1.7	-	-	5.1	10.2	100.0(59)

주: 부모조사의 경우 1, 2순위를 응답받았고, 본 결과는 1순위 결과임.

- 영유아 학대 관련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2.6으로 동의하지 않는 편에서 보통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으며, 교사에 비해 부모의 동의정도가 다소 높음.
 - 부모의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은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임.

〈표 8〉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부모	2.6	2.4	2.6	2.6	2.4	2.2	2.3	2.3	(1,139)
교사	2.6	2.2	2.3	2.3	2.1	2.0	2.3	2.3	(1,247)

주: 1) ①‘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②‘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③‘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④‘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⑤‘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⑥‘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⑦‘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⑧‘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다. 영유아 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부모	41.7	1.5	27.7	16.0	6.0	4.3	1.1	0.8	0.7	0.2	100.0(1,139)
교사	47.2	0.3	13.5	15.6	9.1	5.2	7.9	0.2	0.8	0.3	100.0(1,247)

주: ①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②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 ③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④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⑤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⑥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⑦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⑧기관 차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⑨정책적 지원의 부족, ⑩기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로 부모는 ‘교사 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기관 내 CCTV 설치’, ‘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에 대해서는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수)
부모	22.7	28.7	13.3	4.3	4.5	0.7	7.6	2.0	7.6	1.3	2.5	0.7	3.8	0.2	100.0(1,139)
교사	27.7	17.1	23.7	1.2	6.7	0.5	1.0	0.1	1.4	0.2	7.9	6.4	6.1	0.1	100.0(1,247)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교사 처우 개선, ④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신고의무제 강화, ⑦기관 내 CCTV 설치, ⑧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기타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는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11〉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부모	42.6	7.0	15.4	8.8	1.7	3.5	8.4	6.5	5.4	0.6	0.1	100.0(1,139)
교사	35.5	13.8	16.2	8.4	1.0	1.9	7.0	7.6	7.9	0.6	-	100.0(1,247)

주: 1) ①양육스트레스, ②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③부부 및 가족갈등, ④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⑤종족(술, 도박, 게임 등) 문제, ⑥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⑦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 ⑧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⑨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⑩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⑪기타
 2) 부모조사의 경우 1, 2순위를 응답받았고, 다음은 1순위 결과임.

-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표 12〉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아동학대 관련 법규 홍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기타	계(수)
부모	25.9	16.4	41.5	8.8	4.4	2.7	0.3	100.0(1,139)
교사	48.0	20.3	18.7	7.6	1.6	3.5	0.2	100.0(1,247)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우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13〉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부모	1.8	28.3	4.3	14.3	34.2	16.6	0.5	100.0(1,139)
교사	0.7	43.6	1.4	12.4	22.1	19.3	0.4	100.0(1,247)

주: 1) ①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④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⑤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⑥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⑦기타

라.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1.7~3.6점까지 분포가 넓게 나타남.
 - 교사는 모든 항목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모르는 편임.

〈표 14〉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부모	2.1	2.5	1.9	1.7	2.1	1.9	2.3	2.2	2.1	2.2	2.2	(1,139)
교사	3.2	3.5	3.5	3.3	3.6	3.1	3.2	3.6	3.5	3.4	3.3	(1,247)

주: 1) ①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②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③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④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⑤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⑥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존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됨, ⑦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⑧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⑨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⑩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⑪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모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0.6%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교사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0%로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나타냄.

〈표 1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평균	계(수)
부모	24.3	66.3	8.5	0.9	3.1	100.0(1,139)
교사	10.7	19.2	57.8	12.2	2.7	100.0(1,24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

-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와 교사 모두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부모는 실제적으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교사는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임.

〈표 16〉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화내용이 지워져서 제대로 확인 못하므로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타	계(수)
부모	47.5	31.9	11.6	5.7	3.3	100.0(106)
교사	41.4	2.1	1.9	40.9	13.6	100.0(374)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임.

〈표 17〉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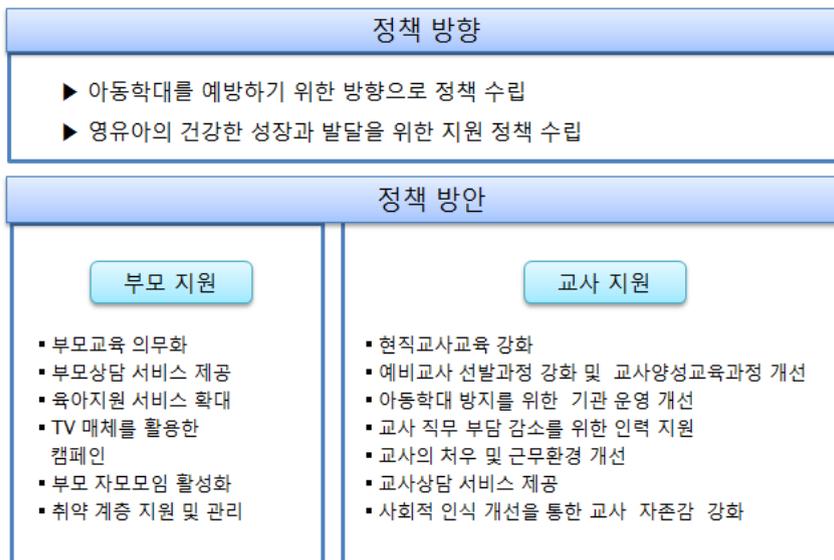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부모	20.8	14.0	4.7	4.8	26.5	3.7	14.9	2.3	8.0	0.2	100.0(1,139)
교사	33.8	11.1	3.6	6.3	8.1	5.6	22.3	2.9	5.9	0.3	100.0(1,247)

주: 1)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2) 부모조사의 경우 1, 2, 3순위를 응답받았고, 다음은 1순위 결과임.

-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방안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가. 정책 방향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먼저 찾아서 가능한 요인을 제거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킴.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정책에 비중을 둬.

나. 부모를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의무화
 - 예비부모가 임신하여 국민행복카드(과거 고운맘 카드)를 받을 때 1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때 2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새로운 육아지원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현존하는 서비스를 부모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이나 캠페인을 할 때 TV 매체를 활용함.
-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킴.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사회·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 생계형 맞벌이나 고소득 전문직 부모들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다. 교사를 위한 지원

■ 현직교사교육 강화

- 교사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행동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 예비교사 선발 시 인성검사를 필수로 하고, 교사양성교육과정 중에 예비교사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 집단으로 하는 행사를 지양하며 일상생활 관련 시간에 보조교사 등 지원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교사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함.

■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 교사가 잡무를 줄이고 보육과 교육이라는 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하향 조정함.

■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아동학대가 일정 부분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므로 교사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는 감정노동을 하는 직무에 종사하므로 교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 부모에게 친근한 방송매체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아동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거나 바람직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함.

참 고 문 헌

김수정·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2013).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나은숙·정익중(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민대기(2014). 환경적 요인이 아동 성장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2), 203-30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

주소영·이양희(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
 동학회지, 29(3), 127-15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법령 및 협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172호, 2016.5.29., 개정, 2017.5.30., 시행]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7. 31.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이재희 부연구위원 · 김은설 연구위원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례 및 시사점
강은진 연구위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위한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강은진 연구위원
-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7-04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이재희 | 부연구위원
김은설 | 연구위원

1. 서론
2. 국내·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
3.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
4.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 개선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이재희 | 부연구위원 · 김은설 | 연구위원

요약

-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어린이집 영아반(0-2세)의 경우 OECD와 EU 국가자료와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유아반(3-5세)반은 다소 높은 편임.
- 전문가 조사 결과 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교사 대 영유아 수를 1명, 유아반의 경우는 각 연령에 따라 3명~7명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음.
- 해외사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기준으로 줄이는 안, 학급최대 규모 규정을 개선하고 교사를 배치하는 안, 연령구분을 새롭게 하는 안,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3세반의 기준만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1 서론

-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함.
 -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의 따라 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의 횟수와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양과 질이 차이가 나타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표준 보육과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항목에도 영유아 교사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이슈페이퍼는 2015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방안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기준 마련 연구」(김은설, 이재희, 박은영, 김정숙)를 토대로 작성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에는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 대 영유아 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발달 수준을 고려한 상호작용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평가항목에서는 교사와 영유아와 신뢰로운 관계 형성, 영유아와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 영유아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6).
-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영유아의 성장 과정인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연령에서 어느 정도의 집단 크기가 한 명 교사의 지도에 적합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학급 당 아동 수, 학급 규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학급 규모가 감소하면 상호작용 횟수와 질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 부적응 유아는 오히려 놀이 상대가 줄어들어 따라 불편함과 불안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설정 시 유의해야함(김영주, 2000).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재검토와 대안 제시가 요구됨.
- 본 연구는 현재 제도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다양한 국내외 현황을 확인하고 연령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 데 있음.

2 국내·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

가. 국내 현황

1) 수적 현황

-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 전체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3.4명이며 국공립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2.8명, 사립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3.6명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0.8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유치원 교사1인당 유아 수 현황(2015)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교원	12,619	38,379	50,998
원아	161,339	521,214	682,553
교원 1인당 유아 수	12.8	13.6	13.4

주: 교원은 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5). 교육통계연보.

- 보육교직원 1인당 영유아 수는 전체 4.5명이나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는 6.3명으로 1.8명의 차이가 나타났음.
- 보육 교직원 1인당 영유아 수는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5.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 어린이집이 3.3명으로 가장 낮았고,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 어린이집이 4.7명으로 가장 낮았음.

〈표 2〉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 현황(2015)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보육교직원	30,823	18,933	8,637	145,724	105,124	970	10,856	321,067
보육교사	21,832	12,565	5,707	106,599	73,788	641	7,984	229,116
원아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교직원 1인당 영유아수	5.4	5.3	5.4	5.1	3.3	4.3	4.1	4.5
교사 1인당 영유아수	7.6	7.9	8.2	7.0	4.7	6.4	5.6	6.3

주: 보육교직원에 포함되는 직위는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기타이며 보육교사는 담임교사,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를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육통계.

2) 국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규정

- 유치원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마다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3세는 한 학급 당 15-18명, 4세는 20-30명, 5세의 경우는 21-30명까지 허가하는 경우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3세 기준으로 가장 유아 수가 적은 곳은 대전, 충남, 세종, 전남 등으로 15명이고 경기, 강원, 전북, 경남은 16명이 기준임.

〈표 3〉 유치원 연령별 학급정원

단위: 명

	단일학급			혼합연령	비고
	만3세	만4세	만5세	만3~5세	
서울(공립)	17	23	27	22	
(사립)	16~20	22~25	26~30	22~25	
부산	18	26	28	24	-기설유치원 28명
대구	18	24	28	24	-특수학급: 4
인천	18	26	28	24	
도시	16	24	26	22	
대전(공립)	15	23	27	23	-특수학급: 4
(기설사립)	15~20	23~25	27~30	23~25	-특수학급: 4
광주	18	22	25	22	-특수학급: 4
울산(공립)	18	24	28	24	
(사립)	30	30	30	30	
경기	16	22	26	20	
강원	16	22	24	18	-특수학급: 4
충북	12~15	17~20	21~24	8~20	-면 이하 농촌지역 5명까지 인정 -수용시설 부족 시 2명 초과 허용
충남	15	20	25	25	-연령별 초과 인원 5명까지 허용(혼합연령반 제외)
세종	15	20	25	24	
전북	16	20	25	18	-학급편성 최소 인원 -도시지역: 5명 -농어촌: 3명 -단일연령반에 잔여 인원 2명 초과하여 편성 가능
전남	15	20	23	시: 22 /읍면: 18	-최저 원아수: 4명 -특수학급: 2~4명 1학급
경북	공립: 16 사립: 18	22	28	26	
경남	16	24	26	22	
제주	20	22	26	18	

자료: 17개 각 시도교육청별 2016학년도 유아교육운영계획서

-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국가 수준에서 규정되어 일괄 적용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업 규정(2016)에 의하면, 0세는 교사 1명 대 영유아 3명, 1세는 교사 1명 대 영유아 5명, 2세는 1:7, 3세는 1:15, 4, 5세는 1:20이며, 초과보육 허용으로 만1세는 1명, 2세 2명, 3세 3명, 4세 이상 3명의 인원을 탄력편성으로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4〉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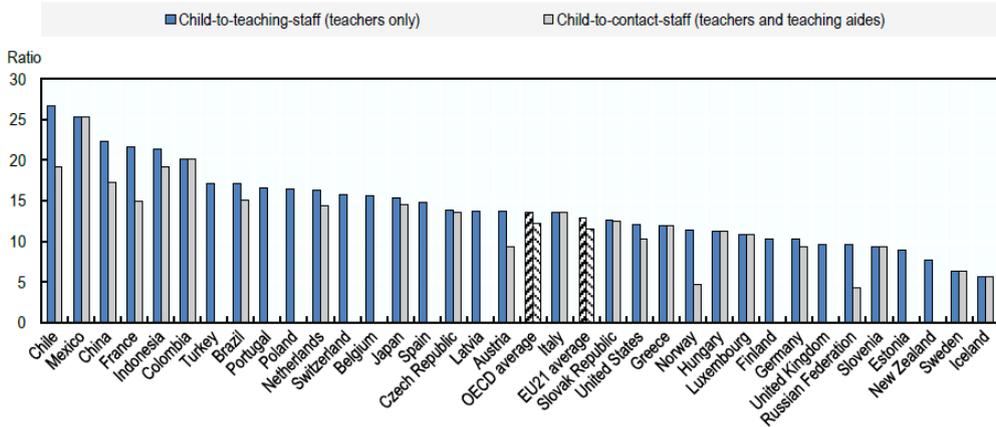
연령	단일연령					혼합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0,1세	1,2세	0,2세	2,3세	3,4세 이상
교사:영유아 비율	1:3	1:5	1:7	1:15	1:20	1:3	1:5	불가	불가	1:15
초과보육 허용인원	1	2	3	3	3	초과보육 시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초과보육 시 교사:영유아 비율	1:4	1:7	1:10	1:18	1:23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나. 국외 현황

1) OECD 국가별 교직원 대 영유아 비율

- OECD의 201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단계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평균 13.6명으로 나타났으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등의 나라의 경우 10명 이하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멕시코, 칠레 등은 20명 이상으로 나타났음.
- 일부 국가에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영유아 대 교사비율(child-to-teaching-staff-ratio)과 영유아 대 교직원비율(child-to-contact-staff-ratio)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 국가에 따라 교육만, 또는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경우가 있으며, 교육과 보육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그림 1] 3-5세 유아 대 교사 또는 3-5세 유아 대 교직원비율(2013)

2) 유럽의 보육시설 교직원 당 영유아 수 기준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연령별로 기준을 달리 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몰타 는 1살 미만의 영아의 경우 교직원 대 영아의 비율이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1살 미만뿐만 아니라 2살 미만의 영아까지도 교직원 대 영아의 비율의 기준을 1:3으로 제한하고 있음.
-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3세 이상이 되면 교직원 대 영유아 비율이 1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면 벨기에,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은 영유아의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에는 교직원 대 영유아 비율이 1:20에 육박하거나 20보다 넘었음.

〈표 5〉 유럽의 보육시설(center-based ECEC)의 교직원당 영유아 수

단위: 명

구분	교직원 한 명 당 영유아 최대 인원						그룹 당 영유아 최대 인원						
	영유아 연령						영유아 연령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벨기에(불어권)	7		20				제한없음						
벨기에(독어권)	6		19				제한없음						
불가리아	제한없음						8	16	16	22			
체코	제한없음						제한없음			24			
에스토니아	제한 없음	8		12			5	16			24		
아일랜드	3	5	8			없음	제한없음						
그리스	4			12.5			12			25			
스페인							8	14	20	25			
프랑스	5	8		제한없음				20		30			
크로아티아	제한없음						5	8	12	14	18	23	
이탈리아	변동적임						26						
키프로스	6		16	25			제한없음			25			
라트비아	제한없음												
리투아니아	3	10	15	20			6	10	15	20			
룩셈부르크	6		8		11		12		15				
헝가리	6		7	제한없음			12		14	25			
몰타	3	5	6	15	20	없음	제한없음			15	20	없음	
오스트리아	5	7.5		12.5			10	15			25		
폴란드	8			제한없음						25			
포르투갈	5	7	9	7.5	12.5		10	14	18	25			
루마니아	4	5	6	17			7		15	20			
슬로베니아	6			8.5	11		12			17	22		
슬로바키아	제한없음		10	20	21	22	제한없음		10	20	21	22	
핀란드	4			7			제한없음						
스웨덴	제한없음												
영국 (잉글랜드)	3		4	13		없음	제한없음				30	없음	
영국 (웨일즈)	3		4	8		없음	12			26	30	없음	
영국 (스코틀랜드)	3		5	8		없음	제한없음					없음	
리히텐슈타인	변동적임						8	8	12	12	20	20	
노르웨이	9			18			제한없음						
스위스	6		8		제한없음			12			24		
독일	5			14			10			25			

주: 각 국가마다 교사의 기준 및 세부 지침이 상이 하니 해석에 유의할 것.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pp.45~46.

3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269명이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전문가 별 응답 수는 <표 6>에 제시하였음
- 조사 내용은 연령별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의견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수 연령별 적정 비율이었음.

<표 6> 조사 대상

단위: 명

구분	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				계
	유아 교육	보육	유아교육 장학사	보육 공무원	유아교육진 흥원장	육아종합 지원센터장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계획	60	60	15	15	15	15	60	60	300
참여	43	39	16	16	12	14	59	70	269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

나. 유치원의 학급 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

- 3세의 경우,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평균 14.8명이었으며 장학사의 응답 평균이 13.7명으로 가장 작았으며 유치원 원장의 응답 평균은 17.1명으로 가장 높았음.
- 4세의 경우,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평균 19.4명이었으며 3세와 마찬가지로 장학사의 응답 평균이 18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치원 원장의 응답 평균은 21명으로 가장 높았음.
- 마지막 5세의 경우,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평균 22.9명이었으며 3, 4세와 마찬가지로 장학사의 응답 평균이 21.3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치원 원장의 응답 평균은 24.7명으로 가장 높았음.

〈표 7〉 연령별 학급당 적정 유아 수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4.8	3.42	19.4	3.30	22.9	3.4	129
직업							
교수	14.4	3.27	19.1	3.60	23.3	3.7	43
장학사	13.7	1.78	18.0	1.93	21.3	2.3	16
유치원 원장	17.1	11.52	21.5	10.79	24.7	10.4	69
유아교육진흥원장	13.8	8.13	18.3	7.72	22.4	7.5	12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76.

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영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교사 1인당 0세의 경우 2.1명, 1세는 3.7명, 2세는 5.6명으로 전문가들은 현행 규정인 0세 1:3, 1세 1:5, 2세 1:7보다 낮은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영아반 이상적 교사 대 영아 비율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1	0.45	3.7	0.82	5.6	1.10	104
전문가 유형							
교수	2.1	0.48	3.3	0.90	5.0	1.17	29
공무원	2.3	0.45	3.9	0.88	5.9	0.99	10
어린이집 원장	2.1	0.00	3.7	0.67	5.9	0.83	55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	0.45	3.7	0.82	5.6	1.08	10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93.

- 유아의 이상적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교사 1인당 3세는 10.8명, 4세는 14.5명, 5세는 16.2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현행 규정에 비해 3세는 4.2명, 4세는 5.5명, 5세는 3.8명이 작은 수치임.

〈표 9〉 유아반 이상적 교사 대 유아 비율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8	2.30	14.5	2.77	16.2	3.01	104
전문가 유형							
교수	9.5	2.06	13.1	2.63	15.3	3.44	29
공무원	9.8	2.39	13.0	3.89	14.4	3.57	10
어린이집 원장	11.4	2.08	15.2	2.29	16.8	2.53	55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2.3	2.00	16.5	1.86	17.6	2.25	10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95.

4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 개선안

- 국·내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 전문가 의견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접근 방식에서 논의될 수 있음.
 - 첫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당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식임.
 - 둘째, 교사 1인 체제를 다인 운영 체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행 교수 1명이 한 반을 책임지는 방식을 2명 이상 다수의 다양한 교사가 함께 한 집단 또는 최대 규모의 반(학급)의 영유아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임.
 - 셋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가장 약점인 부분에 대한 개선만 추구하는 전략임.
-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4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가. 제1안: 교사 대 유아 비율 기준의 개선

-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3세는 교사 대 아동이 13명, 4세는 17명, 5세는 21명을 한 사람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임.

-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아의 경우 각 연령별로 1명씩 줄여 0세는 2명, 1세는 4명, 2세는 6명이 적절하고 유아반은 현행보다 4~5명씩 감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안임.

〈표 10〉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영유아 수(안)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 : 2 (현행 1:3)	-
1세	1 : 4 (현행 1:5)	-
2세	1 : 6 (현행 1:7)	-
3세	1 : 11 (현행 1:15)	1 : 13 (현행 1:16)
4세	1 : 15 (현행 1:20)	1 : 17 (현행 1:24)
5세	1 : 16 (현행 1:20)	1 : 21 (현행 1:28)

주 1) 유치원은 일일 4~5시간의 교육과정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함.

주 2) 유치원의 현행 기준은 전국 시·도교육청 연령별 공립 학급 정원 기준을 평균한 수치임.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59.

나. 제2안: 학급 최대 규모 규정과 교사 추가 배치

- 직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의 개선이 아닌, 최대 집단(유치원에서는 학급) 규모를 정하고 교사를 추가 투입하여 교사 또는 성인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영아반은 최대 집단 규모에서 정규교사 2명, 유아반 정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하는 형태의 안임.
- 전문가 조사에서 정규 담임 2명이 학급을 공동 책임하기보다는 정규 담임 1명과 보조교사 또는 보조인력 1명이 공동으로 한 학급을 맡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령별 최대 학급 당 영유아 수 및 교사 구성(안)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최대 집단 규모	교사 구성	최대 학급 규모	교사 구성
0세	4	정규교사 2	-	-
1세	8	정규교사 2	-	-
2세	12	정규교사 2	-	-
3세	15	정규 1 +보조 1	15	정규 1 +보조 1
4세	19	정규 1 +보조 1	20	정규 1 +보조 1
5세	20	정규 1 +보조 1	23	정규 1 +보조 1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1.

다. 제3안: 연령 구분의 재구성 “다인교사의 집단 담당”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기준을 고려한 다인교사의 집단(학급) 담당 방식으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12개월 내외의 영아인 경우는 현행 비율인 1:3을 유지해서 최대 9명까지 3명의 교사가 담당하도록 함.
- 12개월 이상부터 30개월(2.5세)까지는 1:4, 2.5세부터 4세까지는 1:9, 4세 이후부터 6세 미만까지는 종일반 기준인 어린이집은 1:10, 교육과정 시간 기준인 유치원은 1:12에 맞추어 최대 24명까지(어린이집은 최대 20명) 한 반에 둘 수 있게 구성

〈표 12〉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령구분의 새로운 접근(안)

단위: 명

연령 명칭	구분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대 영유아 수	집단 최대 규모	교사 ^{주)} 구성	교사 대 유아 수	학급 최대 규모	교사 구성
영영아	0~12개월	1:3	9	정2+보1	-	-	-
영아	12~30개월	1:4	16	정2+보2	-	-	-
영유아	2.5~4세 미만	1:9	18	정1+보1	1:9	18	정1+보1
유아	4~6세 미만	1:10	20	정1+보1	1:12	24	정1+보1

주: 정교사(정), 보조교사(보)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2.

라. 제4안: 현행 기준의 수정안 - 3세반 인원의 기준 개선

- 어린이집의 경우 2세반은 교사 대 영유아가 1:7 비율로 준수되고 있으나 3세가 되면 1:15로 2배 이상의 수를 감당해야 되므로 교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하여 3세반 인원을 중심으로 개선함.
 - 전문가 조사 결과 유치원의 경우는 교사 1인당 13명,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 1인당 11명을 제안한 것을 적용한 안임.
- 이와 더불어 유치원의 경우는 공통 기준을 현행 시·도 규정 중 가장 낮은 비율에 따라 제안하였음.

〈표 13〉 3세 기준만을 개선한 현행 교사 대 영유아 수 유지(안)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3	-
1세	1:5	-
2세	1:7	-
3세	1:11	1:13
4세	1:20	1:20
6세	1:20	1:24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3.

마. 맺음말

- 각 개선안에 따라 구비 요건 추가되는 재정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정책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 안에 따라 최소 교사인건비로만 연간 840 억원 가량부터 최대 3,500억원까지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6). 17개 각 시도교육청별 2016학년도 유아교육운영계획서.
- 김영주(2000). 유치원 학급크기에 따른 교수-학습행동분석. 유아교육학논집, 4(1), 151-173.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 3차 지표 시범사업용.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 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6). Why is high-quality child care essential? The link between quality child care and early learning. Lesson in Learning, CCL.
- European Commission (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이슈페이퍼 2017-05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례 및 시사점

강 은 진 | 연구위원

1. 문제제기
2.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사업 도입
3. 아동친화도시의 적용사례
4.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시사점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례 및 시사점*

강은진 | 연구위원

요약

-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위해 국가는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 분위기 확산 등 지역 사회에 관심을 기울임. 최근 지방정부에 도입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육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에 기초해 지역사회의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이 시작되며 국내 최초로 서울시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이 인증 받음.
- 서울시 성북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예산 도입, 별도의 아동청소년친화팀을 구성해 사업 중심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등 부선간 협력을 강조함.
- 전북 완주군은 새로 유입되는 젊은 층과 자녀를 위한 보육사업을 중심으로 전달체계 간 협조를 하다가 최근 유관부서를 한 팀에 구성하여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완성함.
-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육아지원관련 사업의 총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육아지원관련 사업의 관리체계 구축이 제안됨.

*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의 「출산율 및 일·가정양립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의 연구수행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함.

1 문제제기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목표로 출생·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국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대한민국정부, 2016:75-58)을 위해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 분위기 확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아동보호체계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갖추는 등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생태적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짐.
- 지역사회는 지리적 영역(생활권역, 물리적 자원), 사회적 상호작용(사회관계), 공동의 연대감을 공통요소로 하여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연대감을 갖추고 있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됨(배은석, 2013:40).
-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공공인프라의 공급 및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육아를 위한 공동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개별 단위의 노력을 넘어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최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아동권리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 도입

가. 아동친화도시의 정의

- UN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며, 이러한 아동권리를 충족시키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일컫음.
- 아동친화도시는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비스 마련,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마련된 도시로 정의됨(홍승애·이재연, 2013)
-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로서 아동친화도시를 정의함.

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인증 사업

-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사회들이 아동친화 수준을 진단하도록 자가 평가와 평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유니세프의 이러한 노력은 여러 지자체에서 실천됨.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일·놀이·여가 영역(9개), 지역사회 유대 관계 영역(10개), 안전과 보호 영역(15개), 건강과 사회 서비스 영역(12개), 교육 자원 영역(28개), 주거환경 영역(10개) 총 6개영역 84개 지표를 통해 자가 평가함.
 - 정부의 행정조직과 조례, 아동친화예산,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옹호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	아동의 참여
2	아동 친화적 법체계
3	아동권리 전략
4	아동권리 전담기구
5	아동영향평가
6	아동관련예산 확보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8	아동권리홍보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주: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goal/> (인출일: 2017년 6월 22일)

[그림 1]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 아동친화도시는 특히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환경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책임이 강조되며, 지방정부 외에도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단체, 국내외 커뮤니티 기관, 학술단체 등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강조됨(박금식, 2014).

3 아동친화도시의 적용 사례

- 2017년 6월 현재 국내 아동친화도시로는 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군, 부산시 금정구, 전북 군산시, 서울 도봉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경기도 오산시 총 8개 도시가 인증 받았으며, 42개 시군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임(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가. 서울시 성북구

-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입함.
 - 2011년 10월에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아동친화도시 정착의 일환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육아환경 조성과 성북형 아동돌봄체계의 확대 추진.
 -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돌봄서비스의 기능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된 배경임.
 - 2011년 10월에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어린이친화 TF”를 신설.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서울 성북구, 2015a:7).
- 아동친화예산 현황
 -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은 종합하여 별도 편성·운영되며, 일반 예산 중 아동친화예산 비율은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4년 기준으로 약 28%를 차지함.

(표 1)서울시 성북구 아동친화예산 현황(2014)

정책과제	총계
어린이·청소년 참여 지원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운영 등)	19,651
아동의 권리와 함께하는 성북 (아동영향평가 시행 등)	164
모두가 신뢰하는 육아환경 조성 (민간 자원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동별 1개소 이상 확충 등)	15,491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총계
성북형 아동 돌봄체계 확대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1,578
성북형 혁신교육도시 프로젝트 (혁신교육 민관학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및 특색사업 추진 등)	11,083
친환경 급식의 생활화 (어린이급식시설 위생 클린, 영양 업)	17,349
자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세상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1,805
총 소요 예산	67,121

자료: 서울 성북구(2015b).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p.27-28.

〈표 2〉서울시 성북구 아동친화예산 추이(2012-2014)

단위: 백만원, (%)

회계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일반회계	343,513	(100)	379,591	(100)	418,456	(100)
아동친화예산	73,265	(21.32)	100,923	(26.58)	116,425	(2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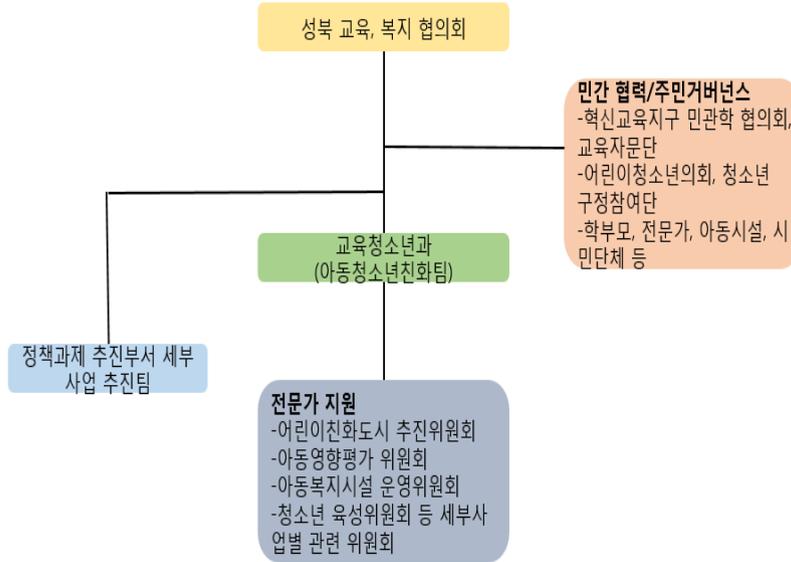
자료: 서울 성북구(2015b).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12.

□ 서울시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성과¹⁾

-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성과는 행정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한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이며,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인력 배치 등을 들 수 있음.
- 아동인식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예산서를 매년 발간함. 사업의 시작 전이나 조례 개정 혹은 제정 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동권리에 기초한 지역사회 및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임.
- 서울시 성북구는 동별로 아동복지플래너를 두고,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지역에서 발견되는 학대나 방임 아동들을 적합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실행.
- 이와 별도로 성북구는 교육청소년과에 아동청소년친화팀을 별도로 두고 정책과제별로 관련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큼.

1)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담당공무원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 이와 더불어 민간 협력/주민거버넌스와 전문가들의 지원을 네트워킹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임.



자료: 서울 성북구(2015b). 내부자료. 2015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29.

[그림 2]서울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나. 전북 완주군

- 전북 내 타 지역에 비해 유입 인구비율이 높음에 따라 영유아 비율이 높아 기존 사업 유지·발전의 취지로 도입
 - 완주군은 보육 등 아동관련 사업에 주력해왔으며, 이들 사업의 체계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 타 군지역에 비해 전주와의 접근성 등 인프라 공급수준이 높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임.
 - 2015년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 실시하고 관련 법체계²⁾ 마련함(전북 완주군, 2015a:3).

2) 2015년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상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

□ 아동친화예산

-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분야별로 분류하여 127개 사업 549억(생존 106, 보호 43, 발달 399, 참여 1)으로 파악함.
- 2015년 기준으로 아동권리 영역별 예산액 및 해당 비율은 <표 3>과 같음.

<표 3>전북 완주군 아동권리 분야별 예산액(2015)

단위: 백만원

권리	사업명	예산액	비율
생존권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	10,560	19.2%
보호권	지역아동센터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4,272	7.8%
발달권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장난감도서관 운영	39,896	72.7%
참여권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137	0.3%
	합계	54,865	100%

자료: 전북 완주군(2015b), 내부자료. 2015년 아동친화 예산서(안), pp.35-41.

□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성과³⁾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행정공무원의 협업과 협조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부서 개편도 이루어짐.
- 군지역의 경우 기관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내부 인력의 제한 등으로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애로점이 존재함.
- 전북 완주군은 사업을 중심으로 전달체계간 협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부서 간 협조를 위해 나뉘어져 있던 보육, 교육, 아동청소년팀을 같은 부서로 배치하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

4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시사점

가. 육아지원관련 사업의 총괄 조직 마련

- 아동권리별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그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업과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들을 발견하게 됨.

3)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사업 담당자의 면담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 지역 여건에 따라 성북구와 같이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육아지원관련 사업들이 총괄됨. 전북 완주군은 기존의 육아관련 사업들을 강화하면서 관련 행정인력들 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총괄 협력체계를 갖추.
 - 육아지원 관련 사업과 관련 예산들을 정리하고,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지역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신설·병합 사업들을 선정하고 예산 효율화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공공 인프라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프라 간 연계,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의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함.
- 사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공무원간의 협력과 관련 단체장들과의 협조가 중요함.
- 서울시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재원 및 인력규모의 여건에 따라 협력을 위한 조직체계는 양상이 다를 수 있음. 서울시 성북구는 기존 팀은 존치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사업에 따라 관련 팀들과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라면, 전북 완주군은 관련 부서를 한 팀으로 배치하여 인력 간의 협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구성임.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육아공동체를 조성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나. 지방정부의 육아지원환경 관리 체계 구축

- 지자체 사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아동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관리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함이 필요.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계획 실행에 따른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환류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예산서를 종합하여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관련 조례 마련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자체 별로 여건에 따라 육아지원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현황 파악과 적정 공급기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민의 욕구를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영유아 및 아동관련 예산서를 종합하여, 적정 공급 기준안이 포함된 차년도 육아지원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 육아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이상의 과정들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율 및 일·가정양립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박금식(2014).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필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 Brief, 20, 1-8.
- 박세경(2016).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62-72.
- 배은석(201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공급력에 따른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
- 서울 성북구(2015b).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 전북 완주군(2015a). 내부자료.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 전북 완주군(2015b). 내부자료. 2015년 아동친화 예산서(안).
- 홍승애·이재연(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4(4), 83-104.

이슈페이퍼 2017-06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위한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강 은 진 | 연구위원

1. 문제제기
2. 직업행복감의 정의 및 영역
3. 하루일과 별 교사들의 정서변화
4.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위한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위한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강은진 | 연구위원

요약

- 교육·보육의 질을 위해 교사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은 매우 중요함. 교사들의 행복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직업인으로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직업의 질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직업인으로서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직업행복감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정서영역을 살펴본 결과 최근 2주간 교사들의 느낀 감정에서 기관과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22명의 교사들의 일화재구성기록에서도 하루일과에 따른 정서가 나타나는데, 주로 일과별 업무와 관련됨.
- 이에 따라 교사들의 직업행복감 증진을 위해, 일과에 따른 인력지원 방안 제시와 교사들의 정서역량 증진을 위한 경력별 정서역량 강화 지원 및 다양한 휴게시간 확보 등의 정책 방안이 제안됨.
- 교사를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상시운영과 접근성을 제고할 것에 대해 제안함.

1 문제제기

- 교육·보육의 질은 교사의 신념이나 기술, 전문성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정신과 신체건강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경력교사에 비해 초임교사(정혜욱·이옥형, 2011), 영아반교사에 비해 유아반교사(민혜영·윤미정, 2011)의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남.

* 본 원고는 강은진·김정숙·김승진(2016)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교사의 직업행복감 증진 방안 연구의 일부자료를 재구성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은 교사들이 개인의 감정을 기관의 가치와 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절하는 정서노동과 관련됨.
- 정서노동은 개인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 이해, 조절, 활용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스트레스 관리나 적응과 관련된 자원으로 동일한 환경에서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조혜진·박효진, 2012).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무소진을 예방하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정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최근 긍정심리학,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행복감, 직업만족감, 교직열정, 몰입 등 교사의 긍정 정서에 대한 접근이 시도됨.
- ▣ 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탐색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직업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교사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들도 관련변인으로 직무관련, 조직 및 대인관계,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 구분됨(표 1 참조).

〈표 1〉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 관련 변인

직무 관련 변인	조직 및 대인관계 변인	개인의 심리적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진 • 정서노동 • 교사효능감 • 교수몰입 • 직무만족도 • 전문성 • 직무스트레스 • 교직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기관풍토) • 기관 내 사회적지지 •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 조직커뮤니케이션 • 대인관계 스트레스 • 유아-교사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효능감 • 자기결정성 • 자아(회복)탄력성 • 정서지능 • 자아존중감 • 윤리의식

주: 강은진 외(2016)의 pp.36-37 표 재인용.

- 특히, 본고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정서 부분에 초점을 두어 교사들의 정서적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음.

2 교사 직업행복감의 정의 및 영역

가. 직업으로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 전 세계적으로 직장에서의 행복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함.
 - OECD, 유럽고용위원회(Employment Committee: EMC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유럽연합(EU) 산하 통계 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 등은 국가의 노동시장의 안정성,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근로자의 행복, 직장에서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직업의 질(job quality) 측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직업인으로서 바라보고, 교사라는 직업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제고함.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리뷰를 통해 교사로서의 직업행복감을 정의하고, 4개 영역으로 구성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교사직을 수행하는 데 외부로부터 주어진 직업 환경의 질’과 ‘교사직 수행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로 정의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영역은 4개 차원, 1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즉,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 수행에 따른 관계 영역, 근무환경 영역, 정서 영역과, 직업의식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1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함.

〈표 2〉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영역

영역	관계	근무환경	정서	직업의식
하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교사관계 • 원장관계 • 부모관계 • 영유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 근로강도 • 업무특성 • 일과 개인 삶의 조화 • 소득 • 물리적, 행정적 지원 • 안전한 업무환경 • 교사교육 • 단체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정서 • 부정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의미 • 직업에 대한 태도 • 직업인식

3 하루일과 별 교사들의 정서변화

가. 최근 2주간 교사들이 느낀 정서

- 1,543명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2주간 느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평가하게 함.
 - 정서 영역 중에서 최근 2주간 직장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의 전체 총 평균은 3.5점임. 문항별로 살펴보면, ‘즐거움’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점으로, 어린이집 영아반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행복한’ 감정은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경력으로는 2년 미만에서 높았으며, ‘편안한’과 ‘뿌듯한’, ‘활기찬’, ‘기쁜’, ‘만족스러운’ 문항 모두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점수가 높음.

〈표 3〉최근 2주간 직장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

단위: 점

구분	즐거움		행복한		편안한		뿌듯한		활기찬		기쁜		만족스러운		총 평균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6	0.9	3.5	0.9	3.3	1.0	3.6	0.9	3.5	0.9	3.5	0.9	3.4	0.9	3.5	0.8
기관 유형																
유치원	3.5	0.9	3.4	1.0	3.2	1.0	3.5	0.9	3.4	1.0	3.4	0.9	3.3	0.9	3.4	0.8
어린이집	3.6	0.9	3.5	0.9	3.3	1.0	3.6	0.9	3.5	0.9	3.5	0.9	3.4	0.9	3.5	0.8
t/F	-3.5*		-2.6		-3.0		-2.9		-2.1*		-1.4		-1.5		-2.8	
담당 연령 반																
유치원 유아반	3.5 ^a	0.9	3.4 ^a	1.0	3.2 ^a	1.0	3.5 ^a	0.9	3.4 ^a	1.0	3.4 ^a	0.9	3.3 ^a	0.9	3.4 ^a	0.8
어린이집 유아반	3.5 ^a	0.8	3.4 ^a	0.9	3.2 ^a	1.0	3.6 ^a	0.9	3.5 ^a	0.9	3.4 ^a	0.8	3.3 ^a	0.9	3.4 ^a	0.8
어린이집 영아반	3.7 ^b	0.9	3.6 ^b	0.9	3.5 ^b	1.0	3.7 ^b	0.9	3.6 ^b	0.9	3.6 ^b	0.9	3.5 ^b	0.9	3.6 ^b	0.8
t/F	16.1***		13.8***		18.1***		8.6***		5.7***		7.8***		4.8***		13.0***	
사후검정(Scheffe)	a<b															
교사경력																
2년 미만	3.7	0.9	3.6	0.9	3.2	1.2	3.7	0.9	3.7	1.0	3.6	0.9	3.5	1.0	3.6	0.8
2-5년 미만	3.6	0.9	3.4	1.0	3.2	1.0	3.6	0.9	3.5	0.9	3.5	0.9	3.3	1.0	3.4	.8
5-10년 미만	3.5	0.9	3.4	1.0	3.2	1.0	3.6	0.9	3.5	1.0	3.4	0.9	3.3	0.9	3.4	.8
10년 이상	3.6	0.9	3.5	0.9	3.4	1.0	3.6	0.9	3.5	0.9	3.5	0.9	3.5	0.9	3.5	0.8
t/F	0.9		2.9		1.9		1.5		2.4		2.4		2.8		1.9	

* $p < .05$. *** $p < .001$.

- 최근 2주간 직장에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총 평균 2.7점으로 낮은 편임. ‘불안한’ 감정은 전체 평균은 2.6점으로, 기관유형으로는 유치원, 담당 연령 반으로는 유치원 유아반이 점수가 높게 나타남. ‘짜증나는’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8점이었는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기관유형으로는 유치원, 담당 연령 반으로는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경력으로는 2년 미만이 높은 점수를 보임. ‘우울한’ 문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영아반 점수가 가장 높음. ‘피곤한’, ‘괴로운’, ‘화나는’, ‘걱정스러운’ 문항 모두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기관유형으로는 유치원, 담당 연령 반으로는 유치원 유아반, 교사경력으로는 2년 미만에서 부정적 감정이 가장 높음.

〈표 4〉최근 2주간 직장에서 느낀 부정적인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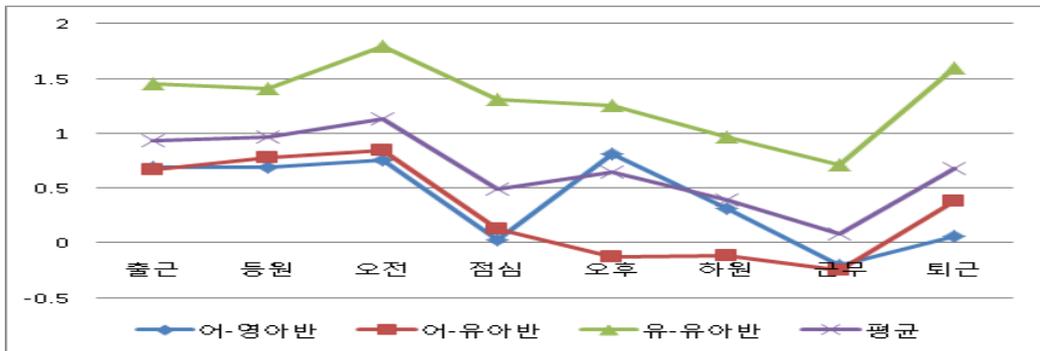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불안한		짜증나는		우울한		피곤한		괴로운		화나는		걱정스러운		총 평균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6	1.0	2.8	1.0	2.4	1.0	3.5	1.1	2.3	1.0	2.6	1.1	2.8	1.1	2.7	0.9
기관 유형																
유치원	2.8	1.0	3.0	1.0	2.6	1.0	3.7	1.0	2.5	1.1	2.7	1.0	3.1	1.0	2.9	0.8
어린이집	2.5	1.1	2.7	1.0	2.3	1.0	3.4	1.1	2.2	1.0	2.5	1.1	2.7	1.1	2.6	0.9
t/F	5.5**		4.5**		4.8		5.0**		5.0*		4.6**		5.8***		6.0	
담당 연령 반																
유치원 유아반	2.8 ^a	1.0	3.0 ^a	1.0	2.6 ^a	1.0	3.7 ^a	1.0	2.5 ^a	1.1	2.7 ^a	1.0	3.1 ^a	1.0	2.9 ^a	0.8
어린이집 유아반	2.6 ^b	1.1	2.9 ^a	1.0	2.5 ^a	1.1	3.6 ^a	1.0	2.3 ^a	1.0	2.6 ^b	1.1	2.9 ^a	1.1	2.8 ^b	0.9
어린이집 영아반	2.3 ^c	1.0	2.6 ^b	1.0	2.2 ^b	1.0	3.3 ^b	1.1	2.1 ^b	1.0	2.4 ^c	1.0	2.6 ^b	1.2	2.5 ^c	0.9
t/F	22.3***		20.1***		20.3***		24.3***		19.8***		19.5***		25.4***		31.9***	
사후검정(Scheffe)	a>b,c b>c		a>b		a>b		a>b		a>b		a>b,c b>c		a>b		a>b,c b>c	
교사경력																
2년 미만	2.7	1.2	3.0 ^a	1.2	2.5	1.2	3.7 ^a	1.1	2.3	1.2	2.8 ^a	1.2	3.0 ^a	1.2	2.8 ^a	1.0
2-5년 미만	2.6	1.0	2.8	1.1	2.5	1.0	3.6	1.0	2.3	1.1	2.6	1.1	2.9	1.1	2.8	0.9
5-10년 미만	2.5	1.1	2.9 ^a	1.0	2.4	1.0	3.6	1.1	2.3	1.0	2.6	1.1	2.8	1.1	2.7	0.9
10년 이상	2.5	1.0	2.6 ^b	1.0	2.4	1.0	3.4 ^b	1.0	2.2	1.0	2.5 ^b	1.0	2.7 ^b	1.1	2.6 ^b	0.8
t/F	2.3		5.5**		1.4		5.0**		0.5		4.1**		4.0**		1.9**	
사후검정(Scheffe)			a>b				a>b				a>b		a>b		a>b	

* $p < .05$. ** $p < .01$. *** $p < .001$.

나. 하루일과별 교사들이 느낀 정서

- 별도로 22명의 유치원(8명)과 어린이집 교사(14명)에게 총 10회(주 1~2회)동안 일화재구성 기록지¹⁾를 통해 하루 4개의 행복감 사례를 작성하도록 함.
 - 일과에 따른 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오전 활동시간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등원, 출근시간, 오후 활동 시간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오후 근무시간은 가장 낮은 행복감을 나타냈으며, 점심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의 행복감도 상대적으로 낮음.
 - 어린이집 영아반 담당교사들은 점심시간 대에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으나, 오후 활동에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고, 역시 근무시간에 행복 정도가 가장 낮게 평가됨.



주: 어린이집 영아반(어·영아반), 어린이집 유아반(어·유아반), 유치원 유아반(유·유아반)

[그림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2인의 하루일과 행복 그래프

- 일화기록지에 기록된 사례를 하루일과에 따라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각 시간대별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교차함을 알 수 있음.
 - 오전 등원시간 전후를 통해 교사들이 영유아 맞이 외에 급작스러운 부모상담, 활동준비, 차량지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음.
 - 보육 및 교육활동 운영 시간에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에 몰입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기쁨도 느끼고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안전사고로 인한 부적 감정도 경험하고 있었음.

1) 일상재구성법이란 응답자가 일상생활 중 하루 동안 일어난 특정한 일들, 즉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고, 그 순간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는지에 대한 일상의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각 시점에서 느낀 주관적인 사고나 정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운영과 교사 역할 측면에서 직업행복감에 관한 주요 일화(episode) 4개를 기록지에 작성하고, 일화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구조화된 간단한 체크리스트에 표시하였음.

- 급식 및 낮잠 시간은 아이들과의 소소한 대화로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식사지도와 식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도 토로함.
- 마지막으로 아이들 귀가 후 밀린 업무와 회의로 인한 부정적 정서도 관찰됨.

〈표 5〉 하루일과별 교사들의 긍정 및 부정 정서

일과	긍정정서	부정적 정서
영유아의 비원전 후	교사들은 오전 당직 때 해야 할 일을 일찍 끝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편안함과 여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느낌	유아들이 등원하기 이전에 교사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피곤, 짜증, 분노를 경험
	준비가 잘 되어 잡무에서 여유로운 날, 유아들과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날은 즐거운 기분에서 하루를 시작	수업 준비로 분주한 아침시간, 응원하는 부모님의 개별적 전달사항과 지나치게 긴 상담에 화가 남
	오전당직으로 일찍 출근한 교사를 위해 간단한 아침식사를 준비해온 원장의 배려나 동료의 칭찬처럼 아침부터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이 있는 날은 기분이 좋음	승차지도에 걸리는 시간도 노선에 따라 다양하지만 교사들은 자기 반이 아닌 다른 반 영유아들을 지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반가운 얼굴로 교사에게 관심을 보이고 말과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유아들의 행복한 기분은 교사들에게 전달	부모나 양육자들에게서 영아를 인계 받아야 하는 교사들은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영아들을 달래서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피곤과 걱정, 우울함, 불안감
	부모님이 교사에게 신뢰감을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 주면 교사는 행복	한 명이 울기 시작하고 쉽게 진정되지 않는데 다른 아이들까지 돌보아야 할 때 부정적 감정 경험
보육 및 교육 운영 시간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해 준 교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유아들이 즐겁게 놀이 활동에 몰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교사들이 만족감과 행복	유아들이 갈등상황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와 유아들이 다치는 안전사고를 겪을 때
	유아들의 놀이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놀면서 활기와 즐거움	
급식 및 낮잠 시간	교사가 지도한 식사방법, 식사 태도를 기억하고 이를 따라하는 유아들의 모습에서 교육의 효과를 보며 긍정적 감정	유아들을 지도하면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급하게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기
	영아들과 잠자기 직전에 조용히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	기질에 따라 안아주거나 달래주어도 금방 안정되지 않는 영아의 경우 교사는 더욱 지치고 피로감
	하루를 잘 마무리 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영유아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	부모님이 늦게까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혼자 남아 있는 아이를 보살피는 경우에는 걱정, 불안, 짜증, 피곤함
오 후 근 무	교실환경 구성 시 유아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교사들은 보람을 느낌	복도 정비까지 하기를 요구받아 육체적인 피곤함에 짜증과 우울감, 걱정
	회의시간이 교사들 간에 아이디어를 나누고 전반적인 수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뿌듯함과 즐거움	하루일과를 마치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길어질 경우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피곤함과 짜증 회의 중 교사들의 의견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관장의 일방적인 지시는 교사들에게 거부감
	퇴근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원장님이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주었을 때 교사는 더욱 기운이 나고 감사함	해야 할 일이 밀려있을 때 교사들은 야근을 해야만 하는데 특히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피곤함과 짜증

4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위한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가. 하루일과 별 교사 지원인력의 투입 방안 마련 필요

- 하루일과에 따라 교사들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력이 지원되지 않거나 과도한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분노, 피로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음.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조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들의 업무 감소로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원인력의 역할과 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겠음.
- 하루일과에 따라 담임교사의 주요 업무와 보조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로 구분될 수 있음.

〈표 6〉하루일과에 따른 담임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분

하루일과	담임교사의 주 업무	보조인력의 업무
등원 전 후	영유아 맞이하기 수업 및 보육활동 준비	차량지도
보육 및 교육활동 시간	수업 및 보육 실행	안전사고 예방
급식지도	-	배식 및 급간식 지도
귀가 후	일지 작성 및 평가 수업 및 보육 활동 계획 및 준비 교사 회의 부모 상담	청소 및 환경미화

- 오전 등원시간 전후에는 교사들이 영유아 맞이와 하루 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차량지도 지원 인력이 별도 배치될 필요가 있음.
- 보육 및 교육활동 운영 시간에는 보조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사의 수업 및 보육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급식지도를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제와 같은 부모참여 활성화가 제시됨이 필요함.
- 귀가 후 담당 반뿐만 아니라 담당 구역의 청소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소원 등의 배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업무 감소와 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인력 투입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나. 교사들의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 경력별 교사의 정서역량 개발 기회 제공

-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긍정감정 점수가 어린이집 유아반이나 유치원 유아반 교사보다 높음. 특히 2년 미만의 유치원 유아반 교사들의 부정 정서가 다른 교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임교사들의 “현실충격(reality shock)”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초임교사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체계화된 교사교육과정 및 다양한 연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선임교사들과 초임교사의 모임 활성화를 통해 현실충격을 극복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김현진, 2012:168).

■ 교사를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접근성 제고

- 초중고 교사의 경우 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아져 교원 치유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16.8.4. 대통령령 제27418호]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 자문과 전문인력,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 것을 규정함.
- 현재 4개 지역에만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되었고, 유치원교사를 위한 상담 치유프로그램은 소수임.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이나 개별 상담 사업도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센터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 다양한 휴게시간 확보를 통한 부적 정서 감소 방안 마련

- 교사들이 피로를 느끼고, 부적 감정이 나타나는 오후시간 대 인력지원을 통한 휴식제공 필요. 하루, 혹은 반나절만이라도 은행업무나 병원방문, 관공서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배려 필요함.
- 점심식사 시간 지원인력 배치 및 부모 자원봉사자 활용을 제안함.

참 고 문 헌

- 강은진·김정숙·김승진(2016). 유치원 및 어린이집교사의 직업행복감 증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현진(2012).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현실충격(Reality Shock)과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151-173.
- 민혜영·윤미정(2011).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47-168.
- 정혜옥·이옥형(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3.
- 조혜진·박효진(2012). 유아교사의 정서조절책략과 직무소진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231-148.

이슈페이퍼 2017-07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 |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누리과정 실행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3. 누리과정 실행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의 필요성 및 개선 요구
4. 누리과정 실행 원내 모니터링 지원 방안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 무 경 | 선임연구위원

요 약

- 누리과정을 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누리과정을 커리큘럼으로 인식하기보다 비용지원의 측면만 부각됨으로 인하여 정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사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을 원내 모니터링으로 가장 많이 경험(87.1%)하였으며, 더불어 가장 선호(21.7%)하는 원내 모니터링 유형임. 어린이집 교사는 ‘일일교육 계획안 검토(65.7%)’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강사 초빙 원내 집단연수(22.4%)’를 가장 선호함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모두가 받기를 희망하는 원내 모니터링 부문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응답한 교사들은 원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스스로의 동기부여(45.6%),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지원(18.9%),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16.2%), 시도교육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행정기관의 지원(10.9%) 등을 제시함.
-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지원 방안으로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의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 기관유형별, 설립유형별, 교사경력별 원내 모니터링 유형화, 누리과정 운영 부문별 효과적인 원내 모니터링 방법 적용, 교사 내재적 동기유발 및 인센티브 제공이 제안됨.

* 본 이슈페이퍼는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인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 모니터링을 중심으로」(문무경, 이규림, 김희수)를 토대로 작성됨.

1 서론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한 모든 3-5세 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한 지 5년이 경과함. 그러나 누리과정을 커리큘럼으로 인식하기보다 비용지원의 측면만 부각됨으로 인하여 정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대상의 국가수준 교육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시하고 있음(김윤희·황해익, 2014:284). 그러나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실행될 때 개별교사 및 단위기관의 역량에 따라 실행수준의 질적 편차가 생기게 됨. 즉, 교사는 단순히 교육과정의 '실행가'가 아니며 교육의 실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개발하는 '설계자'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함(소경희, 2003:90).
- 한편,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의 질적 수준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임.

 -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교육보육과정 계획과 운영을 평가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구조적, 정량적인 질에 편중되어 실시되므로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의 질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은 내용 및 방법상으로 제한적임.
-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장학, 컨설팅, 멘토링, 연수 등 여러 방식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자율적인 방식의 모니터링이 선호됨(문무경 외, 2016).

 - 이에, 시도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원외 모니터링이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내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누리과정 실행의 질 향상을 위한 원내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설립유형별, 지역규모별, 경력별로 교사 총 847명(유치원 교사 434명, 어린이집 교사 413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실행 수준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경험과 선호유형, 개선 및 지원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누리과정 실행 원내모니터링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가. 원내 모니터링의 유형

- 유치원 교사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을 원내 모니터링으로 가장 많이 경험(87.1%)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일일교육 계획안 검토(65.7%)’을 가장 많이 경험함.
- 어린이집 교사의 원내 모니터링 참여 비율(평균 38%)은 유치원 교사(평균 53%)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유치원에서의 원내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

〈표 1〉 누리과정 원내 모니터링 참여 여부 및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명)
유치원 교사			
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34.1	65.9	100.0 (434)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87.1	12.9	100.0 (434)
원내 멘토링	44.0	56.0	100.0 (434)
동료 또는 본인 수업동영상 시청 및 협의	56.9	43.1	100.0 (434)
일일교육 계획안 검토	65.7	34.3	100.0 (434)
1인 1주제 연구	31.6	68.4	100.0 (434)
강사초빙 원내 집단연수	52.1	47.9	100.0 (434)
어린이집 교사			
원내 동아리 및 소모임	30.1	69.9	100.0 (413)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46.2	53.8	100.0 (413)
원내 멘토링	34.9	65.1	100.0 (413)
동료 또는 본인 수업동영상 시청 및 협의	27.4	72.6	100.0 (413)
보육일지 검토	68.5	31.5	100.0 (413)
1인 1주제 연구	24.7	75.3	100.0 (413)
강사초빙 원내 집단연수	37.8	62.2	100.0 (413)

출처: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74.

- 가장 선호하는 원내 모니터링 유형으로 유치원 교사는 ‘수업 공개를 통한 동료장학(21.5%)’을, 어린이집 교사는 ‘강사 초빙 원내 집단연수(22.4%)’를 응답함.
- 초등병설 및 단설유치원 교사 모두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35.6%, 25.5%)을, 사립유치원 교사는 일일교육계획안 검토(27.4%)를 가장 선호함. 공립단설유치원 교사는 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21.2%)를, 사립유치원 교사는 원내 멘토링(19.0%)을 선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4년 미만 경력의 저경력교사는 원내 멘토링(22.1%)과 일일교육계획안 검토(21.7%)를 선호하고 5년 이상의 경력교사는 수업 공개를 통한 동료장학(28.1%)을 선호함.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설립유형별, 경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2〉 선호하는 누리과정 원내 모니터링 유형

단위: %(명)

구분	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원내 멘토링	동료/본인 수업동영상 시청 및 협의	일일 교육 계획안	1인 1주제 연구	강사초빙 원내 집단연수	계(수)
유치원 교사	12.2	21.7	16.4	8.8	21.0	2.5	17.5	100.0(434)
설립 유형 구분								
공립병설유치원	6.7	35.6	8.9	13.3	15.6	4.4	15.6	100.0(45)
공립단설유치원	21.2	25.5	13.9	9.5	10.9	2.9	16.1	100.0(137)
사립유치원	8.3	17.1	19.0	7.5	27.4	2.0	18.7	100.0(252)
$\chi^2(df)$	39.03(12)***							
지역 구분								
대도시	8.2	20.5	16.4	8.8	18.7	2.3	25.1	100.0(171)
중소도시	15.0	18.6	17.4	10.2	28.7	1.8	8.4	100.0(167)
읍면지역	14.6	29.2	14.6	6.3	11.5	4.2	19.8	100.0(96)
$\chi^2(df)$	33.15(12)***							
경력								
0~4년	11.1	16.2	22.1	10.6	21.7	1.3	17.0	100.0(235)
5년 이상	13.6	28.1	9.5	6.5	20.1	4.0	18.1	100.0(199)
$\chi^2(df)$	23.58(6)***							
구분	원내 동아리 및 소모임	수업 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원내 멘토링	우수수업 동영상 시청 및 협의	보육 일지 검토	1인 1주제 연구	강사 초빙 원내 기타 집단연수	계(수)
어린이집 교사	11.1	10.7	11.6	19.8	20.6	3.1	22.4	100.0(413)
기관 구분								
국공립	13.2	11.6	10.9	15.9	15.1	3.9	28.7	100.0(129)
민간어린이집	12.6	11.0	11.0	20.4	20.9	3.1	20.4	100.0(191)
직장·법인어린이집	5.4	8.6	14.0	23.7	28.0	2.2	17.2	100.0(93)
$\chi^2(df)$	11.68(8)							
지역 구분								
대도시	12.9	8.2	9.4	21.1	18.7	4.7	24.6	100.0(171)
중소도시	13.1	14.5	13.1	20.0	20.0	2.1	16.6	100.0(145)
읍면지역	5.2	9.3	13.4	17.5	24.7	2.1	26.8	100.0(97)
$\chi^2(df)$	17.12(16)							

출처: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80.

*** $p < .001$.

나. 효과적인 모니터링 유형

- 효과적인 모니터링 유형으로, 유치원 교사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원내 멘토링, 일일 교육계획안 검토의 원내 모니터링 3개 유형을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동일함.
- 수업계획안을 재구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모니터링 유형으로 유치원 교사는 일일교육계획안 검토(22.8%)와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19.6%)을,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일지 검토(26.4%)와 원내 동아리 및 소모임(15.5%)을 응답함.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원내 멘토링이 유아 개별화지도,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생활주제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성에 가장 효과적이며,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가장 도움이 된 유형으로 유치원 교사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24.0%)을, 어린이집 교사는 원내 멘토링(23.7%)을 가장 많이 선택함.

〈표 3〉 효과적인 모니터링 유형

단위: %(명)

구분	원내 모니터링(유치원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원내 멘토링	동료/본인 수업 동영상 시청 및 협의	일일 교육 계획안 검토	1인 1주제 연구	강사초빙 원내 집단 연수
수업계획안의 재구성	16.1	19.6	17.1	2.5	22.8	1.6	1.8
5개 영역별 지도방법	8.1	11.8	16.4	9.9	10.8	0.7	6.0
개별화 지도	7.8	11.5	29.7	7.1	6.2	4.1	4.1
계획된 수업시간의 적절한 안배 및 운영	7.1	18.7	13.6	4.6	33.4	0.9	2.5
생활주제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성	11.8	13.6	18.0	3.7	8.3	4.4	1.2
유아와의 상호작용	6.5	24.0	18.0	7.4	3.7	3.0	4.1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도	9.7	10.4	28.3	4.4	0.7	2.8	7.1
바깥놀이 활동	9.4	9.9	12.7	6.7	15.2	2.5	5.1
활동자료 준비 및 활용	11.3	12.4	12.7	7.1	16.4	3.7	2.5
활동 평가의 방법과 자기 반성적 사고	9.0	20.3	12.7	4.4	18.0	5.5	2.8
다음 수업에의 반영 및 환류	6.2	18.7	14.7	3.5	21.4	1.8	2.3
구분	원내 모니터링 (어린이집 교사)						
	원내 동아리 및 소모임	수업 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원내 멘토링	우수수업 동영상 시청 및 협의	보육 일지 검토	1인 1주제 연구	강사초빙 원내 집단 연수
수업계획안의 재구성	15.5	9.0	15.0	4.1	26.4	2.4	3.4
5개 영역별 지도방법	6.5	7.7	11.6	8.0	9.2	3.1	6.1

구분	원내 모니터링 (어린이집 교사)						
	원내 동아리 및 소모임	수업 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원내 멘토링	우수수업 동영상 시청 및 협의	보육 일지 검토	1인 1주제 연구	강사초빙 원내 집단연수
개별화 지도	12.1	10.2	24.9	5.8	9.7	4.6	2.7
계획된 수업시간의 적절한 안배 및 운영	10.4	8.7	15.3	7.0	27.1	2.9	2.4
생활주제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성	12.1	12.6	16.0	9.7	7.5	1.9	2.2
유아와의 상호작용	7.5	10.2	23.7	9.9	4.6	1.5	6.3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도	10.4	5.1	26.2	7.0	5.1	4.4	7.5
바깥놀이 활동	11.1	8.5	17.3	11.1	11.9	4.1	3.6
활동자료 준비 및 활용	11.4	9.0	19.4	7.5	12.5	6.5	3.1
활동 평가의 방법과 자기 반성적 사고	12.3	10.4	14.5	2.7	28.3	4.4	2.4
다음 수업에의 반영 및 환류	12.6	7.5	11.1	6.1	28.1	2.7	2.7

주: 음영부분은 높게 응답된 모니터링 유형임.

출처: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84-85.

3 누리과정 실행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교사 요구

가.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의 필요성

- 유치원 교사의 57.9%와 어린이집 교사의 52.1%는 원내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원내 자율모니터링 활성화 필요성에 근소하게 더 높게 동의함(유치원 3.7점, 어린이집 3.6점)
 - 대도시(3.5점), 읍면지역(3.6점)보다 중소도시(3.8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활성화 필요성에 더 동의함.

〈표 4〉원내 모니터링 활성화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전체	1.3	3.5	40.1	38.3	16.8	100.0 (847)	3.7
기관 구분							
유치원	1.2	4.6	36.4	37.6	20.3	100.0 (434)	3.7
어린이집	1.5	2.4	44.1	39.0	13.1	100.0 (413)	3.6
$\chi^2(df)/t$			12.76(4)*				2.0*

구분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 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조금 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설립유형 구분								
공립병설유치원	2.2	-	40.0	40.0	17.8	100.0 (45)	3.7	
공립단설유치원	1.5	5.1	32.1	34.3	27.0	100.0 (137)	3.8	
사립유치원	0.8	5.2	38.1	38.9	17.1	100.0 (252)	3.7	
국공립어린이집	3.1	2.3	48.8	34.9	10.9	100.0 (129)	3.5	
민간어린이집	1.0	2.6	44.5	36.1	15.7	100.0 (191)	3.6	
직장·법인어린이집	-	2.2	36.6	50.5	10.8	100.0 (93)	3.7	
지역규모								
대도시	1.2	4.1	44.7	38.9	11.1	100.0 (342)	3.5	
중소도시	1.6	3.2	35.3	35.3	24.7	100.0 (312)	3.8	
읍면지역	1.0	3.1	39.9	42.0	14.0	100.0 (193)	3.6	
$\chi^2(df)/F$							25.05(8)**	6.5**

출처: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89.
* $p < .05$, ** $p < .01$.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모두가 받기를 희망하는 원내 모니터링 부문으로 교수학습방법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유치원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42.9%)을,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38.0%)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모니터링 받기를 희망함.
 - 공립단설유치원(46.7%)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을, 민간어린이집(41.4%)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 받기를 희망함.
 - 이외 공/사립 기관 구분과, 경력,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5〉원내 모니터링 받기를 희망하는 부문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계획	누리과정 실행과정	교수학습 방법	유아와의 상호작용	누리과정 평가/ 반영	계(수)	
전체	10.7	16.2	36.6	32.0	4.5	100.0(847)	
기관 구분							
유치원	11.3	14.7	42.9	26.8	4.4	100.0(434)	
어린이집	10.2	17.7	29.5	38.0	4.6	100.0(413)	
$\chi^2(df)$							22.75(5)**
공/사 구분							
공립기관	10.0	16.1	40.8	27.0	6.1	100.0(311)	
사립기관	11.2	16.2	34.2	34.9	3.5	100.0(536)	
$\chi^2(df)$							10.85(5)

구분	누리과정 계획	누리과정 실행과정	교수학습 방법	유아와의 상호작용	누리과정 평가/ 반영	계(수)
설립유형 구분						
공립 병설유치원	6.7	15.6	44.4	24.4	8.9	100.0 (45)
공립 단설유치원	9.5	16.8	46.7	20.4	6.6	100.0(137)
사립유치원	13.1	13.5	41.3	29.8	2.4	100.0(252)
국공립어린이집	11.6	15.5	33.3	34.9	4.7	100.0(129)
민간어린이집	6.8	17.3	30.4	41.4	4.2	100.0(191)
직장·법인단체어린이집	15.1	21.5	22.6	35.5	5.4	100.0 (93)
$\chi^2(df)$			46.25(25)**			

주: 1)공립기관: 공립병설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2)사립기관: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직장·법인단체어린이집
 출처: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94.
 ** $p < .01$, *** $p < .001$.

나. 원내 모니터링의 제한점

- 교사들은 원내 모니터링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 모니터링으로 인한 업무 과중(47.9%)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시간확보의 어려움(33.5%)을 지적함.
 - 어린이집 교사(10.2%)는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미흡을 다소 높은 비율로 응답함.
 - 교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지역규모가 클수록 모니터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미흡을 가장 큰 제한점으로 지적함.

〈표 6〉원내 모니터링의 제한점

단위: %(명)

구분	교사의 낮은 참여율	원내 모니터링 운영체계의 부실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미흡	모니터링에 필요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부족	모니터링으 로 인한 업무과중	기타	문제점 없음	계(수)
전체	3.7	2.7	7.9	33.5	0.6	47.9	0.5	3.2	100.0 (847)
기관 구분									
유치원	3.5	2.5	5.8	33.2	0.5	49.8	0.7	4.1	100.0(434)
어린이집	3.9	2.9	10.2	33.9	0.7	46.0	0.2	2.2	100.0(413)
$\chi^2(df)$				9.80(7)					
설립 유형 구분									
공립 병설유치원	6.7	8.9	4.4	20.0	-	57.8	2.2	-	100.0 (45)
공립 단설유치원	1.5	-	5.8	36.5	-	52.6	-	3.6	100.0(137)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실태 및 지원 방안

구분	교사의 낮은 참여율	원내 모니터링 운영체계의 부실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미흡	모니터링에 필요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부족	모니터링으로 인한 업무과중	기타	문제점 없음	계(수)
사립유치원	4.0	2.8	6.0	33.7	0.8	46.8	0.8	5.2	100.0 (252)
국공립어린이집	4.7	1.6	9.3	29.5	-	52.7	-	2.3	100.0 (129)
민간어린이집	4.2	2.1	11.0	38.2	1.6	40.3	0.5	2.1	100.0 (191)
직장·법인단체어린이집	2.2	6.5	9.7	31.2	-	48.4	-	2.2	100.0 (93)
지역규모									
대도시	4.7	2.9	5.0	29.5	0.6	54.4	0.6	2.3	100.0 (342)
중소도시	3.5	1.3	9.0	37.2	0.6	43.9	0.6	3.8	100.0 (312)
읍면지역	2.1	4.7	11.4	34.7	0.5	43.0	-	3.6	100.0 (193)

출처: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98.

다.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

-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하여 응답한 교사들은 교사 스스로의 동기부여(45.6%),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지원(18.9%),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16.2%), 시도교육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행정기관의 지원(10.9%) 순으로 요구함.
 - 한편, 중간관리자급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멘토링(3.8%)과 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 강화(1.9%)는 의외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유치원 교사는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지원(23.3%)이, 어린이집 교사는 행정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청 등)의 지원(13.1%), 인센티브 제공(18.6%)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음.
 - 공립단설유치원(32.8%)과 공립병설유치원(26.7%) 교사는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24.8%)은 인센티브를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요구함.
 -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행정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교육청 등)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인센티브 제공을 더 요구함.

〈표 7〉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 관련 요구

단위: %(명)

구분	교사 스스로의 동기부여	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 강화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지원	행정 기관의 지원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중간관리자급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멘토링	부모의 수업 참관 활성화	기타	계(수)
전체	45.6	1.9	18.9	10.9	16.2	3.8	0.7	2.1	100.0 (847)

구분	교사 스스로의 동기부여	임장의 교육과정 리더십 강화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지원	행정기관의 지원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중간관리자급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멘토링	부모의 수업 참관 활성화	기타	계(수)
기관 구분									
유치원	46.1	1.8	23.3	8.8	13.8	3.5	-	2.8	100.0(434)
어린이집	45.0	1.9	14.3	13.1	18.6	4.1	1.5	1.5	100.0(413)
공/사 구분									
공립기관	45.3	0.6	23.5	8.7	14.5	2.6	0.3	4.5	100.0(311)
사립기관	45.7	2.6	16.2	12.1	17.2	4.5	0.9	0.7	100.0(536)
$\chi^2(df)$				28.53(7)***					
설립 유형 구분									
공립 병설유치원	48.9	-	26.7	8.9	6.7	4.4	-	4.4	100.0(45)
공립 단설유치원	47.4	-	32.8	4.4	7.3	1.5	-	6.6	100.0(137)
사립유치원	44.8	3.2	17.5	11.1	18.7	4.4	-	0.4	100.0(252)
국공립어린이집	41.9	1.6	12.4	13.2	24.8	3.1	0.8	2.3	100.0(129)
민간어린이집	41.4	2.6	18.3	12.6	18.3	4.7	1.0	1.0	100.0(191)
직장·법인단체어린이집	57.0	1.1	8.6	14.0	10.8	4.3	3.2	1.1	100.0(93)
지역규모									
대도시	46.2	2.3	15.8	9.6	20.8	3.8	0.3	1.2	100.0(342)
중소도시	42.3	1.9	23.1	10.6	13.8	4.5	0.3	3.5	100.0(312)
읍면지역	49.7	1.0	17.6	13.5	11.9	2.6	2.1	1.6	100.0(193)
$\chi^2(df)$				29.17(14)**					

주: 1)공립기관: 공립병설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2)사립기관: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직장·법인단체어린이집

출처: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00-101.

** $p < .01$, *** $p < .001$.

□ 원내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선호 유형으로 유치원 교사는 인력지원(24.4%)을, 어린이집 교사는 물질적 보상(24.7%)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유급휴가(13.1%), 업무경감(12.9%), 연수기회 제공 및 비용 지원(12.4%), 사회적 인정(9.6%) 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교사는 인력지원(24.9%), 물질적 보상(21.4%), 업무경감(15.4%)순으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집교사는 물질적 보상(24.7%), 유급휴가(17.4%), 인력지원(17.2%) 순으로 응답하여, 기관별 교사가 선호하는 인센티브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남.

-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교사는 인력지원과 업무경감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물질적 보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유급휴가를, 직장 및 법인어린이집 교사는 인력지원과 연수기회 제공을 두 번째로 선호함.

〈표 8〉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선호 유형

단위: %(명)

구분	사회적 인정	물질적 보상	업무 경감	우수사례 도서를 발간을 통해 기록으로 남김	인력 지원	자신이 원하는 연수기회 제공 및 비용 지원	유급 휴가	평가에서 교육과정 영역 면제	별도 보상 필요 없음	계(수)
전체	9.6	23.0	12.9	1.1	20.9	12.4	13.1	6.0	1.1	100.0(847)
기관 구분										
유치원	8.8	21.4	15.4	1.4	24.9	12.7	9.0	5.3	1.2	100.0(434)
어린이집	10.4	24.7	10.2	0.7	17.2	12.1	17.4	6.3	1.0	100.0(413)
$\chi^2(df)$					26.22(9)**					
공/사 구분										
공립기관	6.8	14.5	18.6	1.3	25.7	14.1	10.3	6.8	1.3	100.0(311)
사립기관	11.2	28.0	9.5	0.9	18.1	11.4	14.7	5.2	0.9	100.0(536)
$\chi^2(df)$					46.81(9)***					
설립유형 구분										
공립 병설유치원	6.7	4.4	22.2	2.2	37.8	17.8	2.2	6.7	-	100.0(45)
공립 단설유치원	8.0	9.5	19.7	1.5	30.6	16.1	3.6	8.0	2.9	100.0(137)
사립유치원	9.5	31.0	11.9	1.2	19.4	9.9	13.1	3.6	0.4	100.0(252)
국공립어린이집	5.4	23.3	16.3	0.8	17.8	10.9	20.2	5.4	-	100.0(129)
민간어린이집	14.7	27.7	5.2	1.0	16.2	9.9	17.3	7.3	0.5	100.0(191)
직장·법인단체어린이집	8.6	20.4	11.8	-	18.3	18.3	14.0	5.4	3.2	100.0(93)

주: 1)공립기관: 공립병설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2)사립기관: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직장·법인단체어린이집

출처: 문우경·이규림·김학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05.

** $p < .05$, *** $p < .001$.

4 누리과정 실행 원내 모니터링 지원 방안

-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의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

-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하여 원내 모니터링에 참여한 비율이 15%p 정도 낮으므로 어린이집의 원내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업무과중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유치원에 비하여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어린이집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하여 원내 모니터링 우수사례 공유와 보급,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 지침 개발 및 보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내 모니터링의 노하우를 배우도록 함.
- 기관유형별, 설립유형별, 교사경력별 원내 모니터링 유형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선호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원내 모니터링의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각 기관의 교사들에게 더 적합한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유치원 교사에게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을, 어린이집 교사는 ‘강사초빙을 통한 원내 집단연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일일계획안 검토’는 공통적으로 제공함.
 - 저경력 교사에게는 원내 모니터링과 일일계획안 검토, 중고경력 교사에게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누리과정 운영 부문별 효과적인 원내 모니터링 방법 적용
- 응답한 교사들에 의하면, 유아-교사 상호작용에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이, 누리과정 5개 영역별 지도, 개별유아지도 및 환경구성은 ‘원내 멘토링’이, 수업계획안의 재구성의 경우는 ‘일일교육 계획안 및 보육일지 검토’가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원내 모니터링 방법임.
 - 누리과정 운영 부문별로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매치하여 적용하도록 함.
-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교사 내재적 동기유발 및 인센티브 제공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모두에게 스스로의 동기유발이 원내 모니터링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내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함.

- 또한 원내 모니터링으로 인한 교사 자신의 교수행동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의 변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교사 자신의 수업분석 및 기록, 동료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하여 실행가능함. 즉, 내재적인 동기를 강화하도록 함.
- 이외에도 동료교사간의 협력을 격려하고, 단위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인센티브(예: 물질적 보상, 유급휴가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김윤희·황해익(2014).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교육과정적 이해와 실행. 유아교육학논집, 18(3), 283-307.
-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소경희(2003).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과정연구, 21(4), 77-96.

이슈페이퍼 2017-08

유치원 방과후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윤 진 | 연구위원

1. 문제제기
2. 방과후 과정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
3.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
4. 방과후 과정 개선사항
5.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을 위한 정책제언

유치원 방과후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윤 진 | 연구위원

요 약

-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기점으로 방과후 과정비가 보편적으로 지원(사립유치원 월 7만원,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되면서 오후 돌봄이 불필요한 유아까지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거나 이 시간대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방과후 과정 이용 부모 중 68.2%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이 경우 79.3%가 추가비용을 내고 있으며 추가비용의 월평균 금액은 8만3천원 정도임.
-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은 전담인력이 대부분 담당하지만, 기본교육과정 담당 교사가 방과후 과정까지 맡는 경우도 41.8%로 적지 않음.
- 방과후 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담당 인력 채용, 방과후 과정 시간 준수, 이용 유아 급증 등을 꼽음.
- 방과후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과후 과정 시간의 다양화, 운영시간 개념의 재정립, 이용대상 기준 재검토, 안전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방과후 과정비의 효율적 투입 방안 모색,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확대,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업무 내용 명시, 방과후 과정의 다양한 인력 운영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시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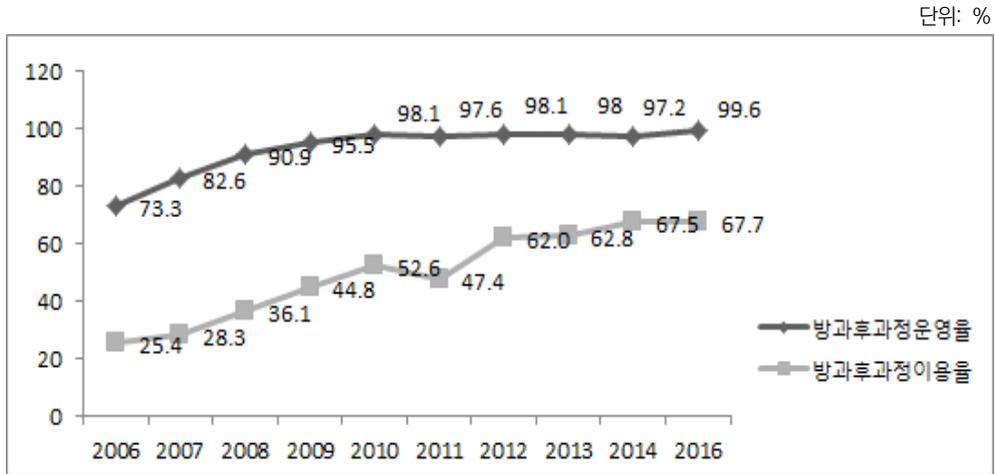
문제 제기

가.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률 급증

-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종전의 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제 운영에서 기본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변경됨.

* 본고는 김정숙·이윤진·조예운(2016)이 수행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 종일제는 취업모의 자녀 돌봄을 위해 주로 운영되었다면, 방과후 과정은 모든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 돌봄 기능을 모두 포괄함.
- 모든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이를 이용하는 가구 모두 증가함(그림 1 참조).
-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의 99.6%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67.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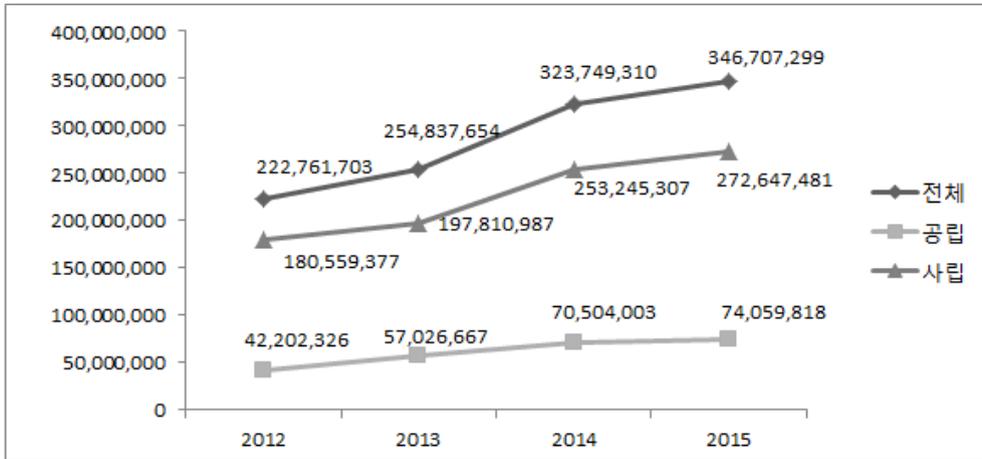
주 : 2015년은 자료 부재로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률 수치가 제외됨.
 자료 : 김정숙·이윤진·조예운(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2.

[그림 1] 방과후 과정 운영·이용률 추이: 2006-2016년

나. 방과후 과정비 지원 증가

-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 과정비도 계속해서 증가함. 2015년 정부가 지원한 방과후 과정비 예산은 약 346,707천원임(그림 2 참조).
- 전체 지원비의 약 78.6%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함. 이는 공립보다 사립에 다니는 유아가 더 많기도 하지만,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가 사립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단위: 천원



주: 1) 2012년 자료는 일부 시도의 결산자료 제출 미비로 예산자료가 포함된 수치임.

2) 2015년 자료는 교육청 결산자료 제출(2016. 5) 결과로 15년 최종 결산 후 수치 변동 가능성 있음.

자료: 김정숙 외(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4.

[그림 2] 방과후 과정 지원비용 추이변화: 2012~2015년

- 보편적 비용지원에 따라 방과후 과정이 불필요한 유아까지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거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면서 이 시간대에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본고에서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2

방과후 과정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

가.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방과후 과정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동법 제12조 학년도 등),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동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 “방과후 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동법 제2조 정의)임.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동시행령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 기준 ③), 다음 각 호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동시행령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나.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 교육부의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방안 지침

- **지원기준**: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원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일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함.
 - 2017년에는 총 이용 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함(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7:7).
- **비용지원**: 유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을 지원함.
- **지원항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담당인력**: 기간제 교원을 우선 배치하되, 고용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인력(돌봄사 등) 활용이 가능함(교육부, 2016:7-8).
- **프로그램**: 교육부 개발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및 추천프로그램 활용 권장함.
 - 외부강사에 의해 실시하는 특성화프로그램은 반드시 방과후 과정 시간대에만 운영하며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당 5개 이내로 운영함. 특성화 프로그램은 신청(동의)한 학부모 자녀에 한해서 실시하며 수익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정 비용을 산정해야 함(교육부, 2016:9-10).

■ 17개 시도의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 유치원과 지역실정에 맞게 방과후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아침돌봄을 포함하는 경우(경북)부터 오후8까지 반드시 운영해야하는 경우(서울 에듀케어)까지 매우 다양함.
- 기간제 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8시간 기준으로 탄력근무가 가능한 곳(강원)도 있고, 4시간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형태(전북, 제주), 2시간 근무하는 강사 배치(충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 정부는 방과후 과정시간대에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학부모에게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방과후 과정비 내에서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제주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주 3회로 제한하고, 학부모로부터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징수 시 학급운영비 지원 제외).

3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

가.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 일반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 시간은 오전 9시~14시이며 14시 이후부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

〈표 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09:00 ~ 14:00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14:00 이후 ~ (기타교육활동+보육활동)

자료: 교육부(2014).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안). p.4

- 실제 방과후 과정 시작 시간은 오후 2~3시가 51.3%로 가장 많고, 종료시간은 오후 6~7시가 가장 많음(표 2 참조).
 - 병설유치원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 대체로 빠르고,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종료시간이 대체로 늦음.

〈표 2〉 방과후 과정 시작·종료 시간

단위: %(개원)

구분	시작시간					종료시간					계	
	1시 전	1~2시	2~3시	3~4시	4시 후	4시 전	4~5시	5~6시	6~7시	7~8시		8시 후
오후												
단설	-	42.3	57.7	-	-	-	3.8	34.6	26.9	30.8	3.8	100.0(26)
병설	3.9	69.7	26.5	-	-	1.9	25.8	42.6	21.9	3.2	4.5	100.0(155)
사립	1.1	27.7	64.9	5.9	0.4	0.4	6.3	15.5	33.2	36.2	8.5	100.0(271)
전체	2.0	42.9	51.3	3.5	0.2	0.9	12.8	25.9	29.0	24.6	6.9	100.0(452)

자료: 양미선·배윤진·김정민(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p.159 표 재구성.

나. 방과후 과정 이용 기준 및 추가 비용

- 방과후 과정은 모든 유아가 이용할 수 있으나, 우선 순위에 대한 기준은 관할 교육청 또는 유치원별로 다름. 조사 결과, 맞벌이 가구가 약 60%로 가장 많고, '기준없음'이 39.6%로 2순위를 차지함(표 3 참조).

〈표 3〉 방과후 과정 유아 선정 기준(복수 응답)

단위: %(개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공립단설	65.4	50.0	42.3	23.1	26.9	38.5	19.2	15.4	38.5	-	34.6	(26)
공립병설	45.8	38.1	31.6	16.8	18.1	28.4	8.4	12.3	25.8	1.3	51.6	(155)
사립	66.4	38.0	36.5	24.7	15.5	30.6	9.2	8.5	23.2	2.2	33.2	(271)
전체	59.3	38.7	35.2	21.9	17.0	30.3	9.5	10.2	25.0	1.8	39.6	(452)

주: ① 맞벌이 가구 ② 저소득 가구 ③ 한부모 가구 ④ 조손 가구 ⑤ 장애부모 가구 ⑥ 다자녀 가구 ⑦ 돌봄 취약 가구 ⑧ 장애 영유아 가구 ⑨ 다문화 가정 ⑩ 기타 ⑪ 기준없음

자료: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p.162.

-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내는 비용이 없다는(지출안함) 응답이 61.6%이며 추가로 내는 경우는 월 평균 약 6만 2천원을 냄.

〈표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추가 비용 여부 및 지출액

단위: %, 명, 천원

구분	추가 비용 여부			지출시	
	지출안함	지출함	(수)	평균	(수)
만 3세	60.5	39.5	(76)	69.54	(30)
만 4세	62.1	37.9	(142)	61.90	(54)
만 5세	61.9	38.1	(156)	60.33	(59)
전체	61.6	38.2	(374)	62.85	(143)

자료: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p.92-93.

- 방과후 과정 시간대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 68%임(이진화 외, 2015:94).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은 추가비용이 없는 경우(58.9%)가 더 많지만, 사립유치원은 91.7%가 추가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약 2만 8천원 정도 많음.

〈표 5〉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시 평균 비용

단위: 천원, %, 명

구분	비용지출			지출시	
	지출안함	지출함	(수)	평균	(수)
공립	58.9	41.1	(181)	58.71	(46)
사립	8.3	91.7	(513)	86.96	(327)
전체	20.7	79.3	(693)	83.54	(373)

자료: 이진화 외(2015).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94 표재구성.

- 요컨대, 방과후 과정 이용 자체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방과후 과정 시간대에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서는 약 79.3%의 학부모가 내고 있으며 공사립 간에도 추가 비용 차이가 큼.

다.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 방과후 과정은 '방과후 전담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약 80%임. 그러나 오전에 기본교육 과정을 담당한 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41.8%로 적지 않음(표 6 참조).
 - 사립유치원이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방과후 과정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방과후 과정의 담당 인력 배치에 있어 공사립 간, 공립 간의 차이가 큼.
 - 공립은 방과후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병설의 경우 유급자원봉사자의 비율이 43.2%로 높음. 병설유치원이 주로 읍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됨.

〈표 6〉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현황(복수 응답)

단위: %(개원)

구분	방과후 전담 교사	기본 교육과정교사	보조 교사	유급 자원 봉사	원장, 원감 및 실무원	기타	(수)
공립단설	92.3	30.8	3.8	19.2	3.8	11.5	(26)
공립병설	83.2	23.9	8.4	43.2	-	9.0	(155)
사립	75.6	53.1	20.3	23.2	1.1	3.0	(271)
전체	79.2	41.8	15.3	29.9	0.9	5.5	(452)

자료: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71.

4 방과후 과정 개선사항

가. 운영의 어려움

- 방과후 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 채용(29.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육청 지정 운영 시간 준수(24.3%),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급증(23.0%) 순임(표 7 참조, 1순위 기준).
 -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해야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하루 8시간이 채 안 되는데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방과후 지원비가 보편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가 급증하게 된 것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적지 않게 나옴.
- 운영비 또는 인건비 등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방과후 과정 운영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1순위	29.6	24.3	11.9	23.0	6.9	1.5	0.9	0.4	0.9	0.4	100.0(452)
2순위	24.6	24.3	17.0	17.0	12.6	1.3	0.9	0.4	1.5	0.2	100.0(452)
1+2	54.2	48.6	28.9	40.0	19.5	2.8	1.8	0.8	2.4	0.6	(452)
단설	46.2	30.8	-	11.5	7.7	3.8	-	-	-	-	100.0(26)
병설	41.3	23.2	5.2	15.5	8.4	1.9	1.9	0.6	1.3	0.6	100.0(155)
사립	21.4	24.4	17.0	28.4	5.9	1.1	0.4	0.4	0.7	0.4	100.0(271)

주: 1) ① 교사채용 ② 지정운영시간 준수 ③ 교육청의 지나친 감독 ④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급증 ⑤ 외부 학원 이용 유아 관리감독 ⑥ 운영비 및 인건비 부담 ⑦ 업무과중 ⑧ 시설 및 차량부족 ⑨ 기타 ⑩ 없음
 자료: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186-187. 표 재구성.

나. 개선사항

- 원장이 희망하는 방과후 과정의 개선사항으로는 보조인력 지원(24.3%), 운영비 지원확대(23.9%),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17.0%) 순으로 꼽음(표 8 참조, 중복응답 1순위는 운영비 지원확대임).

- 앞서 방과후 과정의 어려움으로 비용 부담은 거의 없다는 응답과 비용 지원 확대를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이 희망한다는 응답은 상충되는 결과임.
- 단설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조정'을 26.9%로 '보조인력 확대'와 동일하게 1순위로 나올 만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병설과 사립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해서는 각각 9.7%, 8.1%로 낮게 나옴. 병설은 '보조인력 지원'을, 사립은 '운영비 지원확대'를 가장 많이 꼽음.

〈표 8〉 방과후 과정 개선사항: 원장 응답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1순위	24.3	2.7	23.9	12.8	9.7	5.5	17.0	3.5	0.2	0.2	100.0(452)
2순위	18.8	1.7	23.0	15.7	5.6	6.4	19.1	8.9	0.2	0.2	100.0(452)
1+2	43.1	4.4	46.9	28.5	15.3	11.9	36.1	12.4	0.4	0.4	(452)
단설	26.9	3.8	11.5	-	26.9	15.4	15.4	-	-	-	100.0(26)
병설	32.9	4.5	16.8	14.8	9.7	5.2	14.8	0.6	-	0.6	100.0(155)
사립	19.2	1.5	29.2	12.9	8.1	4.8	18.5	5.5	0.4	-	100.0(271)

주: ① 보조인력 지원 ② 교사 자격 기준 완화 ③ 운영비 지원확대 ④ 담당교사 인건비 인상 ⑤ 방과후 과정비 지원 대상 조정 ⑥ 이용 순위 기준 마련 ⑦ 운영 시간 탄력적 조정 ⑧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준 완화 ⑨ 교사 연수 및 처우개선 ⑩ 방과후 교실 확보

자료: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pp.188-189 표 재구성.

- 방과후 과정의 담당교사가 희망하는 개선사항으로는 인건비 현실화(24.3%), 고용의 안정성 제고(17.8%), 보조인력 확대(16.2%)(1순위 응답기준) 순임.

〈표 9〉 방과후 과정 개선사항: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 응답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1순위	17.8	8.4	24.3	10.2	16.2	10.0	2.4	8.6	1.3	0.8	-	100.0(371)
2순위	7.0	10.5	13.4	13.0	16.1	12.1	6.2	15.1	4.9	1.4	0.3	100.0(371)
1+2	24.8	18.9	37.7	23.2	32.3	22.1	9.6	23.7	6.2	2.2	0.3	(371)

주: ① 고용 안정성 ② 교사전문성 향상 ③ 인건비 현실화 ④ 업무 부담 경감 ⑤ 보조인력 지원확대 ⑥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 ⑦ 교육청 간 통일된 지침 ⑧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⑨ 외부 학원 이용 유아 관리감독 강화 ⑩ 기타 ⑪ 없음

자료: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90.

- 부모들은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질 향상(56.2%) 및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비용 책정(19.2%),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강사의 자질(11.5%)을 개선사항으로 꼽음.

〈표 10〉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개선 사항: 부모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만 3세	45.2	30.0	10.6	9.9	2.4	-	0.7	1.2	100.0(76)
만 4세	61.5	16.7	12.6	6.2	2.3	0.6	-	-	100.0(142)
만 5세	56.8	16.2	11.0	6.2	6.6	0.8	1.0	1.4	100.0(156)
전체	56.2	19.2	11.5	7.0	4.1	0.6	0.6	0.8	100.0(374)

주: 1) ①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② 합리적인 방과후 과정비(가거 규제 등) ③ 담당 교·강사 자격과 자질 향상 ④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확대 ⑤ 방과후 과정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⑥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페지 ⑦ 방과후 과정 신청자격 제한(예: 맞벌이 가정) ⑧ 기타
 2)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이진화 외(2015).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Ⅲ).육아정책연구소. pp.93-94

5 방과후 과정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제언

가.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 측면

■ 운영시간의 다양화 필요

- 농어촌 소재 1~2학급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 오후 5~6시까지 운영하는 데 지역 여건 상 어려움이 있음. 현재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유아교육법 제12조)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운영시간 개념의 재정립 필요

- 교육과정 종료 후를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이 시작하기 이전(대개 오전 9시 이전) 아침돌봄 시간이 방과후 과정에서 제외됨.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서 “교육과정 외 이루어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정의를 변경할 것을 제안함. 이렇게 변경할 경우, 방과후와 아침돌봄 개념이 상충하므로 새로운 개념의 용어가 필요함.

■ 이용대상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 누구라도 이용 가능함에 따라, 오후 돌봄이 불필요한 유아까지도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음. 또,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방과후 과정까지 맡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근무시간 연장, 피로도 누적, 수업준비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종전의 종일제 운영취지가 맞벌이 가정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현재 방과후 이용 대상 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 과정의 유아와 교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반시설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유치원 현관문 등 입구에 비디오폰, CCTV, 비상호출벨 설치 및 구청이나 읍면 파출소에 유치원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요청함. 또,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이나 지구대가 올 수 있도록 지역 내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함.

나. 방과후 과정 비용 측면

- 방과후 과정 재정 투입의 효율화 필요
 - 유아의 가족 상황을 고려한 방과후 과정 이용 시간의 차등화, 방과후 과정비의 소득별 차등지원, 방과후 과정비의 저소득층 위주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불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시도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용 상한선 및 적정 비용 제시
 -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관련 지침은 시도에 따라 다르며 지침이 없는 시도도 있음. 어린이집 처럼 시도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 상한선을 책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방과후 과정비를 누리과정 지원금(유아학비)로 전환 모색
 -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학부모의 추가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하고 있지 못함(2016년까지 월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음). 정부는 기본교육과정(누리과정)을 무상교육화하고 방과후 과정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제안함.
 - 운영방식이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다.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측면

■ 방과후 과정 전담 인력 확보

- 전담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방과후 과정까지 맡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경력을 어린이집에서 인정하도록 하며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공무직으로 방과후 과정 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부분 수당 및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감.

■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확대

- 방과후 과정은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기본교육과정 학급보다 유아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음. 현재는 보조인력으로 원 당 1명의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가 배치 되어 있으나, 유아수를 고려하여 보조인력 확대가 필요함.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외에 대학생 자원봉사자, 퇴직교원의 재능기부, 아이돌보미 기관파견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업무 내용 명시 필요

- 교육과정 담당 교사와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간의 업무분장이 안된 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업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참조하여 각 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함.

■ 방과후 과정의 다양한 담당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한 협동연구 필요

- 방과후 과정이란 동일한 업무를 다양한 직종이 담당함(교육공무직, 기간제교사, 시간제 기간제 교사, 위탁강사 등)으로써 법적 지위, 수당, 근무 조건, 복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이는 노동법률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관련 전문가, 법률가, 노무사, 유아교육 행정가 등이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함. 이에 협동연구 방식으로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에 대해 총체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6).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안).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7. 1). 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김정숙·이윤진·조예운(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배윤진·김정민(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

-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양미선 부연구위원
-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개선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 BSC 모델 지표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이윤진 연구위원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최은영 연구위원
- 다문화유치원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 방안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7-09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양미선 | 부연구위원

1. 서론
2.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추진 경과 및 쟁점
3. 공립유치원 확충 현황
4. 공립유치원 공급정책 성과 평가
5.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양미선 | 부연구위원

요약

-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 책임을 강조함.
-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 옴.
- 공립유치원 공급정책 평가 결과 보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적절성이나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였음.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립유치원 적정 모형 개발 및 우선 공급지역 기준, 농산어촌에 적합한 유치원 모델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고, 특히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
- 2007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유치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단설 및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공립유치원에 취원 우선순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교육인적자원부, 2007).

* 본 연구는 '양미선·이규립·김정민(2016).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결과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함.

- 이후 2009년에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적정 규모를 육성하겠다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내놓았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2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를 핵심과제로 내세움(교육과학기술부, 2013).
- 본 글은 그간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 추진과정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분석틀에 따라 공립유치원 공급정책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추진 과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함.
- 공교육 공급정책 평가 분석틀 구성 및 영역 특성을 설명함.
- 분석틀에 따라 공립유치원 공급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기존자료 분석, 조사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

-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 관련 법 및 제도와 국내 선행연구 등을 고찰함.
- 교육통계, 행정자치부 및 통계청 등의 승인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함.
-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조사(서문희 외, 2012; 양미선 외, 2013; 양미선 외 2014) 등을 2차 분석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2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추진 경과 및 쟁점

- 유치원 확충계획은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시기부터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07~2011), 유아교육 선진화(2009),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등 추진계획별로 살펴봄.

가.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시기

- 1976년 정부는 공립유치원을 서울에 4개원, 부산에 1개원 최초 설립하였고,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전국 69개 초등학교에 병설 시범유치원을 설치·운영함(이상금, 1992:157; 임재택, 1992:11).
- 1981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 강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아교육에 개입한 해’로 일컬어짐(나정·장명림·이은주, 1994:7).
-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유아교육진흥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하여 대도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쇄하고 낙후된 읍면지역 유아가 우선적으로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을 확대함(나정·장명림·이은주, 1994:8).

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07~2011)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유아에게는 쾌적한 학습 환경과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을 제공하며, 최적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3대 과제와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교육인적자원부, 2007).
- 공립 유치원 확충과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순위 제시를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추진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설 및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 우선순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은 2007년 10월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도하였으나, 보육계의 저지로 무산됨.
-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의 하나인 ‘유치원 취원 대상연령 확대’ 방안이 보육계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된 것임(이일주, 2007:1).

다. 유아교육 선진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함(교육과학기술부, 2009).

 - 세부과제로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를 육성을 발표하였고, 추진방법으로 도시지역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학생 감소로 발생한 학교 유휴시설은 병설유치원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활용하며, 농산어촌은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임.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은 유아교육의 질을 전격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현장의 기대와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유아학비부담경감’ 분야 중 핵심과제인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은 정상추진 및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음.

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은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비전으로 세우고,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2대 목표와 5대 분야 25개 핵심과제를 제시함(교육과학기술부, 2013a).

 - 유아교육 기회 확대 추진을 위해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추진된 후 정책 실행 정도를 평가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될 예정임.

〈표 1〉 공교육 확충 관련 중장기 유아교육 계획 비교

구분	정책과제	세부내용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접근성 제고 - 공립유치원 확충 -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순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위주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설치 • 공립유치원의 취원 우선순위 적용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 도시지역 한계사립유치원 정상화 •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 당해기관 내 부설 유치원 자율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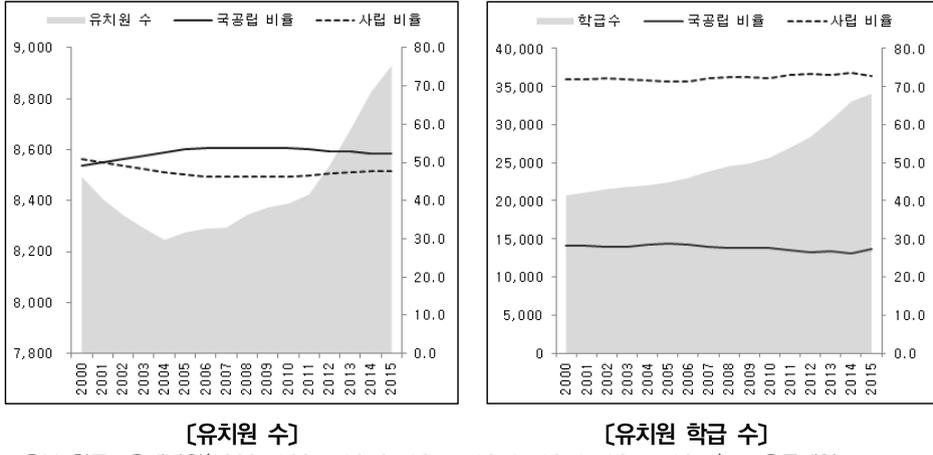
구분	정책과제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보육시설과 시설인력 등을 공동활용하여 연계 운영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13)	-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유아수용계획수립 유치원 수용계획 위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서문희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3 공립유치원 확충 현황

가. 유치원 수

-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5년 기준 4,678개원으로, 공립 단설 272개원, 병설 4,403개원으로 학급 수가 1~2개 정도인 소규모 유치원이 대부분임.
 -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52.4%로, 2000년 전체 유치원 수가 8,494개원에서 2015년 8,930개원으로 약 5%p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국공립유치원은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015년 기준 유치원 학급은 총 34,075학급으로, 이중 국공립이 9,283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7.2%를 차지함.
 -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2000년 5,824학급으로 28% 수준이었고, 이후에도 큰 변동없이 28% 내외 수준을 유지함.
- 유치원 1개원당 학급수는 2015년 기준 평균 3.8학급으로 단설 및 대규모 사립유치원이 늘어나면서 학급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
 - 국공립유치원은 1~2학급 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5년 2학급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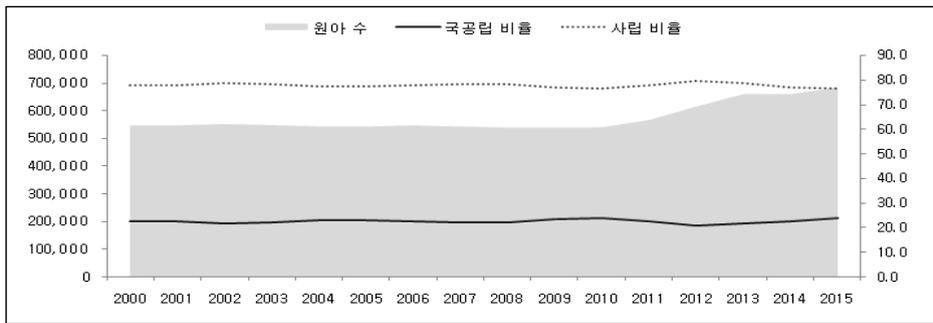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그림 1] 유치원 및 학급 수와 설립유형별 비율: 2000~2015

나. 취원아 수

- 2015년 기준, 유치원 취원아 수는 682,553명으로 국공립 161,339명, 사립 521,214명임.
- 전체 유치원 원아 중 국공립 이용 비율이 23.6%로 1/4 정도를 차지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그림 2] 유치원 취원아수 및 기관유형별 비율: 2000~2015

- 국공립유치원 원아 또한 2012년까지 12만 명 선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단설유치원으로 원아수가 2015년 16만 명 가까이 됨.
- 만 3-5세 유아 수는 2015년 기준 1,396,456명으로, 전체 유아수 대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5년 11.6%임.

〈표 2〉 유치원 취원율

단위: %

구분	주민등록인구 (3~5세)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원아수	취원율	원아수	취원율
2015	1,396,456	682,297	48.9	161,339	11.6
2014	1,388,583	657,963	47.4	148,269	10.7
2013	1,410,211	657,963	46.7	142,052	10.1
2012	1,411,299	613,523	43.5	127,347	9.0
2011	1,378,886	564,594	40.9	126,095	9.1
2010	1,357,199	538,351	39.7	126,577	9.3

주: 공급률은 정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이용률은 현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의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12월 말 기준).

다. 예산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예산은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소요예산으로 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나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등으로 지출됨.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 중 대부분이 공립유치원 신·증설비에 편성 및 운영하고 있음.

〈표 3〉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세부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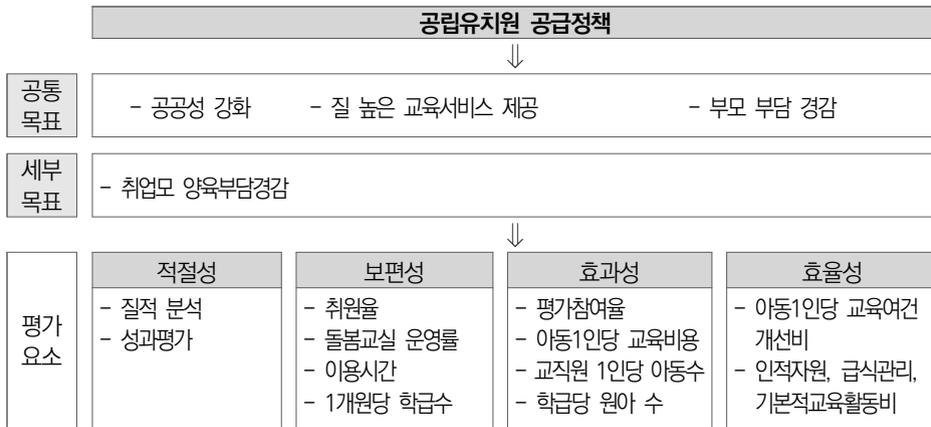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학생수용 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167,423	-	167,423	357,147	-	357,147
	기타원아수용시설 설립비	2,891	-	2,891	138	-	138
교육환경 개선시설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7,678	-	7,678	7,976	-	7,976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4,587	-	4,587	43	-	43
	기타유치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3,652	310	3,962	3,930	91	4,021

자료: 교육부(2014).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최은영 외(2014). 2014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4 공립유치원 공급정책 평가

- 유아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 목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개발함.
 - 적절성은 정부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설계를 살펴보는 지표임.
 - 보편성은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의 대상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효과성은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봄.
 -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입은 유아교육 예산, 수익은 유아학비가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연계되었는지를 평가함.



[그림 3] 공교육 공급정책 평가 분석틀

가. 적절성

- 교육부는 2012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아수용계획 수립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함.
 - 동법 제17조2에 의하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2016.11.30. 인출).

- 각 시도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학급 당 유아수를 공시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 발전 5개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 상에 나타난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함.
 -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7가지 세부과제 중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에 수록된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와 취원수요 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7점 만점에 각각 평균 6.29점, 평균 6.17점, 평균 6.08점으로 성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평가함.
 -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평균 5.66점,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평균 5.32점, 공립유치원의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설치 평균 5.18점,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평균 5.10점,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모델 평균 4.73점 순임.
 - 공립유치원 원장은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6.29점으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취원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평균 5점 대, 나머지는 4점 이하로 평가함.

〈표 4〉 유치원 공급정책 평가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성과 전혀 없음	성과						성과 매우 큼	계(수)	7점 평균
		2	3	보통	5	6				
시도교육청 공무원										
1)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3.9	3.9	2.6	23.4	18.2	22.1	26.0	100.0(77)	5.18	
2)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	1.3	1.3	-	20.8	14.3	28.6	33.8	100.0(77)	5.66	
3)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5.2	-	7.8	22.1	20.8	19.5	24.7	100.0(77)	5.10	
4) 공립유치원 확충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5.2	2.6	3.9	19.5	14.3	20.8	33.8	100.0(77)	5.32	
5)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5.2	3.9	2.6	41.6	11.7	18.2	16.9	100.0(77)	4.73	
6) 취원수요조사 실시·유아수용계획 수립	2.6	-	1.3	9.1	10.4	23.4	53.2	100.0(77)	6.08	
7) 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2.6	-	-	7.8	9.1	26.0	54.5	100.0(77)	6.17	

구분	성과 전혀 없음	2	3	보통	5	6	성과 매우 큼	계(수)	7점 평균
공립유치원 원장									
1)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11.4	4.5	4.0	42.3	6.0	14.4	17.4	100.0(201)	4.40
2)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	2.5	2.0	.5	8.5	3.5	11.4	71.6	100.0(201)	6.29
3)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10.4	13.9	10.0	34.3	9.5	11.4	10.4	100.0(201)	3.95
4) 공립유치원 확충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9.0	2.0	1.5	26.9	7.0	18.4	35.3	100.0(201)	5.17
5)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19.4	8.5	7.0	35.3	8.5	10.9	10.4	100.0(201)	3.80
6) 취원수요조사 실시·유아수용계획 수립	4.5	5.0	4.5	23.4	11.4	17.9	33.3	100.0(201)	5.19
7) 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2.5	2.5	4.5	11.9	7.0	20.9	50.7	100.0(201)	5.84

나. 보편성

- ▣ 보편성 지표는 유치원 취원율과 공립유치원 1개원당 학급 수, 유치원 이용시간, 돌봄교실 운영률 등을 살펴봄.
- ▣ 유치원 취원율은 2015년 48.9%으로, 그간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로 취원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과 2013년 누리과정의 3~4세 확대로 취원율이 5년 사이에 10%p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10년 9.3%에서 2015년 11.6%로 2.3%p 정도만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치원 공급이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

〈표 5〉 공립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5세 유아수	1,396,456	1,388,583	1,410,211	1,411,299	1,378,886	1,357,199
유치원 원아수	682,297	657,963	657,963	613,523	564,594	538,351
공립유치원 원아수	161,339	148,269	142,052	127,347	126,095	126,577
유치원 취원율	39.7	40.9	43.5	46.7	47.4	48.9
(증감률)		(1.2)	(2.6)	(3.2)	(0.7)	(1.5)
공립유치원 취원율	9.3	9.1	9.0	10.1	10.7	11.6
(증감률)		(-0.2)	(-0.1)	(1.1)	(0.6)	(0.9)

주: 취원율은 재원 유아 대비 전체 3~5세 유아 비율 의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12월 말 기준).

- 유치원 1개원당 학급수는 2015년 기준 3.8학급으로, 2000년대 1개원당 학급수가 2개 정도이었으나, 최근 단설유치원 증설계획 추진과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연령별로 전환되면서 학급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립유치원은 2000년 1.4학급에서 2015년 2학급으로 늘어났고, 사립유치원은 동기간 동안 3.5학급에서 5.8학급으로 2학급 이상 커졌음.

〈표 6〉 1개원당 학급수

단위: 학급(%)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4	2.7	3.1	3.2	3.3	3.5	3.7	3.8
(증감분)	-	(0.3)	(0.4)	(0.1)	(0.1)	(0.2)	(0.2)	(0.1)
국공립	1.4	1.5	1.6	1.6	1.7	1.8	1.9	2.0
(증감분)	-	(0.1)	(0.1)	(0)	(0.1)	(0.1)	(0.1)	(0.1)
사립	3.5	4.1	4.8	5.0	5.2	5.5	5.8	5.8
(증감분)	-	(0.6)	(0.7)	(0.2)	(0.2)	(0.3)	(0.3)	(0)

주: 1개원당 학급수=학급수/유치원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 공립유치원 재원아의 이용시간은 2012년 기준 평균 7시간 32분으로 2004년 5시간 38분에서 약 2시간 가량 길어짐.
 - 2009년은 2004년보다 1시간 3분, 2012년은 2009년보다 51분이나 길어짐.
 - 2013년부터 방과후과정비 5만원이 지원되면서 유아들이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임.

〈표 7〉 유치원 이용 시간

구분	2004년	2009년	2012년
공립	5시간 38분	6시간 41분	7시간 32분
(증감분)	-	(63분)	(51분)
사립	5시간 54분	6시간 35분	7시간 6분
(증감분)	-	(41분)	(31분)

주: 유치원 이용시간은 집에서 나가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서문희·양미선·김은설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돌봄교실 운영률은 국공립유치원이 2015년 0.08%에서 2016년 7.2%로 크게 늘었고, 사립은 2015년 14.5%에서 2016년 11.3%로 반대로 감소함.

-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돌봄교실 지원예산이 크게 줄면서 사립유치원의 돌봄교실 운영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됨.

〈표 8〉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개원,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년	853	76	35	24	23	12	32	75	23	110	31	81	39	38	45	155	51	3
국공립	348	29	13	1	-	7	-	16	22	60	19	58	25	20	30	42	4	2
운영률	7.2	14.4	14.0	0.7	0.0	5.4	0.0	20.0	51.2	5.2	6.6	22.4	6.7	5.4	7.0	8.8	0.9	2.1
사립	505	47	22	23	23	5	32	59	1	50	12	23	14	18	15	113	47	1
운영률	11.3	6.5	6.6	8.4	8.3	2.6	17.8	49.2	33.3	4.4	10.3	23.0	9.6	10.4	12.3	44.1	16.7	4.5
2015년	979	52	53	39	24	15	50	84	12	133	33	84	46	43	50	191	68	2
국공립	386	10	13	-	-	12	11	10	12	61	23	67	34	23	36	70	3	1
운영률	0.08	0.05	0.17			0.10	0.12	0.13	0.44	0.06	0.08	0.28	0.09	0.07	0.09	0.15	0.01	0.01
사립	593	42	40	39	24	3	39	74	-	72	10	17	12	20	14	121	65	1
운영률	14.5	6.2	12.9	15.9	9.7	1.7	23.1	64.3	-	7.0	9.6	18.7	9.1	13.0	12.6	50.6	26.0	5.0

자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2015년 2월, 2016년 9월 공시자료)

양미선·배윤진·김정민(2015). 어린이집유치원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92.

다. 효과성

- 효과성은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교육비용 절감 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유치원 평가는 현재 3주기 평가가 추진됨.
 - 3주기 평가는 계획 수립 시 2,893개원씩 총 8678개원을 평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학급당 원아수는 2015년 기준 1학급당 평균 20명으로 2000년 26.3명에서 지난 15년 동안 6명 이상 감소함.
 - 공립유치원은 2000년 21명에서 2005년 19.3명, 2010년 17.8명으로 10년간 3명 정도 줄었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17명 선을 유지함.

〈표 9〉 학급 당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6.3	24.2	21.0	20.9	21.6	21.5	19.9	20.0
(증감분)	-	(-2.1)	(-3.2)	(-0.1)	(0.7)	(-0.1)	(-1.6)	(0.1)
국공립	21.0	19.3	17.8	17.3	16.9	17.3	17.1	17.4
(증감분)	-	(-1.7)	(-1.5)	(-0.5)	(-0.4)	(0.4)	(-0.2)	(0.3)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립	28.4	26.2	22.2	22.3	23.3	23.1	20.7	21.0
(증감분)	-	(-2.2)	(-4)	(0.1)	(1)	(-0.2)	(-2.4)	(0.3)

주: 학급당 원아 수=원아 수/학급 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 교원 1인당 원아수는 2015년 기준 13.4명으로 2000년 19.5명에서 2010년 5명 정도 줄었고, 이후 13~14명 정도를 유지함.

〈표 10〉 교원 1인당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9.5	17.5	14.8	14.6	14.5	14.3	13.4	13.4
(증감분)	-	(-2.0)	(-2.7)	(-0.2)	(-0.1)	(-0.2)	(-0.9)	(0.0)
국공립	19.9	17.9	14.3	13.6	12.8	12.9	12.4	12.8
(증감분)	-	(-2.0)	(-3.6)	(-0.7)	(-0.8)	(0.1)	(-0.5)	(0.4)
사립	19.3	17.3	14.9	14.9	15.1	14.7	13.8	13.6
(증감분)	-	(-2.0)	(-2.4)	(0.0)	(0.2)	(-0.4)	(-0.9)	(-0.2)

주: 교원 1인당 원아 수=원아 수/교원 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 공립유치원은 2000년 19.9명에서 2005년 17.9명, 2010년 14.3명, 이후 12~13명 정도임.
- 각 교육청이 매년 공시하는 학급당 원아수가 줄어든 것과, 최근 규모가 큰 단설유치원이 증설되면서 국공립 교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직원 1인당 원아수는 2015년 기준 138.6명으로, 2000년 84.1명에서 50명 넘게 증가함.
 - 공립유치원은 2000년 69.9명에서 15년 사이 3배 정도의 199.9명으로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도 2000년 66.5명에서 2015년 126.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남.
 -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으로 원아수는 급증하였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표 11〉 직원 1인당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4.1	76.5	74.7	67.5	70.9	75.4	158.3	138.6
(증감분)	-	(-7.6)	(-1.8)	(-7.2)	(3.4)	(4.5)	(82.9)	(-19.7)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공립	69.9	143.7	115.8	61.8	74.8	80.4	239.9	199.9
(증감분)	-	-	(-27.9)	(-54.0)	(13.0)	(5.6)	(159.5)	(-40.0)
사립	66.5	67.2	67.3	69.4	69.9	74.1	143.9	126.6
(증감분)	-	(0.7)	(0.1)	(2.1)	(0.5)	(4.2)	(69.8)	(-17.3)

주: 직원 1인당 원아 수=원아 수/직원 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 아동 1인당 총 교육비용은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에는 217.7천원이었으나, 2013년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자 146.6천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4년 202.6천원으로 2012년 수준까지 상승함.
- 공립유치원은 2012년 80.7천원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8.1천원, 11.4천원으로 부모 부담금이 거의 사라짐.

〈표 12〉 아동 1인당 교육비용

단위: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육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교재 교구비	계	교육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교재 교구비	계	교육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교재 교구비	계
전체	178.5	36.2	2.9	217.7	107.9	36.4	2.2	146.6	149.3	50.2	3.2	202.6
국공립	62.7	16.1	1.9	80.7	11.3	6.4	0.2	18.1	6.1	5.1	0.1	11.4
사립	208.8	41.5	3.2	253.6	150.6	49.6	3.2	203.3	179.0	59.6	3.8	242.4
t	12.9***	6.9***	1.3	14.8***	-41.6**	-20.1**	-9.5***	-43.3***	-72.6***	-26.4***	-12.8***	-61.1***

주: 아동 1인당 교육비용은 전체 아동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자료: 서문희 외(2012c).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박진아·임지희(2013c).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김길숙·김정민 (2014b).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 $p < .001$

라. 효율성

- 효율성은 아동 1인당 교육여건개선비 예산과 유치원 세출예산 중 교육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인적자원, 급식관리, 기본적 교육활동비 3개 항목의 아동 1인당 비용을 산출하여 분석함.
- 아동 1인당 교육여건개선비는 2010년 1.31백만원에서 2012년 1.8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3년 1.46백만원으로 삭감됨.

- 교육청의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교육여건개선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표 13〉 아동 1인당 교육여건개선 예산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교육여건개선 예산	211,912	215,582	267,195	186,541
공립유치원 원아수	161,339	148,269	142,052	127,347
아동 1인당 예산	1.31	1.45	1.88	1.46
(증감분)	-	(0.14)	(0.43)	(-0.42)

자료: 최은영 외(2013,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공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인적자원 운영비가 19.4천원, 급식관리 48.7천원, 교육활동 38.4천원이고, 사립은 인건비 219.7천원, 교수학습활동비 3.0천원, 수익자부담 교육비 561.7천원임.
-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 구조가 상이하야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표 14〉 유치원 아동 1인당 세출비용

단위: 천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인적자원운영	급식관리	교육활동	인건비	교수학습 활동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19.4	48.7	38.4	219.7	3.0	561.7

주: 공립유치원 인적자원운영비 중 교직원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최은영 외(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8.

5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공립유치원 우선 공급지역 기준을 마련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치원수용계획 담당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은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을 가장 많이 꼽음.

- 의무 설치지역 외에도 유치원 수요가 높은 지역은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이 동일 기준을 적용함.
 - 학급당 유아 수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임.
 - 유아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급 당 유아 수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이 일괄 적용하도록 함.
 - 학급당 유아 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 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만3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적정 모형 개발
 - 공립유치원 설립과 함께 적정 규모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므로, 지역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모형을 개발·보급함.
- 농산어촌에 적합한 유치원 모델을 개발함.
 -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농산어촌의 영유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인구가 없는 지역에는 설치 필요성이 낮지만, 소수 거주지역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공립유치원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산어촌에 적합한 공립유치원 규모 및 운영 모델을 개발함.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교육부(2014).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 나정·장명림·이은주(1994). 공립 유치원 모형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5-27.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길숙·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박진아·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배운진·김정민(2015). 어린이집유치원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2015년 2월, 2016년 9월 공시자료)
- 이상금(1992). 유아교육의 질적 고양을 위한 과제. 교육학 연구, 30(3), 153-164.
- 이일주(2007). 현행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동향과 과제. 교원교육, 23(3), 1-27.
- 임재택(199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안의 모색. 유아교육논총, 2(단일호), 5-28.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12월 말 기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슈페이퍼 2017-10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개선 과제

유 해 미 |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2. 가정어린이집 공급·이용 추이
3.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요구
4. 정책 제언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개선 과제*

유 해 미 | 연구위원

요 약

- 2016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 제도 등이 도입되고 영아 대상 가정내 지원이 강조됨에 따라 영아보육을 위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방향성 재정립 및 내실화가 요구됨.
- 가정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동기로는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일·가정 양립, 2세아와 홀벌이 가구는 양육스트레스 완화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임.
- 현재 이용 중인 가정어린이집 선택 시 주된 고려사항은 지리적 접근성과 원장 및 교사에 대한 신뢰이며, 보육환경과 부모참여 부문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고, 영아 자녀에 대해서는 소규모와 영아전담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은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종일제 보육 위주로 운영하되, 맞춤형 컨설팅 지원, 보조인력 지원 및 조리원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가 요구됨.

1 문제 제기

- 2015년 기준으로 0~2세 보육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59.5%를 차지하는데, 영아보육은 여성고용률 제고 효과와 직결되므로 영아보육 위주인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실태 및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아 대상으로 가정내 보육이 보다 강조되고, 2016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하 주요 분석결과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유해미·이규림·이민경(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이 글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방향 및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 설문조사는 2016년 8월에 전국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부모 총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를 조사함.
 - 조사 응답자의 이용 반명은 0세반 14.2%, 1세반 25.9%, 2세반 36.8%이며, 자녀 연령은 1세 38.1%, 2세 39.8%이고, 맞벌이 가구가 63.1%를 차지함.

〈표 1〉 설문 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_가정어린이집 이용부모 대상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자녀 연령		연령	
0세	5.7	20대	7.3
1세	38.1	30대	83.5
2세	39.8	40대	9.1
3세 이상	16.4	50대 이상	0.1
평균(개월)	25.1	평균(세)	34.6
이용 반명		학력	
0세반	14.2	고등학교 졸업 이하	9.0
0+1세반	7.2	전문대(2~3년제) 졸업	31.5
1세반	25.9	4년제 대학교 졸업	56.1
1+2세반	15.9	대학원 졸업	3.4
2세반	36.8	월평균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200만원 미만	1.8
맞벌이	63.1	200만원~300만원 미만	13.6
홀벌이	36.9	300만원~400만원 미만	34.8
거주지역		400만원~500만원 미만	24.7
서울	15.0	500만원~600만원 미만	15.1
인천·경기	38.6	600만원 이상	9.9
부산·울산·경남	15.4		
대구·경북·강원	9.3		
광주·전북·전남·제주	9.3		
대전·충북·충남·세종	12.4		
계(수)		계(수)	100.0(960)

2 가정어린이집 공급·이용 추이

- 2015년 기준 영아들의 기관보육 이용률은 평균 64.2%이며, 아동 연령별로는 0세아 32.3%, 1세아 70.4%, 2세아가 95.3%임.
-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보육아동 중 0~2세아는 59.5%를 차지하며, 아동 연령별로는 0세아 9.4%, 1세아 21.2%, 2세아가 28.9%임.
 - 2015년 기준 영아보육 비중은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 이전인 2011년과 비교하여 4.7%p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주로 1세아와 2세아의 이용 증가에 따른 것임.
- 2015년 기준으로 가정어린이집은 0~2세 보육이 99.0%를 차지하여 어린이집 유형 중 영아보육 비중이 가장 높음.
 - 가정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 비율은 0세아 26.4%, 1세아 39.3%, 2세아 34.4%이며, 이를 2006년과 비교하면 0세아와 1세아의 이용률은 증가하고, 2세아의 이용률은 감소함.
- 2015년 기준 가정어린이집은 기관수로는 전체의 51.9%(22,074개소), 보육아동수로는 23.7%(344,077명)을 차지함(표 2, 3 참조).
 - 가정어린이집 수는 2005년과 비교하여 약 2배, 보육아동수는 약 2.7배 증가함.
 - 가정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함.
 - 각 시·도별 0~2세 대비 보육아동 비율은 제주 지역은 15.0%에 그치는 반면, 대전광역시 는 40.1%로 격차를 보임.

〈표 2〉 어린이집 공급 추이(1995-2015)

단위: 개소(%)

구분	가정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개인	직장	부모 협동	계
2015	22,074	2,629	1,414	834	14,626	785	155	42,517
(비율)	(51.9)	(6.2)	(3.3)	(2.0)	(34.4)	(1.8)	(0.4)	(100.0)
2014	23,318	2,489	1,420	852	14,822	692	149	43,742
2013	23,632	2,332	1,439	868	14,751	619	129	43,770
2012	22,935	2,203	1,444	869	14,440	523	113	42,527
2005	11,346	1,473	1,495	979	12,769	263	42	28,367
(비율)	(40.0)	(5.2)	(5.3)	(3.5)	(45.0)	(0.9)	(0.1)	(100.0)

주: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5 〈표 II-1-1〉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표 3〉 보육아동 추이(1995-2015)

단위: 명(%)

구분	가정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개인	직장	부모 협동	계
2015 (비율)	344,077 (23.7)	165,743 (11.4)	99,715 (6.9)	46,858 (3.2)	747,598 (51.5)	44,765 (3.1)	4,127 (0.3)	1,452,813 (100.0)
2014	365,250	159,241	104,552	49,175	775,414	39,265	3,774	1,496,671
2013	364,1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4,479	3,226	1,486,980
2012	371,671	149,677	113,049	51,914	768,256	29,881	2,913	1,487,361
2005 (비율)	129,007 (13.0)	111,911 (11.3)	125,820 (12.7)	56,374 (5.7)	552,360 (55.8)	12,985 (1.3)	933 (0.1)	989,390 (100.0)

주: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p.47-48 〈표 II-1-3〉에 추가·보완함.
 아동 수는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3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요구

가. 이용 동기 및 이용가구 특성

- 현재 이용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동기로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1.3%로 가장 높음.
- 기관 이용 사유로는 맞벌이 가구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8.1%로 가장 높은 반면, 홀벌이 가구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다른 자녀의 돌봄, 혼자 양육하기 어려워서 등으로 조사됨.
- 직장생활과의 병행이 주된 기관 이용 사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0세아를 둔 응답자에서 83.6%로 압도적으로 높고, 1세아의 해당 비율도 59%임.

〈표 4〉 현재 기관 이용 동기

단위: %(명)

구분	전체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0세	1세	2세	3세 이상	맞벌이	홀벌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1.3	83.6	59.0	42.1	43.9	78.1	5.4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13.3	0.0	6.8	18.1	21.7	8.6	21.5
다른 자녀를 돌봐야 해서	10.7	0.0	9.8	11.5	14.6	3.1	23.7
혼자 양육하기 힘들어서	10.5	10.9	10.1	12.6	6.4	3.5	22.6

구분	전체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0세	1세	2세	3세 이상	맞벌이	홀벌이
구직활동을 하려고	8.2	5.5	11.5	6.5	5.7	4.0	15.5
교육이 필요한 시기여서	5.7	0.0	2.7	8.9	7.0	2.8	10.7
기타	0.3	0.0	0.1	0.3	0.7	0.0	0.6
계(수)	100.0(960)	100.0(55)	100.0(366)	100.0(382)	100.0(157)	100.0(606)	100.0(354)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현재 이용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선택 시 고려사항은 지리적 접근성과 원장과 교사에 대한 신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1%와 40.2%로 주를 이룸.
- 과거 기관 이용 유경험율은 8.9%이며, 최초 기관 이용 시 자녀 연령은 평균 12.1개월이고, 12~24개월 50.6%, 12개월 미만인 45.9%로 조사됨.
 - 맞벌이 가구의 최초 기관 이용 시 자녀 연령은 평균 11.4개월이고 12개월 미만 응답율은 52.8%로 홀벌이 가구에 비해 이른 것으로 나타남.

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지리적 접근성
 -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등원 방법은 도보 72.6%, 해당 소요시간은 약 6분이며, 최초 기관 이용 시 기관 중단 사유로는 “집에서 멀어서”가 26.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표 5 참조).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유경험율은 26.5%이고, 대기 기간은 6개월 이하가 89.9%이며, 평균 대기 기간은 3.4개월로 조사됨.
- 서비스 이용시간
 -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총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58분이고, 0세아 8시간 47분, 1세아 8시간 16분, 맞벌이 가구 8시간 39분으로 각각 평균보다 길게 나타남.
 - 기관 이용시간은 맞출반 이용자는 종전(2016년 7월 이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20분으로 약 1시간이 감소한 반면, 종일반 이용자는 종전 6시간 51분에서 8시간 10분으로 1시간 20분 증가함.
 -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후 변경된 이용시간을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66%선이며, 해당 비율은 1세아를 둔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가정어린이집 등원 소요 시간

단위: 분, %(명)

구분	도보						차량 이용						계(수)
	0~5분	6~10분	11~15분	16~20분	21분 이상	평균	0~5분	6~10분	11~15분	16~20분	21분 이상	평균	
전체	71.4	24.2	3.2	0.9	0.3	6분	39.2	40.3	12.5	5.7	2.3	9분	100.0(960)
자녀 연령													
0세	78.0	19.5	0.0	2.4	0.0	6분	50.0	28.6	14.3	7.1	0.0	9분	100.0(55)
1세	68.9	27.1	2.5	0.7	0.7	6분	38.4	37.2	12.8	7.0	4.7	10분	100.0(366)
2세	74.9	21.1	3.3	0.7	0.0	6분	36.4	44.9	12.1	4.7	1.9	9분	100.0(382)
3세 이상	66.3	26.7	5.9	0.9	0.3	6분	42.9	39.3	12.5	5.4	2.3	9분	100.0(15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2	24.8	3.6	1.1	0.2	6분	41.3	35.9	14.4	6.0	2.4	10분	100.0(606)
홀벌이	73.6	23.3	2.3	0.4	0.4	6분	35.4	47.9	9.4	5.2	2.1	9분	100.0(354)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이용비용

- 추가 부담 비용은 월 평균 33,150원이고, 이중 특별활동비가 25,918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3세아 이상에서 해당 비용은 43,002원으로 높게 나타남.
- 해당 비용이 부담 된다(매우 부담 + 부담)고 응답한 비율은 6.1%임.

〈표 6〉 보육료 이외 가정어린이집 월 추가비용

단위: 원, %(명)

구분	특별활동비	기타 비용	합계	(수)
전체	25,918	7,233	33,150	(960)
자녀 연령				
0세	7,327	2,873	10,200	(55)
1세	10,929	4,085	15,014	(366)
2세	35,933	9,313	45,246	(382)
3세 이상	43,002	11,038	54,041	(157)
<i>F</i>	106.980**	258.759**	119.2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671	7,505	31,176	(606)
홀벌이	29,764	6,767	36,531	(354)
<i>t</i>	3.168**	0.735	2.396*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서비스 병행 이용

- 평일 기준으로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외의 서비스를 병행 중인 응답자 비율은 15.8%임.
-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21.9%로 높게 나타나며, 이들 가구에서 주된 돌봄자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 조사됨.
- 추가이용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혈연(조부모 또는 친인척)인 경우는 월 평균 293,000원이거나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용은 317,000원으로 더 높고, 민간베이비시터 월평균 이용비용은 100만원으로 조사됨.

〈표 7〉 기관이용 병행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해당 인력

단위: %(명)

구분	있음 (비율)	계(수)	조부모/ 친인척	민간 베이비시터	이웃 (보육모)	(수)
전체	15.8	100.0(960)	96.1	3.3	1.3	(152)
자녀 연령						
0세	10.9	100.0(55)	83.3	0.0	16.7	(6)
1세	15.6	100.0(366)	98.2	3.5	0.0	(57)
2세	16.2	100.0(382)	95.2	3.2	1.6	(62)
3세 이상	17.2	100.0(157)	96.3	3.7	0.0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9	100.0(606)	95.5	3.8	1.5	(133)
홀벌이	5.4	100.0(354)	100.0	0.0	0.0	(19)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퇴근 시각보다 늦어서 34.9%, 장시간 보육을 원치 않아서 32.9%, 아이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 17.1%로 조사됨.

□ 이용 만족도

- 원장/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6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급간식 관리와 등원 시각이 공히 4.60점, 안전관리(시설안전) 4.59점 순이며, 부모참여는 평균 4.44점, 시설 및 환경 부문은 평균 4.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자녀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0세아의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특히 부모참여 만족도가 평균 4.28점으로 가장 낮음.

- 이용기관 특성별로는 평가인증 기관이 미인증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시설 및 환경, 보육내용,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 급간식 관리, 이용비용, 연간 운영 일수, 하원 시각, 부모참여, 긴급보육 대응 정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표 8〉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_전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5점)
시설 및 환경	0.1	0.3	6.4	34.1	59.1	100.0(954)	4.52
보육내용(프로그램)	0.1	0.1	6.2	30.5	63.1	100.0(957)	4.56
특별활동프로그램	0.1	0.4	7.8	32.3	59.4	100.0(908)	4.50
원장/교사의 전문성	0.1	0.0	2.4	26.6	70.9	100.0(955)	4.68
급·간식 관리	0.1	0.0	5.2	28.6	66.0	100.0(953)	4.60
안전관리(시설안전 등)	0.1	0.0	4.4	31.4	64.1	100.0(958)	4.59
이용비용(보육료 외 추가비용)	0.1	0.1	6.9	32.5	60.4	100.0(911)	4.53
연간 운영 일수(휴원 일수)	0.1	0.2	5.1	33.7	60.9	100.0(950)	4.55
등원 시각	0.1	0.2	5.0	28.9	65.8	100.0(958)	4.60
하원 시각	0.5	0.5	5.5	28.3	65.1	100.0(956)	4.57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0.0	0.4	9.6	35.6	54.4	100.0(939)	4.44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0.0	0.2	4.5	34.3	61.0	100.0(925)	4.56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9〉 가정어린이집 이용 만족도_아동 및 가구 특성별

단위: 점

구분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0세	1세	2세	3세 이상	F	맞벌이	홀벌이	t
시설 및 환경	4.49	4.53	4.53	4.48	0.31	4.55	4.47	1.92
보육내용(프로그램)	4.43	4.54	4.59	4.60	1.21	4.58	4.53	1.16
특별활동프로그램	4.27	4.45	4.54	4.60	3.63*	4.52	4.47	1.20
원장/교사의 전문성	4.56	4.65	4.70	4.75	1.98	4.69	4.67	0.46
급/간식 관리	4.59	4.62	4.59	4.62	0.19	4.61	4.60	0.15
안전관리(시설안전 등)	4.60	4.57	4.59	4.66	0.98	4.61	4.57	1.04
이용 비용(보육료 외 추가 비용)	4.45	4.52	4.56	4.51	0.60	4.55	4.49	1.38
연간 운영 일수(휴원 일수)	4.47	4.52	4.59	4.57	1.09	4.60	4.47	2.30**
등원 시각	4.45	4.58	4.63	4.62	1.58	4.63	4.55	1.87
하원 시각	4.54	4.58	4.57	4.55	0.10	4.61	4.49	2.58**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4.28	4.45	4.46	4.44	1.01	4.46	4.40	1.25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4.43	4.54	4.59	4.59	1.54	4.57	4.54	0.96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10〉 가정어린이집 이용 만족도_이용기관 특성별

단위: 점

구분	평가인증 여부			기관규모별			F
	받음	안 받음	t	10인 이하	11~15인	16~20인	
시설 및 환경	4.53	4.35	2.23*	4.40	4.41	4.55	3.71*
보육내용(프로그램)	4.58	4.35	2.57*	4.33	4.52	4.59	3.88*
특별활동프로그램	4.51	4.40	1.24	4.41	4.32	4.55	6.82**
원장/교사의 전문성	4.70	4.48	2.73**	4.60	4.62	4.70	2.05
급/간식 관리	4.62	4.35	2.90**	4.51	4.60	4.61	0.53
안전관리(시설안전 등)	4.60	4.45	1.64	4.55	4.60	4.60	0.14
이용 비용(보육료 외 추가 비용)	4.55	4.28	2.48**	4.46	4.46	4.55	1.39
연간 운영 일수(휴원 일수)	4.57	4.24	3.20**	4.54	4.50	4.56	0.67
등원 시간	4.61	4.47	1.67	4.64	4.54	4.61	1.12
하원 시간	4.59	4.29	2.78**	4.55	4.53	4.58	0.39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4.46	4.22	2.32**	4.15	4.33	4.48	7.54***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4.58	4.33	2.81**	4.48	4.43	4.59	5.43**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보육환경 부문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고, 보육교사/상호작용 부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보육환경에서는 실내의 놀이공간과 놀이기구 구비, 영아용 가구와 설비 구비, 다양한 보육활동 자료와 교재교구 구비가 각각 평균 4.40점, 4.49점, 4.5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운영관리 부문 중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표 11〉 서비스 영역별 평가_전반

단위: %(명),점

구분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5점)
보육환경							
영아용 가구와 설비 구비 필요도	0.2	0.1	6.1	37.3	56.3	100.0(951)	4.49
실내외 놀이공간/놀이기구 구비	0.2	1.0	9.9	35.7	53.1	100.0(957)	4.40
다양한 보육활동자료/교구교재 구비	0.2	0.0	5.7	36.9	57.2	100.0(953)	4.51
건강영양위생관리							
실내 공간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0.2	0.1	2.5	28.9	68.2	100.0(950)	4.65
놀이감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0.2	0.1	4.1	32.9	62.7	100.0(935)	4.58

구분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5점)
화장실과 세면장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0.2	0.0	4.3	31.4	64.1	100.0(937)	4.59
조리실은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0.2	0.0	3.1	32.7	64.1	100.0(918)	4.60
급간식이 균형있게 제공된다	0.2	0.0	4.5	29.1	66.2	100.0(950)	4.61
급식 및 간식 제공 정보가 매일 공개된다	0.3	0.4	3.8	28.6	66.8	100.0(953)	4.6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	0.2	0.1	2.4	31.6	65.6	100.0(948)	4.62
안전관리							
영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자주 살핀다	0.2	0.0	1.8	33.6	64.3	100.0(948)	4.62
실내의 시설 및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관리된다	0.2	0.0	3.7	34.1	62.0	100.0(939)	4.58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0.2	0.0	3.6	32.2	64.0	100.0(939)	4.60
보육교사/상호작용							
교사는 영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0.1	0.1	1.6	26.7	71.5	100.0(954)	4.69
교사는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0.1	0.1	2.5	28.2	69.2	100.0(954)	4.66
교사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한다	0.1	0.1	3.4	29.1	67.3	100.0(958)	4.64
교사는 부모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	0.0	0.0	2.2	28.1	69.5	100.0(957)	4.67
운영관리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0.0	0.5	7.1	34.3	58.2	100.0(851)	4.50
특별활동비가 적절한 수준이다	0.0	0.1	5.8	35.7	58.4	100.0(918)	4.52
특별활동비 이외 추가비용이 적정 수준이다	0.0	0.2	6.2	32.1	61.5	100.0(921)	4.55
부모에게 전반적인 운영을 공개한다	0.4	0.3	7.6	31.8	59.9	100.0(912)	4.50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0.2	0.2	4.8	35.5	59.3	100.0(936)	4.53
부모참여 일정이 부모를 배려하여 계획된다	0.2	0.3	4.3	34.0	38.8	100.0(949)	4.56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 향후 이용 의향 및 개선 요구

□ 기관 변경 의향 및 사유

- 현재 타 기관에 입소 또는 입학하기를 희망하여 대기 신청을 해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8%였으며, 해당 기관수는 평균 1.4개임.
 - 대기 신청 중인 기관으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기 사유로는 상급반 없음 등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53.3%)를 제외하면, “국공립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높게 나타남.

□ 영아 기관보육 선호 형태

- 자녀가 영아일 때 소규모 기관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4.4%였고, 특히 0세아의 해당 비율은 85.5%로 높게 나타남.
- 소규모 기관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희망 정원수는 평균 15.4명으로 현행 가정어린이집 최대 규모인 20명 보다 적게 나타남.
- 영아만 따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0.1%에 달하고, 다양한 연령이 보육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16.9%에 그치며 해당 비율은 0세아가 14.5%로 낮게 나타남.

〈표 12〉 영아 자녀의 소규모 기관에 대한 선호

단위: %(명)

구분	영아인 경우는 소규모 기관을 더 선호한다	영아여도 대규모 기관을 더 선호한다	기관 규모에 대한 별도 선호가 없다 (기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계(수)
전체	74.4	6.7	19.0	100.0(960)
자녀 연령				
0세	85.5	5.5	9.1	100.0(55)
1세	69.9	10.1	19.9	100.0(366)
2세	75.9	5.0	19.1	100.0(382)
3세 이상	77.1	3.2	19.7	100.0(157)

자료: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개선 요구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개선 요구로는 안전관리, 급간식 관리, 위생관리 강화, 교사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질 제고, 부모참여 활성화, 보육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차원 전반에 걸쳐 제기됨.
 - 운영관리에서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급간식 품질 개선과 식단 정보 공개, 교재 교구 등 청결 및 소독관리 강화도 언급됨.
 - 보육활동 및 프로그램에서는 체험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다양화, 부모와의 소통, 부모 상담, 학부모 참여 수업 등 부모참여와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
 - 보육환경에서는 넓은 보육실 공간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고, 교재교구의 원활한 교체도 언급됨.

- 서비스 이용시간에서는 이른 등원 시각, 시간연장보육 실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

4

정책 제언

가.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 운영 방향

□ 우선지원 대상 및 운영시간

-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반의 영아 특히 0~1세아는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내 보육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므로, 영아 기관보육은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주된 목표로 명료화해야 함.
- 영아보육 위주인 가정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 대상 종일제 보육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재정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이때 특히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주력하여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보장

- 0~1세아의 경우는 소규모 기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므로, 영아 기관보육 형태를 현행보다 소규모화 하는 등 다양화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별 공급 격차를 해소해야 함.
- 0~1세아 위주의 영아 전담 가정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함.
- 영아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를 반영하여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활성화함.

□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의 별도 설치·운영 기준 정비

- 단기 방안으로는 소규모 기관에 부합하는 설치·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함.
- 중장기 방안으로는 가정어린이집에 별도 적용되는 설치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수면실 및 휴게 공간 배치 의무화 등을 위해 현행 기준보다 보육정원수를 하향 조정함.

□ 서비스 질 제고

- 신규 평가인증률 및 평가인증 유지율 제고

- 기관 특성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평가인증 여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인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제고 노력을 기울임.
- 맞춤형 보육컨설팅 지원 강화와 재정지원 연계
 - 가정어린이집의 특성 즉 기관 규모, 재정 운영, 인력 배치 등 운영 상황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가정어린이집 담당 컨설턴트를 별도 양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컨설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과 재정 지원간의 연계를 강화함.
-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 특성상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배치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관련 서비스의 지역사회내 연계를 강화함.
 - 부모참여 부문의 만족도가 낮으나, 기관 특성상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관 기관내 프로그램 연계 및 공간 활용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함.

나.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 보육환경 개선

- 소규모 공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혼합연령반 보육실 구성은 물론, 보육실 외 환경 구성 및 관리를 포괄한 보육환경 전반의 별도 지침을 개발·보급함.
- 소규모 보육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질 제고를 기하는 우수사례들을 매년 발굴하여 사례집을 제작·보급함.
 - 이때 기관규모별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연령별 반 구성 등 아동 연령별 접근이 부각되도록 다양한 사례를 포괄함.
- 현재 교구교재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개소 당 연간 평균 1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이때 0~2세아는 우선 지원함.

■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보조인력 지원 등

- 현재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 5천원을 지원하나,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한 인력 배치 기준 등을 새롭게 모색함.

- 현행 종일제 보육을 위주로 할 경우 일과 운영상 보조교사 1인 4시간 지원은 종일제 일과 운영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종일반 운영 비율이 높은 기관 등 종일제 보육 기관을 중심으로 보조교사 지원을 강화함.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 조리원의 월평균 급여는 55만 원선으로 나타나므로(이미화 외, 2016: 193),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평가인증 기준 등을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조리원이나 사무원 등 이외 보육교직원이 부재한 기관도 많은 실정이므로, 교사의 고유 업무인 보육활동에 소홀하지 않으려면 보육교직원의 전반의 효율적인 배치 및 역할 분화가 절실히 요구됨.
 - 보육교직원 배치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되, 이때 원장이 겸직하는 반의 교사 배치, 연령별 교사 배치 요령, 교사의 역할 분화는 물론, 교사 재교육 실시 계획까지 포괄함.
 - 보육교직원 업무 분장표를 매년 작성하되, 모든 보육교직원이 협의를 통해 마련함.

■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제고

- 가정어린이집 영아교사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보육하는 아동의 비중이 높아 상호 작용 역량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보육과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인력으로 외부 기관의 재교육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재교육을 활성화함.
- 영아 기관보육의 선택 시는 원장과 교사가 일차적으로 중요시되므로 이들의 상호작용 역량 제고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과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함.
- 보수교육의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행 40시간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강화함.
-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모임 신청란을 마련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통보한 후,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여 활성화함.

■ 부모참여 및 가정과의 연계 지원 강화

-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센터는 물론 지역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모참여 프로그램 개최 정보를 매월 구축하고,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정보를 매월 확인,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어린이집의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간 대여 신청 시스템을 운영함.
 - 부모 모니터링단에서는 주로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므로 이때 모니터링 결과는 필요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함.
- 지역사회내 건강영양위생/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
-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가정어린이집 인가 시에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수행 시에는 해당 도 센터에서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지하여 급·간식 재료 구입이 원활하도록 지원함.
 - 영아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소나 국립의료기관의 간호사 파견서비스를 제공하되, 영아반을 위주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함.
 - 지역내 보건소를 대상으로 가정어린이집의 건강·영양·위생관리 컨설팅을 심화 단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와의 이동상의 어려움 등의 제약으로 안전관리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군·구에서는 지역내 소방서 등에서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업무 협조 시에 적용 대상 연령 제한 등을 점검하여, 소규모 기관 및 영아 대상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내 공동유희실 확충
- 가정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를 구비한 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내 놀이공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내 놀이체험 프로그램(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권장함.
 - 가정어린이집 밀집 지역에서는 실외놀이터와 실내유희실이 미흡한 가정어린이집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함.

참 고 문 헌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아규림·이민경(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11

BSC 모델 지표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이 윤 진 | 연구위원

1. 누리과정 정책 평가의 필요성
2.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 개발
3.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평가
4. 누리과정 정책의 향후과제

BSC 모델 지표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이 윤 진 | 연구위원

요 약

- 2012년에 도입된 누리과정 정책이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누리과정 정책의 전반적 이면서도 면밀한 평가는 미흡함. 누리과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
- BSC 모델(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평가지표들을 개발함. 정부가 발간한 누리과정 관련 보도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비전, 4개 관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KPI)를 추출함.
- 누리과정 정책 비전은 ‘국가책무성 강화’와 ‘생애출발선 평등’이며, 4개 관점 및 7개 전략목표, 15개 성과목표, 29개 KPI를 도출함.
- 29개 KPI를 평가한 결과 달성 9개, 부분 달성 12개, 미달성 8개로 나옴.
-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관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국공립 기관 확충,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 강화(국고지원 또는 교부금을 인상)를 공정한 생애출발선 보장이란 측면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재설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항목 중심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재산정, 공통과정 개정 시 충분한 협의의 시간 확보,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수준 완화 및 중장기적으로 통합 양성을 제안함.

1 누리과정 정책 평가의 필요성

가. 배경

- 어떤 정책이든 도입 취지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고는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이 수행한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정책이 목표대비 달성되고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는 없었음. 또, 정기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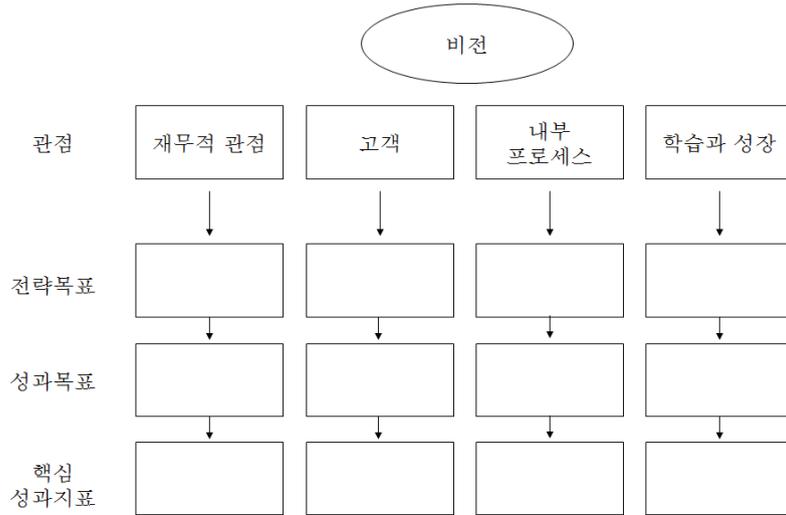
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지표(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각 세부 내용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2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 개발

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 모델 이론

- 누리과정 정책 평가를 위해 분석틀로 BSC 모델 이론을 활용함.
 - BSC 모델 이론은 재무적 관점뿐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 평가를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옴.
- BSC 모델 개발과정
 - BSC 모델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상위단계인 비전을 설정하는 것임. 다음으로 4개의 관점, 전략목표(중·장기 목표), 성과목표(단기 표), 핵심성과지표(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 순으로 정함.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p.67.

[그림 1] BSC 모델의 구성 요소

나. BSC 모델 적용 성과지표 개발

- 정부가 발행한 누리과정 관련 보도자료에서 각 영역의 지표를 구성하는 주요 용어들을 추출함.
- 비전 추출
 - 정부가 2011년에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은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이며, 2012년 보도자료 제목은 ‘만 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 공통과정 적용,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비·보육료 지원’임.
 - 이상 두 개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누리과정 정책 평가를 위한 비전으로 ‘국가 책무성 강화’와 ‘생애 출발선 평등 보장’을 추출함.
- 4개 관점 추출
 - 고객관점: 누리과정 정책의 고객은 ‘유아’와 ‘학부모’로 설정함.
 - 재무관점: 누리과정 정책의 재무는 누리과정의 예산(재정)으로 설정함.
 - 내부 프로세스 관점: 누리과정 정책을 집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해당함.
 - 학습과 성장 관점: 누리과정 정책이 안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가 해당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추출

- 총 7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함.
- 고객관점의 전략목표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유아 고객) 및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학부모 고객)의 2개 전략목표를 추출함. 성과목표는 ①지원대상 확대 ②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③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 보편적 지원 ④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⑤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도출함.
- 재무관점의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정 확보’이며 성과목표로는 ⑥재원의 충분성과 ⑦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추출함.
-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전략목표는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 적절성’이며 성과목표는 ⑧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⑨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 ⑩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을 추출함
- 학습과 성장 관점의 전략목표는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3개를 설정함. 이에 따른 성과목표로는 ⑪법령 및 재정의 안정화 ⑫유아의 역량 강화와 ⑬교사의 역량 강화 ⑭공립유치원 확충 및 수용능력 확보 ⑮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를 추출함.

■ 핵심성과지표 추출

- 각 성과목표에 입각하여 총 29개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 KPI)를 추출함.

3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평가

- 핵심성과지표 결과를 달성, 부분달성, 미달성 3단계로 평가함. 목표 대비 달성 여부가 명확한 것은 달성, 미달성의 평가가 확실함. 그러나 달성과 부분달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 기관종류와 설립유형에 따라 교육·보육 서비스의 차이가 없으면 ‘달성’ 차이가 있으면 ‘부분달성’으로 평가함. 이는 모든 유아가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누리과정 정책 목표를 준거로 한 것임.

가. 고객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 연도별 누리과정비 수혜 유아 비율 변화 → **달성**

-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 2012년부터 상승하다가, 만 3~5세 유아 전체에게 지원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100% 지원받음. 따라서 해당 성과지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표 1〉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아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율(2010~2015)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어린이집	71.25	75.24	80.34	100.53	100.21	99.97
유치원	58.86	51.90	81.01	102.06	103.18	102.44

주: 100%가 초과한 이유는 현원수는 만 5세 기준, 지원수는 만 5세 이상 지원 유아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변화 → **미달성**

- 학부모가 기관에 추가로 내는 비용변화(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 제외)를 분석해 보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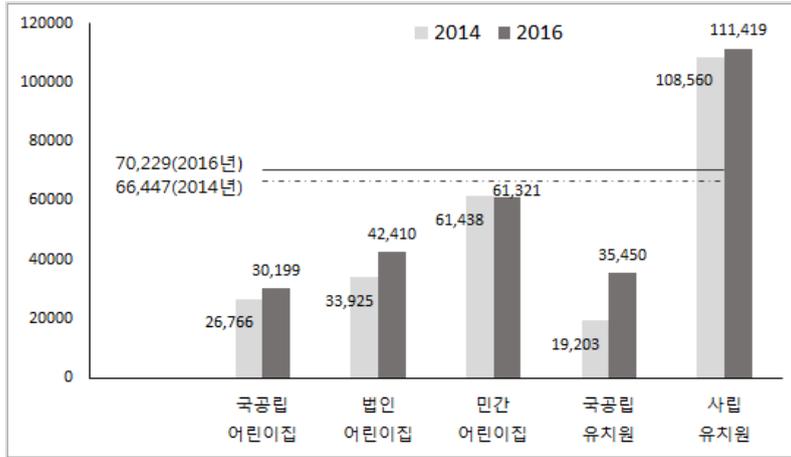
〈표 2〉 어린이집·유치원에 지불하는 월 평균 추가비용 변화(2013~2015)

단위: 원(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월평균 총계	62,984	59,915	(1,441)	66,447	58,653	(1,924)	70,229	(62,466)	(980)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p.85 표를 재구성.

- 유아가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학부모의 추가비용 차이가 크므로 동일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원받더라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차이가 큼(그림 2 참조).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87.

[그림 2] 2014·2016년 기관종류·설립유형별 월 평균 추가 비용 변화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및 만족도 → **부분달성**

-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이며 2014년 3.24점에서 2016년 3.25점으로 약간 상승함(표 3 참조). 그러나 기관종류 및 설립유형에 따라 도움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도움 정도가 낮으며 유치원 중에서도 사립유치원이 도움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누리과정 비용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2014년·2016년)

단위: %(명), 점(4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0	10.5	48.1	39.4	100.0(1,000)	3.25(0.72)	
기관종류							
유치원	2.2	12.3	49.7	35.9	100.0(502)	3.19(0.73)	6.16*
어린이집	1.8	8.8	46.6	42.9	100.0(498)	3.31(0.7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1	7.6	50.9	40.3	100.0(142)	3.30(0.66)	4.22**
사립유치원	2.6	14.1	49.2	34.1	100.0(360)	3.15(0.75)	
국공립어린이집	2.3	6.2	43.7	47.7	100.0(128)	3.37(0.71)	
법인어린이집	0.0	7.4	42.8	49.7	100.0(89)	3.42(0.63)	
민간어린이집	2.1	10.3	49.1	38.5	100.0(281)	3.24(0.72)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0.4	9.3	56.7	33.6	100.0(1,924)	3.24(0.63)	-0.97
2014 유치원	0.4	9.6	57.4	32.6	100.0(940)	3.22(0.62)	
어린이집	0.4	8.9	56.0	34.7	100.0(984)	3.25(0.63)	

주: 평균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에 도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96-97.

* $p < .05$, ** $p < .01$, *** $p < .001$

□ 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률 확대 현황 → **달성**

- 누리과정 도입 후 만 3~5세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이 도입 이전 대비 모두 상승함.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90% 전후의 높은 기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해당 핵심성과지표는 달성했다고 평가함.

〈표 4〉 만 3~5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1~2015)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만 3세 기관이용률	87.0	87.4	84.5	88.7	89.5
만 4세 기관이용률	76.8	90.8	93.6	85.7	90.8
만 5세 기관이용률	82.7	81.1	94.0	94.5	92.9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103-104.

□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 **부분달성**

- 교사의 80.2%(대체로 개선 + 많이 개선됨)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기관종류 및 설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교사가 개선에 대한 평가가 낮았으며 유치원 중에서도 공립과 사립법인유치원이 낮게 나옴.

〈표 5〉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과정 개선정도: 교사응답

단위: %(명), 점(4점)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었음	많이 개선 되었음	계	평균	$\chi^2(df)$
전체	2.2	17.6	64.3	15.9	100.0(1,000)	2.9(0.6)	
기관종류							
유치원	4.8	25.2	55.4	14.6	100.0(345)	2.8(0.7)	42.92(3)***
어린이집	0.8	13.5	69.0	16.7	100.0(655)	3.0(0.6)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었음	많이 개선되었음	계	평균	$\chi^2(df)$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5.5	42.1	37.1	15.3	100.0(19)	2.6(0.8)	
공립병설유치원	7.0	23.5	54.5	15.0	100.0(162)	2.8(0.8)	
사립법인유치원	2.7	36.2	61.1	0.0	100.0(31)	2.6(0.6)	
사립사인유치원	2.5	22.4	57.7	17.4	100.0(133)	2.9(0.7)	69.73(18)***
국공립어린이집	0.7	7.4	68.7	23.2	100.0(110)	3.1(0.6)	
법인어린이집	0.4	10.4	72.9	16.4	100.0(220)	3.1(0.5)	
민간어린이집	1.2	17.7	66.5	14.7	100.0(325)	2.9(0.7)	

주: 평균 수치가 높을수록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106.
 *** $p < .001$

□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 **부분달성**

- 급·간식, 기관의 시설 환경, 교재·교구 교체 등에서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관종류,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개선 점수가 좀 더 높음.

〈표 6〉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정도: 교사응답

단위: 점(4점), (명)

	급·간식	기관의 시설 환경	남고 오래된 교재·교구 교체	사례수
전체	3.0	3.0	3.1	(1,000)
기관종류				
유치원	3.0	2.9	3.0	(345)
어린이집	3.1	3.0	3.2	(655)
<i>t</i>	0.86	4.90*	16.11***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2.8	2.9	3.2	(19)
공립병설유치원	3.0	2.7	2.9	(162)
사립법인유치원	3.0	2.9	2.8	(31)
사립사인유치원	3.1	3.0	3.1	(133)
국공립어린이집	3.1	3.2	3.3	(110)
법인어린이집	3.0	3.0	3.2	(220)
민간어린이집	3.1	2.9	3.1	(325)
$\chi^2(df)$	0.67	3.38**	6.41***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정도가 높은 것임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108.
 * $p < .05$, ** $p < .01$, *** $p < .001$

□ 교사의 처우 개선 → **부분달성**

- 교사의 호봉 및 재직기간 등에서 기관종류 및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서 부분달성으로 평가함.

나. 재무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 재원 확보 및 편성현황 → **부분달성**

-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부터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으로 일원화됨. 그러나 국내세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정부가 상위 법률과 불일치한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시도교육청에 의무화하면서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
 - 국회는 2016년 12월에 향후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전체 비율의 78%는 교부금에서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통과시킴.¹⁾

□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 **미달성**

-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매년 증액하여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에 22만원으로 증액한 후, 현재까지 동결함(표 7 참조).

〈표 7〉 누리과정 지원금 계획과 현황

단위: 만원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17.7	20	22	24	27	30
현황	17.7	20	22	22	22	22

자료: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p.2.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 **미흡**

-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무상교육·보육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책정한 명확한 근거와 사용범위(용도)를 제시하지 않았음.
 - 다만,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기본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비용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해당원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항목에 지원할 것을 권고함.

1) 5월 조기대선으로 들어선 새정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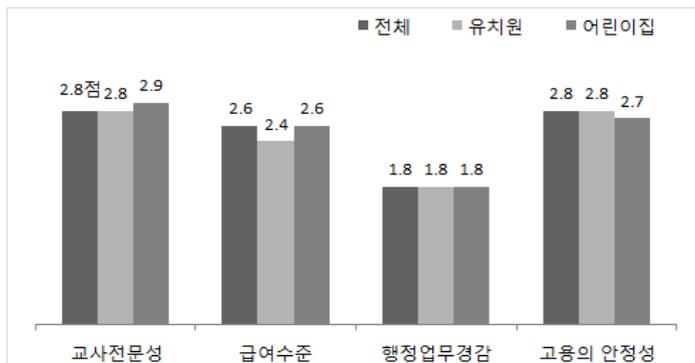
- 법상으로는 무상교육·보육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육·보육비 기준은 해당 부처 장관이 정하도록(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되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2015년 기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에 비추어볼 때, 월 22만원은 애매한 단가임.

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 공통과정 계획 대비 제정 시행 여부 → **달성**
-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 **미흡**
 - 공통과정 제정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이었음.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81.0%가 적절하지 않으며 95.0%가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응답함.
-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상설기구(운영위) 설치 여부 → **미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 교부금의 편성·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감과의 합의뿐 아니라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갈등 발생 시,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음.
 -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는 “없다”는 응답이 90%(n=90)임.
-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협의회 등 개최 실적 → **미달성**
 - 협의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담당 공무원 대상(n=10)으로, 2016년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참여한 갈등 상황에서도 회의 개최는 1회라고 응답함.
-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 **달성**
 - 정부는 누리과정을 일일 4~5시간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5.15시간으로 집계됨(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응답 기준).
- 방과후 과정(비) 정부 지침 준수 → **부분달성**
 - 방과후 과정(비)은 일일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월 7만원을 지원함.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는 유아의 일일 이용시간은 약 7.97시간으로 집계됨(학부모 응답 기준).
 -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는 대부분 기본교육과정이 끝난 후 오후에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는 54.0%가 오후에 운영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94.2%가 오후에 응답하고 하여 차이를 보임.

라. 학습과 성장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 누리과정 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 **미달성**
 - 상위 법률과 상충된 시행령 개정 없이, 미봉책 차원의 한시적인 특별회계법을 도입함.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화 → **미달성**
 -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미비
- 누리과정의 유아발달의 도움 정도 → **부분달성**
 - 2012년에 개발한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이미화 외, 2012)를 활용하여 2013년에 유아 만 5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만 5세 유아가 일반 가정의 유아보다 누리과정을 통해 발달적 측면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 **달성**
 - 정부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누리과정을 담당하지 않도록 함. 2016년 누리과정 담당 교사 중 보육교사 3급 소지자는 0.02%에 불과함.
-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처우 개선 → **부분달성**
 - 누리과정 도입 후, 교사의 전문성, 급여 수준, 안정적인 고용은 개선되었으나, 행정업무는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남.
 - 교사의 전문성, 교사 급여 수준은 어린이집 교사가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 안정적 고용은 유치원 교사가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162-165 표를 재구성함.

[그림 3] 누리과정 담당 교사 처우 개선 정도

- 누리과정 교사 연수 이수 여부 → **달성**

 - 미이수자는 1.7%에 불과함.
-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 여부 → **부분달성**

 - 2012년, 2013년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방법은 대체로 적절하지만(김은설 외, 2012:84; 양미선 외, 2014:84, 91), 대형강의식 연수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립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 **달성**

 - 교육부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치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증설(244학급), 26개 단설유치원 신설 및 163학급 증설을 발표함.
 - 2012년 기준으로 단설유치원에 167개에서 2016년 305개로 4년 동안 138개를 설립하고, 학급수도 동 기간 동안 1,257개 학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계획보다 초과달성함.
 - 병설유치원도 2012년에 4,355개에서 2016년에 4,388개로 33개가 증가하였으며 학급수는 7,004학급에서 7,492학급으로, 488학급이 증가하여 정부 계획보다 초과달성함.
-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 **달성**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가 2012년에 11,231개(전체 어린이집의 27.6%)에서 2016년에 17,145개(전체 어린이집의 40.2%)로 꾸준히 증가함.
-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 **부분달성**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해 동의 정도는 2.7점으로 나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대도시 거주 학부모는 이보다 낮은 2.6점임.
-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 **부분달성**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이 1순위로 선택한 기관인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약 76%로 나타남.
 -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집단에서 1순위 기관이 “아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 집단에서 1순위 기관이 “아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학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은 국공립임을 유추할 수 있음.

〈표 8〉 1순위 기관 재원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chi^2(df)$
전체	75.5	24.5	100.0(1,000)	
기관종류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9.2	10.8	100.0(142)	
사립유치원	71.2	28.8	100.0(360)	
국공립어린이집	80.3	19.7	100.0(128)	31.86(4)***
법인어린이집	85.3	14.7	100.0(89)	
민간어린이집	68.6	31.4	100.0(281)	
지역규모				
대도시	68.7	31.3	100.0(427)	
중소도시	77.3	22.7	100.0(422)	27.33(2)***
읍면지역	89.4	10.6	100.0(151)	

자료: 이윤진 외(2015).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179-180.

*** $p < .001$

4 누리과정 정책의 향후과제

가. 고객관점의 향후과제

- 유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음. 저소득 가정의 유아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추가 비용 지원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기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기관을 확충해 나감.
 - 「영유아보육법」에 「유아교육법」제17조(유아수용계획)에 상응하는 (영)유아수용계획 법 조항 신설을 제안함.

나. 재무관점의 향후과제

- 누리과정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새정부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학부모(58.7%)와 교사(67.7%) 대상 설문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정책적 결정임.
 - 그러나 유보통합 관점에서 볼 때, 법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교부금으로 재정을 일원화했던 것에서 다시 교부금(유치원)과 국고(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음.
- 누리과정 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공정한 생애출발선 보장’이란 누리과정 정책비전에 견주어 볼 때,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타당할 수 있음. 월 30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22만원은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8만원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누리과정 지원금 단가 재산정

- 유아가 어느 기관을 다녀도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을 정하고, 공통항목 중심으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재산정함.

다.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향후과제

■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

- 공통과정 개정 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최소 1년 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수렴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방과후 과정(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재검토가 필요함.
 - 방과후과정비는 오후 돌봄이 필요한(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주양육자가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유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제안함.

라. 학습과 성장관점의 향후과제

- 공통과정의 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목적은 유아 개인 평가는 지양하고, 공통과정 개정에 필요한 피드백을 위해 실시함.
-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전담 인력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수준의 표준화

- 어린이집 교사의 교사연수 실적이 유치원 교사에 비해 적음.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과정을 통합함.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1. 18.). 만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공통과정 적용,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이규림·윤지연(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연구보고 2016-26.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12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최 은 영 | 연구위원

1. 배경
2. 공공성에 대한 인식
3.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의견
4. 쟁점 및 과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최은영 | 연구위원

요약

- ‘공공형 유치원’이란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공적 유아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유치원을 의미함(김영옥 외, 2013).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 본 고에서는 공적 기능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의 의견을 분석하여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함.

1 배경

- 유치원 신규 증설 비용은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준공영제 수준으로 하는 것보다 큼(김영옥·이기숙·신은수·문미옥·박은혜·장명림·정미라·이화룡·조부경·우명숙·문무경·조형숙·최윤정·김진영·김은영·서현, 2013).
- 따라서 재정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존 사립유치원 중 우수 기관에 대해 공립수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지원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옴.
- 또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원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 서울시 공립유치원 경쟁률은 낮게는 3대 1에서 높게는 10대 1을 넘는 경우도 있음(MBN, 2015. 12. 3).

* 본 글은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수시과제인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최은영·박창현·송신영, 2016)’ 연구의 데이터를 일부 재분석하여 제시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립과 공립유치원은 4,678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5)으로 전체 유치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8%는 사립유치원임.

 - 사립유치원의 대다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인으로 3,752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5)으로, 이는 전체 유치원의 42%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6%만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유치원 수로는 국·공립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공공 인프라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은 1, 2학급으로 초등학교에 병설된 소규모 유치원으로 실제 공립유치원의 원아수용률은 약 20% 정도임.
 -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수를 비교하면, 공립유치원 재원 유아는 161,339(23.6%)명,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는 521,214(76.4%)명(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5)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의 비율이 공립보다 월등히 높음.
- 2013년 발표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 체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가 제안된 바 있는데, ‘공공형 유치원’이란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공적 유아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유치원을 의미함(김영옥 외, 2013).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 본 고에서는 공적 기능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조사하여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공공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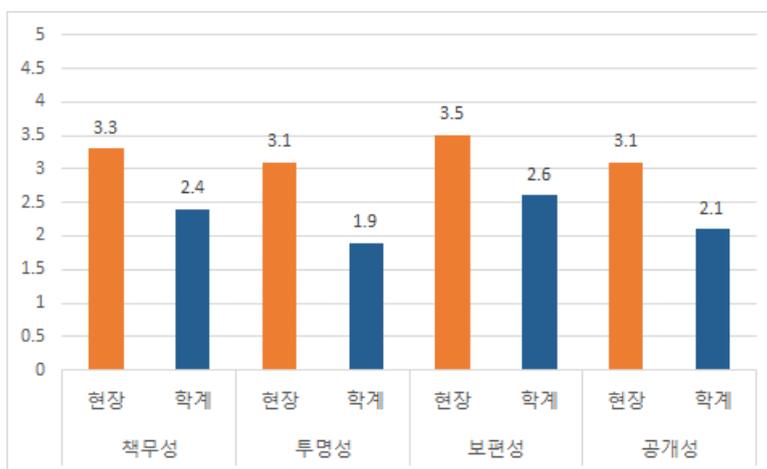
- 현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책무성과 투명성, 보편성, 공개성을 중심으로 원장과 원감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105명, 교수로 구성된 학계전문가 51명에게 질문함.

- 전반적으로 현장전문가에게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학계전문가에 비해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학계전문가는 보편성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투명성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평균 1.9점)로 상당히 높았음.

〈표 1〉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공공성 요소	대상	낮음 ←-----→ 높음				계(수)	$\chi^2(df)$	평균	t
		①	②	③	④				
책무성	전체	9.6	21.8	26.9	41.7	100.0(156)	23.2(3)***	3.3	5.4***
	현장	6.7	13.3	24.8	55.2	100.0(105)			
	학계	15.7	39.2	31.4	13.7	100.0(51)			
투명성	전체	19.2	23.7	21.8	35.3	100.0(156)	44.4(3)***	3.1	7.6***
	현장	6.7	20.0	25.7	47.6	100.0(105)			
	학계	45.1	31.4	13.7	9.8	100.0(51)			
보편성	전체	4.5	19.2	31.4	44.9	100.0(156)	na	3.5	6.6***
	현장	3.8	7.6	27.6	61.0	100.0(105)			
	학계	5.9	43.1	39.2	11.8	100.0(51)			
공개성	전체	13.5	26.3	27.6	32.7	100.0(156)	33.1(3)***	3.1	6.3***
	현장	7.6	18.1	28.6	45.7	100.0(105)			
	학계	25.5	43.1	25.5	5.9	100.0(51)			

*** $p < .00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그림 1〉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정도에 대한 인식

- 이 같은 응답 경향은 각 응답별 비율 뿐 아니라 평균 비교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남.

 - 현장전문가의 책무성, 투명성, 보편성, 공개성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은 각각 3.3점, 3.1점, 3.5점, 3.1점인데 반해, 학계전문가는 2.4점, 1.9점, 2.6점, 2.1점에 불과함.
 - 공공성의 요소별로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보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전문가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학계전문가는 투명성을 가장 낮다고 평가함. 이러한 결과는 사립유치원 운영 당사자와 외부 시각차가 극명함을 보여줌.
- 유치원 설립유형, 지역규모에 따라 유치원의 공공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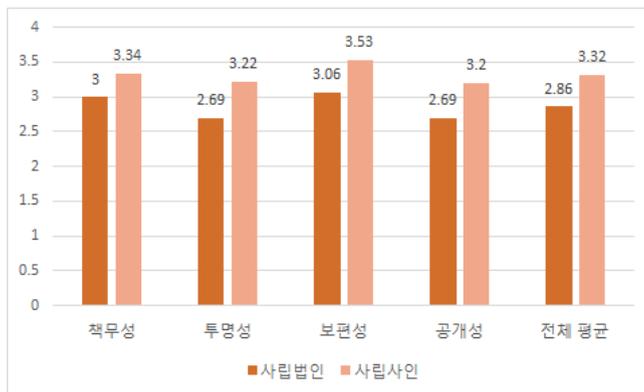
 - 책무성, 보편성, 공개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립법인과 사립사인 유치원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사립사인 유치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투명성에 대한 사립사인 유치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유아교육선진화 정책 도입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유치원운영위원회, 정보공개제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등)이 추진된 결과로 인해 이전보다 투명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정도에 대한 인식: 설립유형별

단위: 점

대상	책무성	투명성	보편성	공개성	전체 평균
사립법인	3.00	2.69	3.06	2.69	2.86
사립사인	3.34	3.22	3.53	3.20	3.32
<i>t</i>	-1.222	-2.083*	-2.190	-1.986	-2.127*

* $p < .05$



〔그림 2〕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정도에 대한 인식: 설립유형별

-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치원의 공공성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정도에 대한 인식: 지역규모별

단위: 점

대상	책무성	투명성	보편성	공개성	전체 평균
전체	3.29	3.14	3.46	3.12	3.25
대도시	3.42	3.31	3.53	3.29	3.39
중소도시	2.97	2.83	3.20	2.80	2.95
읍면	3.38	3.13	3.69	3.13	3.33
F	3.026	2.520	2.446	2.518	2.608

3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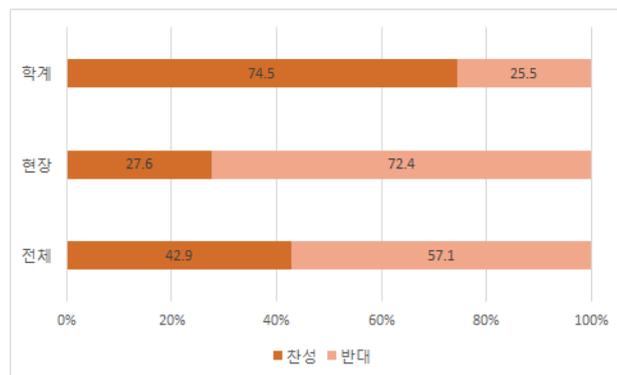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질문함.

- 학계전문가의 74.5%가 도입에 찬성한 반면, 현장의 72.4%는 반대 의견을 보여 두 집단 간의 견해차가 극명함을 알 수 있음.

〈표 4〉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찬반 여부

단위: %(명)

대상	찬성	반대	계(수)	$\chi^2(df)$
전체	42.9	57.1	100.0(156)	
현장	27.6	72.4	100.0(105)	30.8(1)***
학계	74.5	25.5	100.0(51)	

*** $p < .001$ 

[그림 3]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도입 찬반 여부

- 제도 도입 반대 이유로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 국가재정 투입만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업무 과중 우려 등을 제시함.

〈표 5〉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반대 이유

대상	반대 이유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수만 늘어 국가재정만 낭비됨. • 사립의 사립만의 정통성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되어야 사학의 존재의 이유임. 사학이 공공성을 체크받는 순간부터 사학의 빛나는 전통이 사라짐. • 사립의 자율성이 확립되었을 때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공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지금도 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 심각.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행정서류의 과부화와 획일화된 교육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말살시킴.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의 본질: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 감수하고 자녀를 보내는 기관임. • 사립은 사립의 역할이 있고, 공립은 공립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가 모든 교육을 책임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은 또 다시 불투명한 예산을 만들게 됨. • 사립에 공적재원 투입만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되지 않음. • 개인의 사유재산에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공공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고, 교육운영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함. • 원의 특수성,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여 자율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적임. • 예산부족의 이유로 교육과 환경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4 쟁점 및 과제

가. 쟁점

1) 사립유치원과 공공성 개념의 공존 가능성

- 정부는 2009년 유아교육선진화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 평가, 유치원 회계설치, 정보공시 제도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와 더불어 유치원 평가 등과 같은 질 관리 기제를 통해 유아교육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음.

-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원장(감), 교사, 학부모들은 투명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논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개인 소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기관(공립과 사립)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음.
- 이상의 논의들은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2)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통한 기관 간의 질적 격차를 완화 가능성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떠한 역할이 적절한가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즉, 정부가 현물로 직접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과 서비스는 민간(영리 또는 비영리)이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음(김중해, 2011; 59).
-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는 국·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질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유아교육비 지원이 반드시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함.
- 그러나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기관 간의 질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3)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공적 인프라 기능

- 민간시설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시설 확충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차적인 방안으로 민간시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됨(장영인, 2015).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학계전문가의 경우, 국가의 재정투입만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 한편 유사 공공형 제도로부터 경험한 공공형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질 높은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기관 선택의 당사자인 학부모의 다양한 시각은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와 관련하여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사립유치원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가 법조문 형식으로 민간 부분에 의한 유아교육 시설 운영을 지나치게 공익만을 중시한 투명성을 요구하기보다 실제 유아교육에 투입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명성이나 공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노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헤럴드경제, 2015. 5. 15).

나. 과제

1) 지역별 수급을 고려한 공립유치원 확충과 병행

- 김종해(2011)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공적 재원의 비용 분담만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공적 전달체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결합될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장영인(2015)은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전제되어야 하며,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리적 접근성이나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들(주변의 평판 등)도 있어 아동의 이익에 반하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함.
-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유치원의 지역별 공급 분포를 고려하여 일부 취약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보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2) 재정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 외국의 경우, 민간시설에 대한 질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영리시설과 영리시설 간의 질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일정한 질적 요건을 충족한 영리기관에 한하여 비영리기관과 동일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임(김인경, 2012).
- 보편주의 보육정책을 채택하는 일부 유럽 선진국들도 효율성의 관점에서 영리, 비영리시설 구분 없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장영인, 2006).

- 이상의 논의들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제대로 투자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만 재정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3) 사립유치원의 단계적 법인화

- 선행연구들은 개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하기도 함(송기창, 2004).
- 그러나 유치원의 법인화는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 규제 및 법적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일본의 경우,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은 先재정지원, 後법인유도라는 흐름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법인화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후속 조항을 만들어 추진함(김병주, 2005).
- 법인화되었거나 법인화를 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립유치원이 현실적으로 법인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함(고영미·이기섭, 2007).

4) 자율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검토

- 정부 주도의 질 개선효과는 투입재원 규모에 비해 낮은 것이 공공부분의 속성이므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규제를 철폐해야 한다(현진권, 2005)고 보는 입장도 있음.
- 또한 이윤추구 동기가 강한 민간시설은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질 개선 및 비용절감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김인경, 2012)고 주장하기도 함.
-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 공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감독(교육과정 운영 등)을 하여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만을 하고 있음. 사립유치원은 태생적으로 개인자본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학부모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이에 정부지원 없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 관리감독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허용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고영미·이기섭(2007). 쟁점연구: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87-109.

김병주(2005).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60, 교육인적 자원부.

김영옥·이기숙·신은수·문미옥·박은혜·장명림·정미라·이화룡·조부경·우명숙·문무경·조형숙·최윤정·김진영·김은영·서현(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광주광역시교육청.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2-2.

김종해(2011).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 월간 복지동향, 152, 58-63.

송기창(2004). 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 열린유아교육연구, 9(3), 219-238.

장영인(2006).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쟁점분석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51-279.

장영인(2015). 민간어린이집 보육재정지원에 관한 쟁점 연구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5, 53-7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5). 교육통계연보.

현진권(2005). 보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재정논집, 19(2), 177-202.

[신문기사/보도자료]

헤럴드경제 보도자료(2015. 5.15.).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사립유치원 허용해야.

MBN 보도자료(2015.12. 3.). 대입보다 치열... 공립유치원 추첨 열기 '후끈'

이슈페이퍼 2017-13

다문화유치원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 방안

문 무 경 |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다문화유치원 기본현황 분석
3. 다문화유치원 운영실태 분석
4. 다문화유치원 지원 방안

다문화유치원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 방안*

문 무 경 | 선임연구위원

요 약

- 교육부는 유치원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학습 맞춤형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고자 2015년부터 30개의 다문화유치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60개원을 추가하여 총 90개원으로 확대 운영함. 이 중, 2015-2016년도 연속 운영기관은 13개원임.
- 2015년도에 다문화유아 대상 개별언어교육을 실시한 시범기관은 총 21개원(70%), 2016년도의 60개원 중 31개원이 실시함. 2015년 및 2016년 모두 다문화 유아수가 10명이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중이 더 높으며, 주로 언어강사(40.0%)와 담임교사(34.6%)가 실시함.
- 다문화이해교육은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생활주제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다문화 관련 교사교육은 원격 연수, 동료장학, 문화 연수 등이 실시됨.
- 다문화유치원 사업비는 주로 교구 구입비와 체험활동비로 많이 사용됨. 사립유치원은 체험학습활동 비용, 공립유치원은 교구구입비 비중이 높음. 다문화유아 수가 많을수록 개별언어교육 비용을 많이 사용함.
- 다문화유치원 운영 지원 방안으로 다문화 유아의 개별언어교육 강화, 다문화 유아 담당경력에 따른 교사연수 세분화, 다문화 부모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연계를 제안함.

* 본 이슈페이퍼는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수시과제인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방안 연구」(문무경, 최효미, 이민경)를 토대로 작성됨.

1 서론

- 교육부(2016)는 유치원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학습 맞춤형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고자 2015년부터 다문화유치원 30개원을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2개 지역에서 60개원으로 확대함.
- 다문화유치원 시범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유치원의 다문화 이해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 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015년도에는 5개 지역(경기, 경남, 서울, 전남, 충남)에 한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총 12개 시·도에서 운영함.
- 다문화유치원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아들의 언어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다문화 유아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누리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유아의 언어 발달 지원
 - 일반 유아 및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유치원의 부족한 인력 및 자원 활용
- 본 고에서는 다문화유치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다문화유치원 운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총 77개 다문화유치원(2015년도 30개 시범기관, 2016년도 60개원, 이 가운데, 2015-2016년도 연속 운영기관은 13개원임)의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를 분석함¹⁾(교육부 내부자료, 2015 & 2016).
 - 이외에 다문화유치원 총 50개원에서 교사 13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일부 활용함.

1) 이외에 설문조사, 사례조사,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였으나, 지면관계상 본고에서는 연간 활동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문화유치원의 결과보고서(2015) 및 계획보고서 (2016)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언어교육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함.

2 다문화유치원 기본 현황 분석

- 2015년 기준, 다문화 원아가 1~4명인 다문화유치원은 4개원(13.3%), 5~9명인 기관은 14개원(46.7%), 10명 이상인 기관은 12개원(40.0%)임.
- 2015년과 2016년에 다문화 원아가 10% 미만인 다문화유치원은 각각 11개원(36.7%)과 28개원(48.3%), 10~20%인 기관은 각각 7개원(23.3%)과 14개원(24.1%), 20~30%인 기관은 6개원(20.0%)과 7개원(12.1%), 30% 이상인 기관은 각각 6개원(20.0%)과 9개원(15.5%)임.

〈표 1〉 다문화 원아수별 시범사업 참여 다문화유치원

단위: 개원, %

구분	2015년		2016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30	100.0	59	100.0
1~4명	4	13.3	13	22.0
5~9명	14	46.7	24	40.7
10명 이상	12	40.0	22	37.3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다문화 원아수를 제출하지 않은 1개원은 결측치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5.

가. 다문화 유아 현황

-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문화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2015년 기준 전체 2,415명이었으며, 이 중 13.3%인 322명이 다문화 가정 유아였음.
 - 2016년도에는 총 5,125명의 유아 중 11.0%인 563명이 다문화가정 유아임.
-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2015년도에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다문화 유아 비중이 4.1% 포인트 가량 많았으나, 2016년도에는 공립과 사립 모두 전체 원아의 10% 내외가 다문화 유아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3세반에 다니는 유아는 58명, 4세반 117명, 5세반 121명이었으며, 2016년 기준 3세반 112명, 4세반 183명, 5세반 219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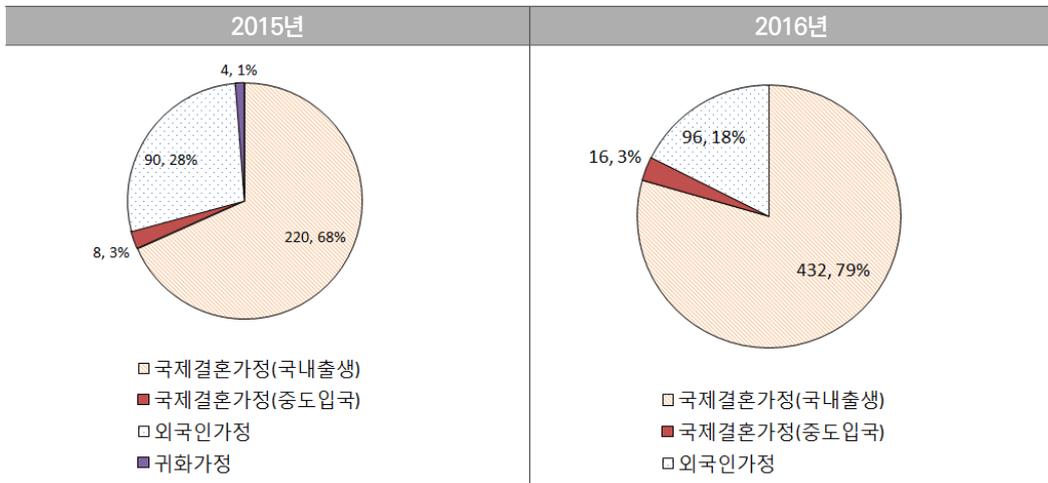
〈표 2〉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다문화 유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전체 유아수	다문화 가정 유아수	다문화 유아 비중	전체 유아수	다문화 가정 유아수	다문화 유아 비중
전체	2,415	322	13.3	5,125	563	11.0
공립	1,918	272	14.2	4,014	452	11.3
사립	497	50	10.1	1,111	111	10.0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8.

- 2015년도 다문화 유아의 68%인 220명이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국내출생 자녀임.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9.

〔그림 1〕 다문화 가정 특성별 유아 현황

나. 다문화유치원 교·강사 현황

- 2015년 시범사업 참여 유치원의 교원 수는 총 302명, 2016년에는 총 620명임. 강사는 2015년 84명, 2016년 100명임.
 - 2016년 지역별 교원 수는 가장 적은 대구 29명부터 가장 많은 경기 85명이었으며, 광주, 부산, 경기, 인천은 기관당 평균 교원 수가 많은 지역이었음.

- 2015년도 교원은 공립 246명, 사립 56명이었음. 강사 수도 공립이 73명, 사립은 11명으로, 원당 평균 강사 수도 공립에서 많았음.

〈표 3〉 설립유형별 시범사업 참여 다문화유치원 교원 및 강사 현황

단위: 개인, 명

구분	2015년					2016년				
	유치원 수	교원수 (계)	원당 교원수	강사 (계)	원당 강사수	유치원 수	교원수 (계)	원당 교원수	강사 (계)	원당 강사수
전체	30	302	10.1	84	2.8	60	620	10.3	100	1.7
지역										
서울	6	38	6.3	16	2.7	6	48	8.0	-	-
경기	6	72	12.0	13	2.2	6	85	14.2	12	2.0
충남	6	39	6.5	11	1.8	6	33	5.5	1	0.2
전남	6	45	7.5	24	4.0	6	40	6.7	7	1.2
경남	6	78	13.0	20	3.3	6	52	8.7	10	1.7
강원	-	-	-	-	-	4	33	8.3	15	3.8
경북	-	-	-	-	-	5	56	11.2	7	1.4
광주	-	-	-	-	-	4	72	18.0	7	1.8
대구	-	-	-	-	-	4	29	7.3	23	5.8
부산	-	-	-	-	-	4	59	14.8	5	1.3
인천	-	-	-	-	-	4	56	14.0	8	2.0
전북	-	-	-	-	-	5	57	11.4	5	1.0
설립유형										
공립	25	246	9.8	73	2.9	51	529	10.4	96	1.9
사립	5	56	9.3	11	1.8	9	91	10.1	4	0.4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2.

- 다문화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은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보다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경우가 많았음.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문화 유아가 많을수록 단위기관의 한국어교육 강사수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임.

〈표 4〉 다문화 원아수별 시범사업 참여 다문화유치원 강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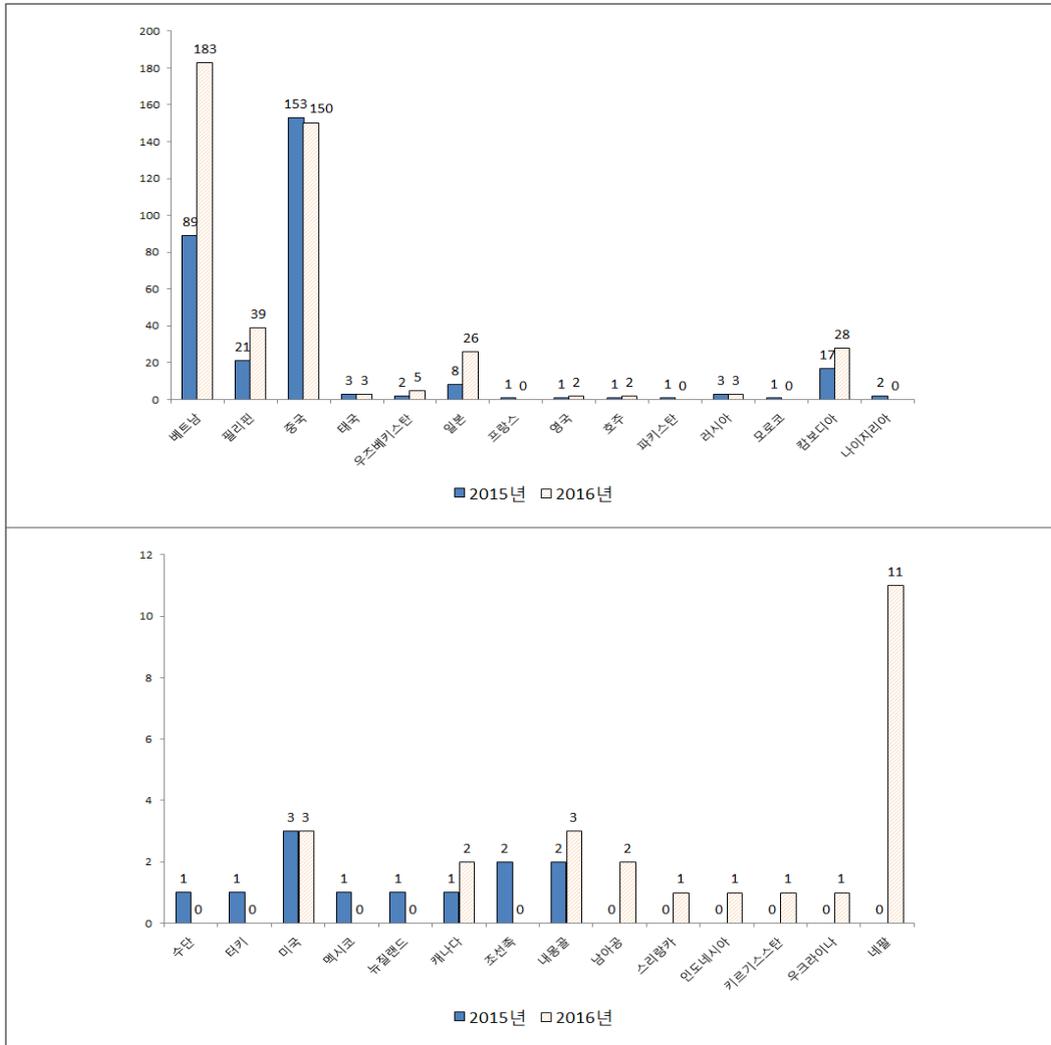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전체	8	31	18	82
1~4명	0	1	3	28
5~9명	5	12	3	31
10명이상	3	18	12	18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3.

다. 다문화가정 부모 출신국 현황

- 다문화 유아 부모의 출신국별로는 베트남과 중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2015년도에는 부모가 중국 출신인 다문화 유아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9명, 필리핀 21명 순이었음.
 - 2016년도에는 부모가 베트남 출신인 경우가 183명, 중국 150명, 필리핀 39명 순이었음.



주: 2015년 부모의 출신국을 보고한 경우는 316명(전체 322명), 2016년은 466명(전체 563명)임.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5.

[그림 2]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 출신국

- 동남아시아 출신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중국 출신 다문화 가정에 비해 지역적으로도 농어촌 및 지방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음.
 - 한편, 2015년 중국(조선족 포함) 출신 다문화 가정 유아는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거주함.
- 다문화 원아수가 5~9명인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 유아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문화 원아수가 10명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베트남 등 중국/북한/조선족 출신의 비중이 높음.

〈표 5〉 다문화 원아 수 및 부모 출신국별 유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중국, 북한, 조선족	선진국	그 외 국가	중국, 북한, 조선족	선진국	그 외 국가
전체	156	17	143	152	35	279
1~4명	5	3	5	9	2	15
5~9명	25	6	74	30	14	104
10명이상	126	8	64	113	19	160

주 1: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주 2: 그 외의 국가는 [그림 2] 다문화 가정 유아의 부모 출신국 참조 요망.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7.

3 다문화유치원 운영 실태 분석

가. 언어교육

- 2015년도에 다문화 유아 대상 개별 언어교육을 실시한 시범기관은 총 21개원(70%)으로 경기도 지역의 6개원이 모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 2016년도 시범기관의 경우, 60개원 중 약 절반가량(31개원)이 개별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6〉 설립유형별 다문화유치원 개별 언어교육 실시 여부

단위: 개, %

구분	2015년			2016년		
	전체 기관수	실시 기관수	실시 비율	전체 기관수	실시 기관수	실시 비율
전체	30	21	70.0	60	31	51.7
공립	25	18	72.0	51	27	52.9
사립	5	3	60.0	9	4	44.4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0.

- 다문화 유아수에 따른 개별 언어교육 실시 현황은 2015년 및 2016년 모두 다문화 유아수가 10명 이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7〉 다문화 유아수별 개별 언어교육 실시 여부

단위: 개원, %

구분	2015년			2016년		
	전체 기관수	실시 기관수	실시 비율	전체 기관수	실시 기관수	실시 비율
다문화 유아수						
1~4명	4	3	75.0	13	4	30.8
5~9명	14	8	57.1	24	13	54.2
10명 이상	12	10	83.3	22	14	63.6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0.

- 2015년 및 2016년 모두, 조선족, 북한, 중국한족 배경의 유아가 있는 다문화유치원에서 보다는 선진국 및 기타 국가 출신의 유아들이 있는 기관에서 개별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조선족, 북한 출신 유아의 경우 한글에 보다 익숙하기 때문에 개별 언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낮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8〉 다문화 유아 출신국별 개별 언어교육 실시 여부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전체 기관수	실시 기관수	실시 비율	전체 기관수	실시 기관수	실시 비율
다문화 유아 출신국						
중국, 북한, 조선족	25	17	68.0	39	19	48.7
선진국	11	8	72.7	19	12	63.2
그 외 국가	27	20	74.1	48	26	54.2

주: 1)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2) 다문화 유아 부모의 출신국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 출신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해당국가 유아가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였음. 즉, 중복 응답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1.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다문화유치원 교사들에 의하면, 개별 언어교육은 주로 언어강사(40.0%)와 담임교사(34.6%)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함.
 - 소수이기는 하나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도 6.2%(130명 중 약 8명)으로 파악됨.
 - 다문화 유아 담당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5년 미만인 경우보다, 언어강사보다는 담임교사 자신이 개별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음.

〈표 9〉 개별 언어교육 실시 주체

단위: %(명)

구분	실시하고 있지 않음	담임교사	언어강사	담임교사 +언어강사	기타	계(수)
전체	6.2	34.6	40.0	14.6	4.6	100.0 (130)
다문화 유아 담당 경력						
1년 미만	12.5	29.2	33.3	16.7	8.3	100.0 (24)
1-3년 미만	4.1	39.7	41.1	12.3	2.7	100.0 (73)
3-5년 미만	9.1	18.2	54.5	13.6	4.5	100.0 (22)
5년 이상	0.0	45.5	18.2	27.3	9.1	100.0 (11)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51-52.

- 응답한 시범기관 교사는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 유아의 언어발달을 평가하며(평가하지 않는 경우는 0.8%에 불과함), 교사의 관찰이 가장 주된 방법(48.5%)으로 조사됨.
 - 한편,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교사와 외부전문가가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26.2%, 26.9%로 나타나 합하면 53.1%로 교사 관찰보다 더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음.

〈표 10〉 언어발달 평가 (복수응답)

단위: %, 명

평가하고 있지 않음	교사의 관찰	교사/유치원 자체 제작 평가도구	교사가 표준화된 평가도구 이용	외부전문가가 표준화된 평가도구 이용	계(수)
0.8	48.5	15.4	26.2	26.9	(130)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52-53.

- 다문화 유아의 언어발달을 점검한 결과를 부모와 공유하는 빈도는 월1회(30.8%) 및 학기별 1회(30.0%)가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1〉 다문화 유아 언어발달 점검결과를 부모와 공유하는 빈도

단위: %(명)

부모와 공유하지 않음	월 1회	분기별 1회	학기별 1회	연 1회	기타	계(수)
3.8	30.0	21.5	30.8	1.5	12.3	100.0 (130)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53-54.

나. 다문화이해교육

-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은 연령별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생활주제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2013)에서 개발한 ‘유아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됨.
 - 각 나라의 전통의상, 건축물, 세계 지도 등을 전시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동화·동극, 이야기 나누기, 신체, 음식, 요리, 미술활동 등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전개함.
-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으로 학부모 연수, 간담회, 학부모 참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수, 워크숍, 동료 장학, 문화연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대부분 원격 연수를 통해 교사교육이 실시되며, 다문화 음식, 놀이 등에 대한 내용으로 30시간 정도 지원됨.

다. 가정(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 2015년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비중은 30.0%에서 2016년도에는 46.7%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절반가량의 시범 유치원은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 유아가 많을수록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계획, 실행하는 비중이 높음.

〈표 12〉 다문화 유아 수별 지역사회 연계 포함 여부

단위: 개원, %

구분	2015년			2016년		
	전체 기관수	포함 기관수	포함 비율	전체 기관수	실시 기관수	실시 비율
1~4명	4	0	0.0	13	4	30.8
5~9명	14	4	28.6	24	13	54.2
10명 이상	12	5	41.7	22	11	50.0

주: 2016년도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63.

- 다문화 가정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교사-부모 간의 소통 어려움 뿐 아니라 다문화 부모-일반 부모 사이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발생함.
- 다문화유치원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다문화이해교육 혹은 체험활동을 위한 경우였음.
 - 다문화이해교육의 경우 일회성 강연 혹은 체험 활동 등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되거나, 지역사회 내 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였음(예: 정기적인 국악 수업(장구, 전통 춤 등), 전통 놀이 활동, 다문화 요리 교실 등).
 - 다문화유치원이 활용하는 주요 지역사회연계 기관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언어진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라. 지원비용 사용

- 다문화유치원 사업비는 주로 교구구입비와 체험활동비로 많이 사용됨.

 - 2015년 결산서 상에서 다문화유치원 사업비는 교구구입비가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체험활동비가 23.8%로 다음을 차지함.
 - 다문화 유아의 개별언어교육을 위한 비용은 23,921천원, 11.4%였음.
- 다문화유치원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개별언어교육 편성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체험활동비의 비중도 사립유치원이 공립 유치원에 비해 높은 편임.

 - 반면, 교구구입비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에서 높았음.
- 2015년 다문화 유아가 1~4명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체험활동비가 전체 예산에서 34.1%를 차지했지만, 다문화 유아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체험활동비는 14.9%로 절반 수준임.

 - 반면, 개별언어 교육비의 비중은 다문화 유아가 1~4명인 경우에 2015년 기준 4.3%에 불과하지만, 5~9명인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3.5%, 10명 이상인 경우 11.2%였음.

〈표 13〉 다문화유치원 설립 유형별 및 다문화 유아수별 예·결산 항목별 비중

단위: %

구분	설립 유형		유아 수		
	공립	사립	1~4명	5~9명	10명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산항목					
개별언어	8.8	24.2	4.3	13.5	11.2
통합교육	5.9	1.8	0.0	2.2	10.4
발달검사	0.6	0.0	0.6	0.6	0.4
교구구입	25.4	21.4	21.9	24.6	25.8
도서구입	7.2	4.0	10.8	4.6	7.8
교재	9.3	3.1	8.1	8.1	8.5
체험활동	22.9	28.4	34.1	28.6	14.9
행사	5.6	9.4	6.3	2.7	10.3
회의	2.5	3.4	3.2	2.7	2.5
기타	11.7	4.3	10.8	12.2	8.3

주: 결산 항목별 비중은 각 설립유형별, 다문화 유아수별 예·결산 총액 대비 각 항목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80-81.

4 다문화유치원 지원 방안

■ 다문화 유아를 위한 개별언어교육 지원체계 강화

- 기관의 다문화 유아 수가 10인 이상으로 많을수록 개별언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문화유아 언어지도에 부모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예: 가정과 동화책 읽기 연계활동 등)
- 또한 언어강사가 매우 부족하므로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도사 등을 확보하여 다문화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다문화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개별언어교육 내용이 부족함. 개별 언어교육을 위한 수준 진단도구와 개별언어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함.
- 개별언어교육을 실시할 경우, 분리교육으로 인한 다문화 유아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언어교육과 통합언어교육의 비중을 조절하고 통합언어교육 내에서 개별화 교육방법 안내가 필요함.
- 개별언어교육의 실재를 공개하는 유치원이 없으므로 다문화 유치원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함. 2015/2016년도에 연속적으로 다문화유치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유치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회 정례화 및 공동연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 유아 담당경력에 따른 교사연수 세분화

- 교사의 다문화유아 담당경력에 따라 연수를 세분화함.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물론, 구체적인 다문화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및 교사 연수가 필요함.

■ 다문화 부모와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한 연계 강화

- 다문화 가정 부모의 출신국, 한국문화에의 통합(동화) 정도,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등은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유아의 교육 지원 및 유치원과의 연계 수준 또한 달라짐.
- 부모 참여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에서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며,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낮은 부모 참여도를 높이려는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부모의 낮은 참여를 보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예: 전문강사 활용, 돌봄, 멘토링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또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고 다문화 관련된 지역의 기관 안내 및 활용방법 안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함.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전체 지역의 사업 내용 파악 후 부처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적재적소의 지원을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문 헌

교육부 내부자료(2015). 다문화유치원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각 유치원별).

교육부 보도자료(2016. 3. 9). 2016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 내부자료(2016). 다문화유치원 시범사업 운영계획서(각 유치원별).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방안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육아정책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누리과정 정책수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워드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박창현 부연구위원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정책적 요구
최효미 부연구위원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 개발 및 향후 과제
최은영 연구위원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통한 신체 건강 증진 방안
박진아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7-14

누리과정 정책수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워드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박 창 현 | 부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론 분석 방법
3.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 결과
4.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누리과정 정책수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워드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박 창 현 | 부연구위원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미디어상에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하여 누리과정 정책의 수요와 인식을 파악하는 것임.
-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누리과정 관련 온라인 뉴스를 추출하였다.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 ‘누리과정’, ‘유아교육’, ‘보육’, ‘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으로 검색된 전체 수집 기사는 총 58,441개였으며, 17,651건의 유효기사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의미망 분석을 실시하였음
-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보육교사, 교육청, 편성, 교육감, 유아,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음.
- 의미망 분석 결과,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산, 경제부총리가 중심성이 높은 노드로 나타났으며, 예산편성과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누리과정 예산을 매개하는 문지기(gatekeeper) 또는 브로커(broker) 역할을 하였음.
- 빅데이터에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는 누리과정으로 이미지화 되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전반의 질 관리와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성으로 파악되었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11년 5세 누리과정과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하였으며, 누리과정 정책을 실행한지 6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그간 누리과정 정책은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상당한 양적, 질적 변화를 이끌어왔음.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2016년 일반과제인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2016). 누리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 이윤진, 김지현, 이민경(2016)의 연구에서는 무상교육비의 보편적 지원, 공통교육과정을 통한 취약계층 유아발달 지원,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긍정적 성과를 제시하였음.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2015)는 원장, 교사, 행정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초등이전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 대국민 이미지 상승, 유아교육과 보육기회의 균등, 연령별 교육·보육과정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점을 긍정적 성과로 보았음.
- 부정적 성과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미흡한 점과 누리과정 재정의 불안정성(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2016), 교사의 업무 증가(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2015), 3-5세 교육·보육과정의 획일화(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2015), 교사들의 학급 교육·보육과정 운영 자율성 약화(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등으로 요약됨.
- 최근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과 예측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음.
 - 향후 누리과정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효과와 방향성 검토는 기본적으로 정책 수요자인 부모와 유아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인식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일은 정책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나타난 누리과정에 대한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뉴스를 추출하여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미디어상에 나타난 네티즌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누리과정 정책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에 나타난 네티즌의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의 지형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론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

- 분석대상은 누리과정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된 온라인 뉴스와 기사 댓글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의 기사로 한정하였음.

나. 자료수집방법

-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이 자체 개발한 Crawler를 활용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네이버 뉴스 검색엔진¹⁾에서 검색어로 ‘누리과정’, ‘유아교육’, ‘보육’, ‘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으로 검색된 전체 수집 기사는 총 58,441개였으며, 삭제기사는 40,789개였음.
 - 유효기사의 수는 17,651건으로 유효기사의 비율은 전체의 30.2%였음.
 - 네이버 뉴스에서 누리과정을 다룬 언론사는 일간지 20개, 방송통신 32개, 경제 및 IT 72개, 인터넷 신문사 51개, 지역지 67개, 전문지 81개였다. 총 기사수는 일간지 1,859개, 방송통신 5,893개, 경제 및 IT 뉴스 3,619개, 인터넷신문 1,457개, 지역지 3,724개, 전문지 1,099개였음.
 - 삭제 키워드는 홍보성 기사와 키워드에 의해 자동 수집된 뉴스들 중에서 신문사 이름이나, 실명이 거론된 인명, ‘별누리교실’ 등과 같이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키워드는 삭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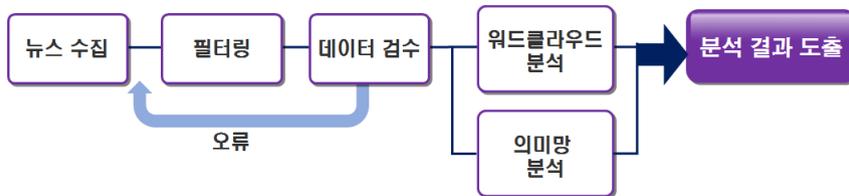
〈표 1〉 전체 수집글과 유효 게시글 수

전체 수집글	삭제글	유효 게시글	유효율
58,441	40,789	17,652	30.2%

1) 네이버 검색엔진은 타 검색엔진에 비해 해당기간동안 평균 점유비율이 82.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표적인 포털 검색엔진으로 선정하였음. 인터넷트렌드(<http://www.internettrend.co.kr>)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검색엔진 점유비율을 검색한 결과 네이버 82.63%, 다음 13.58%, 구글 1.85%순으로 나타났음.

다. 분석 절차 및 방법

- 최종적으로 필터링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분석과 의미망 분석을 실시하였음.
 -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화제어²⁾ 추출 솔루션을 통해 추출된 화제어를 분석하여 산출된 빈도 값의 크기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를 구성하였음. 이는 단어의 크기에 따라 키워드³⁾의 빈도수를 가시성 있게 분석하는 기법임.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연구진과 빅데이터 분석가의 협의 하에 화제어를 분석 키워드 빈도수를 최대 200순위까지 수집하였음.
 - 의미망 분석은 필터링 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넷마이너를 활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를 실시하였음.
- 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 중 본 조사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1차 필터링(filtering)을 진행하였음.
 - 홍보성, 광고성, 사행성 관련 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키워드를 일괄 삭제한 후 남은 글들을 모두 확인하여 삭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필터링 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재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음.
 -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빅데이터 분석절차

2) 화제어는 게시글 내 키워드들을 분석 전문기관의 내부 추출 알고리즘에 따라 빈도 및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키워드를 의미함. 키워드는 게시글 내 문단 및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명사, 형용사, 용언 등으로 나열된 단어들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화제어를 최대 200순위까지 수집하였으며, 1순위인 '누리과정'은 빈도수가 4515회였으며, 200순위인 '우려하다'는 118회의 빈도를 나타냈음. 자료의 유의미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빈도수 1-20순위까지를 기술하였음.

3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 결과

가.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 나타난 네티즌의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2013년 1월-2016년 6월)

- 2013년 1월 1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높은 등장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예산’, ‘정부’, ‘지원’, ‘보육교사’, ‘교육청’, ‘편성’, ‘새누리당’, ‘교육감’, ‘유아’, ‘프로그램’ 순으로 키워드가 나타났음.
 - ‘누리과정’은 전체기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장빈도를 나타낸 키워드였음.
 -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 예산과 정부, 지원, 교육청, 편성에 관한 키워드의 빈도가 높은 것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
 - 누리과정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실행된 주된 육아정책이므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역할과 입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반면, 유아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누리과정은 ‘교육과정’보다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누리과정을 검색하면 나오는 ‘누리놀이’와 같은 수많은 사교육 프로그램들의 영향, 정부의 누리과정 대국민 홍보 미약,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관심 부족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아동학대사건과 연결되면서 교사의 인성과 자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 2013년도에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강조하다’, ‘확대하다’, ‘지급하다’, ‘학부모’의 키워드들도 나타났음.
 - 이는 5세 누리과정 3-4세로 확대되고, 새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 시기였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는 키워드로 볼 수 있음.
- 2014년에는 새누리당, 여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키워드와 합의라는 키워드들도 나타났음.
 - 이는 예산안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육교사 키워드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15년에는 경기도의회와 아동학대 키워드가 강조되었다.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아동학대는 보육교사, 유아, 때리다, 의무화, 설치 등의 키워드와 연결되었음.
 - CCTV설치 의무화와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 보육교사 처우가 맞물리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연합뉴스, 2015, 머니투데이, 2015, 한국일보, 2015).
- 2016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추경, 교육, 경제부총리 등의 키워드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 누리과정이 재정과 예산의 문제로 점철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음.
 -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시행 5년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경비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공방은 현재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합의한 이후 일시적으로 조용해진 상태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음(뉴시스 1, 2016).

순위	화제어	빈도
1	누리과정	4515
2	예산	3528
3	누리과정예산	1757
4	정부	1567
5	편성하다	1541
6	지원	1429
7	보육교사	1222
8	교육청	1104
9	편성	1040
10	서울	990
11	강조하다	963
12	새누리당	939
13	교육	932
14	교육감	926
15	발표하다	887
16	교육부	841
17	도교육청	781
18	유아	700
19	실시하다	678
20	프로그램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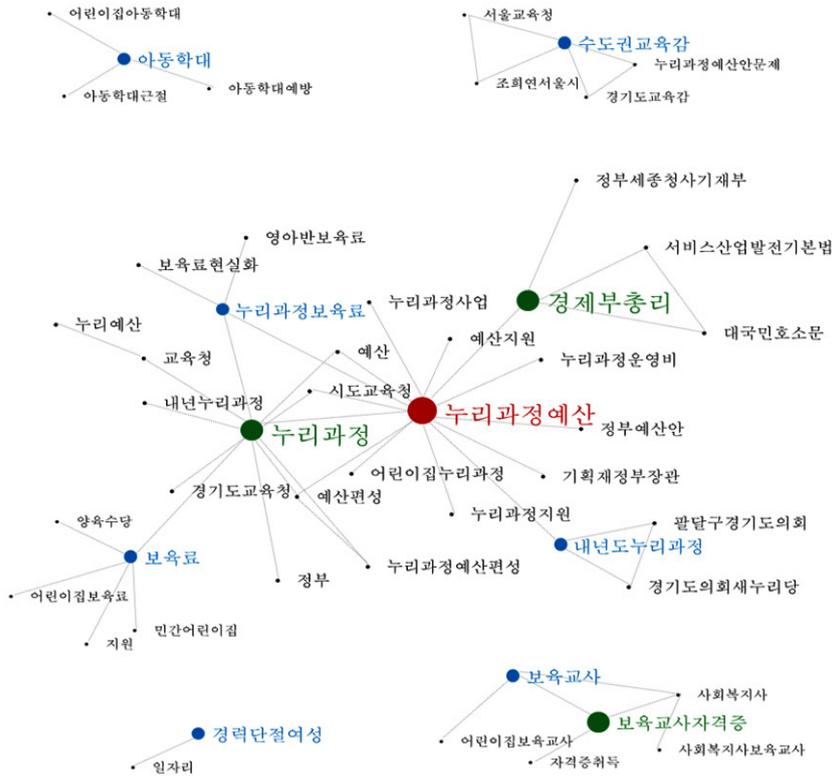
주: 검색빈도는 20순위까지만 제시



[그림 2], <표 2> 워드 클라우드 검색 빈도 분석 결과 (2013년 1월-2016년 6월)

나. 의미망 분석에 나타난 네티즌의 누리과정 인식의 지형도 (2013년 1월-2016년 6월)

-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산, 경제부총리가 중심성이 높은 노드로 등장하였음. 누리과정이 연구의 핵심 주제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노드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음.
- 중심성이 높은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산, 경제부총리 노드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누리과정과 누리과정 예산은 약한 연대(weak tie)⁴⁾를 하는 반면,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이나 누리과정 예산보다는 강한 연대(strong tie) 형태의 네트워크 특성을 나타냈음.



[그림 3] 누리과정에 대한 의미망 분석 결과(2013-2016 전체년도)

4) 약한 연대는 중심성 높은 노드가 다른 노드와 1 대 1의 연결망을 주로 맺고 있는 형태로, 방사형의 모습을 보인다. 약한 연대를 갖는 경우 중심성 높은 노드의 연결망 빈도는 높지만, 다른 노드는 중심성 높은 노드와의 연결선만 보유하고 다른 노드와의 연결선은 매우 낮은 빈도를 갖는다.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망은 다양한 가치와 정보를 모으거나 연결시키기 위한 장점을 갖는다(Gronovetter, 1973; Scott, 2000).

- 누리과정과 누리과정 예산이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은 개방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된 정보나 가치로 한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정보 그리고 가치와 정보를 갖고 있거나 빅데이터 담론에 제공하는 집단이나 개인과의 개방적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지방자치단체, 교육과정, 보육비 등은 누리과정 및 누리과정 예산과 연결되어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노드였음.
- 반면, 부총리로 대표되는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망은 주로 보육료, 중앙정부 부처 및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물형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런 구조는 정부부처에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접근방식이 지자체 관련 부처 간의 논의를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부족하게 또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누리과정에 대한 노드는 누리과정 예산을 연결하고, 지체와 보육료를 연결하는 ‘문지기(gatekeeper)’나 브로커(brok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중심성이 높은 2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매개노드는 네트워크 연구에서 ‘문지기(gatekeeper)’나 브로커(broker)로 개념화됨(김용학, 2007, 현영섭, 신은경, 이향란, 2011; Kalish, 2008).
- 특히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다르게 개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보육대란과 연결되면서 이슈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갈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누리과정이 애초 기대했던 취지와 목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교육·보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원칙에(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어긋나는 결과이므로 추후 누리과정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증세나 국비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박창현, 2016).
-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확연하게 구분되며, 주변부는 독립적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구조는 결국 누리과정과 관련된 핵심적 화두와 새로운 화두 또는 다양한 화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부를 보면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산, 경제부총리의 노드를 중심으로 하는 의미망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부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사자격증, 아동학대, 경력단절여성, 교육감 등에 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지역의 정치세력에 따라 갈등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노드였음.
 - 광역시·도 단위의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담론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담론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네트워크 분석의 하단에 별도의 독립된 방사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정도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산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누리과정의 운영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며, 그 지배력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위의 누리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보육교사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자격 등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취득과정,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조건 등에 대한 담론이 관련되었음.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의 예산지원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와 관련된 노드들이었음.
 - 네트워크 분석의 좌측에는 아동학대와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존재하였음.
 - 누리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경력단절여성은 누리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나 요소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교육과 보육의 질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논의되었으며, 누리과정의 기대목표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고려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12).

4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누리과정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전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누리과정의 질 관리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성은 한국의 육아정책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연구를 제한하였으므로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부터의 여러 담론의 형성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음. 추후 시행 6년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 유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누리과정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디케이트(syndicate)를 마련하고 꾸준히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2013년부터 2016년 전체 데이터에 대한 의미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연도별로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터들을 보다 잘 구축하고 정련하여 연도별로 나타난 여론의 지형도를 살펴보고 추후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예측해나갈 필요가 있음.
- 모든 3-5세를 위한 평등한 교육과 보육을 강조했던 애초 누리과정의 목표를 고려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에서 나타나는 누리과정의 차이 또는 격차가 누리과정의 질과 어떤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함.
- 누리정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정책일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표임. 누리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보 통합의 관점에서 누리과정 정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12. 1. 18).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김병규(2015. 3. 23). 어린이집, CCTV 보다 교사 늘려 정서적 친밀감 높여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062200017.HTML>/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 김세관(2015. 4. 1). 어린이집 CCTV설치, 실사가 감시에 제동. 머니투데이,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118537671349>/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 김용학(2007).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박창현(2016).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 연구: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연구, 36(5), 399-422.
-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이용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인봉·이채희·이은경(2015).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업성취도 평가 이슈 분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현성(2015. 1. 17).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원장 동료들 입 다물면 은폐 무방비.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3f4cd0ce66194de3821c7c10fbfb32b0>/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 조규희·서미선·이정우(2016. 12. 1). 여야, 누리과정 합의...3년한시 특별회계 설치: 중앙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1조원 안팎 될 듯. 뉴시스 1. <http://news1.kr/articles/?2846178>/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 박창현·양미선·조혜주(2016).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현영섭·신은경·이향란(2011). 다문화 학습 동아리의 구조적 공백에서 신뢰와 결혼이주 구성원 브로커의 역할. 평생교육학연구, 17(2), 1-31.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Kalish, Y. (2008). Bridging in social networks: Who are the people in structural holes and why are they ther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53-66.

Scott, J. (2000). 김효동, 김광재 역(201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슈페이퍼 2017-15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정책적 요구

최 효 미 | 부연구위원

1. 서론
2.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3.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4.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5. 결론 및 정책 제언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정책적 요구*

최효미 | 부연구위원

요약

- 취업모 가구 영유아는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도 1시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남.
- 취업모 가구 영유아는 복수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중이 높으며,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지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출아동 기준 25만3천원으로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약 5만원가량 많이 지출하였으며,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 지출이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의사는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 가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모 가구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의사가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임.
- 취업모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오후 시간 보육에 대한 질 제고 및 하원 후 자녀 돌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1

서론

가. 문제 제기

- 정부는 유아교육법(제24조) 및 영유아 보육법(제34조)에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영유아 연령 및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13: 3; 보건복지부, 2013: 9).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동등한 교육·보육기회 보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3).
- 유아학비·보육료의 보편적 지원 이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
 - 특히, 유아학비·보육료의 보편적 지원 이후 모든 영유아 가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취업모와 같은 실수요자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보건복지부, 2013:15; 민연경·장한나, 2015:111).
-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이용 시간, 지출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가구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

나. 실태조사 개요

-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용에 관한 조사의 응답 표본은 1,312가구이며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에 활용된 아동 표본의 수는 1,820명이었음.
 -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는 아동 단위 이용 실태 및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1,820명임.
 - 응답자 중 모가 취업중인 경우가 703명(38.6%), 미취업자인 경우가 996명(54.7%)였으며, 휴직자인 경우가 113명(6.2%)였음.
 - 모의 취업상태를 취업-미취업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휴직자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이들이 현재 기준 부모 직접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업자와 다른 특징을 갖는 반면, 향후 복직에 대비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취업자와도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임.

2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가.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현황

- 취업모 가구의 경우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으며, 특히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가 36.5%로 높음.
- 취업모 가구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2.8%에 불과하며,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가 36.5%에 달했으며, 반일 이상 교육·보육 기관과 사교육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27.6%로 다음이었음.
- 반면,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중은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20.3%였으며, 모가 휴직중인 경우 28.0%였음.

〈표 1〉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중

		단위: %(명)				
		취업모	휴직중	미취업모	비해당	전체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		2.8	28.0	20.3	0.0	13.8 (253)
	어린이집만 이용	36.5	31.1	29.9	18.6	32.5 (592)
단일	유치원만 이용	12.6	6.3	13.3	14.3	12.6 (229)
서비스 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0.7	0.5	2.6	0.0	1.8 (32)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3.6	1.4	0.9	0.0	2.0 (36)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0.3	2.8	2.6	0.0	1.7 (31)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27.6	20.1	28.4	13.0	27.6 (501)
복수 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개별돌봄	9.9	8.4	1.6	13.0	5.3 (96)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0.3	0.0	0.1	0.0	0.2 (3)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5.7	1.5	0.3	41.1	2.7 (47)
$\chi^2(df)$		286.7(27)***				
계(수)		100.0 (703)	100.0 (113)	100.0 (996)	100.0 (8)	100.0 (1,820)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하루 평균 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취업모들은 미취업모 혹은 휴직중인 경우에 비해 기관 이용 시간도 길었음.
 - 취업모의 경우 하루 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시간이 7.9시간으로, 미취업모 6.8시간에 비해 1.1시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남.
 - 취업모 기준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와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에 평균 8시간을 이용하였으며, 기관 교육·보육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와 개별돌봄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8.2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기관 교육·보육과 사교육,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두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9.5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으로 인해 장시간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기관을 길게 이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양상을 보임.

〈표 2〉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이용 시간(하루 평균)

단위: 시간

		취업모	휴직중	미취업모	비해당	전체
전체		7.9	6.7	6.8	8.6	7.3 (1,567)
단일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8.0	6.9	7.0	8.7	7.4 (592)
	유치원만 이용	8.0	5.1	6.9	8.0	7.3 (229)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6.6	5.8	5.6	-	5.8 (32)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2.1	2.0	1.2	-	1.9 (36)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0.4	0.4	0.6	-	0.6 (31)
복수 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8.2	7.3	7.2	7.9	7.6 (501)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개별돌봄	8.2	8.5	8.6	8.5	8.3 (96)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3.1	-	2.3	-	2.9 (3)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9.5	6.6	7.6	9.1	9.2 (47)
F		66.1(8)***	14.6(7)***	123.2(8)***	83.3(4)**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호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 $p < .01$

나.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 좀 더 구체적으로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취업모는 미취업모 혹은 휴직자에 비해 반일 이상 서비스 이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59.9%, 유치원 이용자 30.4%인데 반해, 미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42.7%, 유치원 이용 비중 28.1%였으며, 반일 이상 기관 이용 미이용자가 23.9%에 달함.
 - 이처럼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현격히 높은 것은 영아 자녀의 기관 이용 비중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표 3〉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 기관 이용 비중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반일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49.9	28.2	4.2	17.8	100.0 (1,820)	
모 취업 상태	취업	59.9	30.4	2.7	7.0	100.0 (703)
	휴직	51.2	13.8	2.8	32.2	100.0 (113)
	미취업	42.7	28.1	5.4	23.9	100.0 (996)
	비해당	57.8	42.2	0.0	0.0	100.0 (8)
$\chi^2(df)$	121.8(9)***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 반일 이상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 혹은 휴직자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자에 비해 1시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은 7.9시간이었으며, 유치원 7.8시간, 개별돌봄서비스 5.5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반일 이상 교육·보육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개별돌봄 서비스
전체		7.4	7.2	5.6	5.2
모 취업 상태	취업	7.9	7.8	2.9	5.5
	휴직	6.9	6.0	6.0	3.5
	미취업	6.9	6.8	5.5	4.3
	비해당	8.1	7.9	-	5.8
F		42.6(3)***	22.3(3)***	1.73(2)	1.61(3)

주: 어린이집 이용자 908명, 유치원이용자 513명, 반일제 학원 이용자 76명,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 181명에 대한 평균값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 현황

- 취업모 가구의 경우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20.7%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제 학원 13.5%, 개인 및 그룹지도 3.6%, 교구활동 2.9%, 통신 교육 0.8%였음.
- 미취업모 가구는 취업모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단위: %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전체		13.4	2.6	19.3	3.0	1.2
모 취업 상태	취업	13.5	3.6	20.7	2.9	0.8
	휴직	6.9	3.8	14.0	4.3	1.1
	미취업	14.1	1.8	18.7	3.0	1.5
	비해당	13.0	0.0	41.1	0.0	0.0
$\chi^2(df)$		4.27(3)	6.18(3)	4.18(3)	0.75(3)	2.11(3)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전체 응답자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1$

-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에 모든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미취업모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 기관 교육·보육의 부족한 시간을 사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
-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이 평균 2.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통신교육 3.6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1.7시간, 교구활동 0.8시간, 학습지 0.6시간 순이었음.

〈표 6〉 시간제 사교육 주당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전체	2.4	1.5	0.5	0.7	1.5	
모 취업 상태	취업	2.5	1.7	0.6	0.8	3.6
	휴직	3.5	0.9	0.5	1.0	0.5
	미취업	2.3	1.4	0.5	0.6	0.9
	비해당	1.0	-	0.7	-	-
<i>F</i>	2.40(3)	1.34(2)	1.60(3)	4.34(2)*	0.68(2)	

주: 시간제 학원 이용자 244명,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자 47명, 학습지 이용자 350명, 교구활동 54명, 통신교육 22명에 대한 평균이며, 기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5$

3 취업모 가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가. 총 교육·보육비용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출아동 기준 25만3천원으로, 미취업모 가구 20만5천원에 비해 약 5만원가량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영유아를 포함한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가 20만9천원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14만3천원에 비해 약 6만6천원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출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지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6%에 그친 반면, 미취업모는 30.1%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모 가구의 경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1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10~30만원 27.7%, 50만원 이상 11.2%, 30~50만원 10.7% 순이었음.

〈표 7〉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계(수)	평균비용	평균비용	
							(미지출 포함)	(지출 아동)	
취업모	17.6	32.9	27.7	10.7	11.2	100.0(708)	20.9	25.3	
휴직자	45.0	29.5	11.4	5.6	8.5	100.0(106)	15.3	27.9	
미취업모	30.1	29.3	25.7	8.7	6.3	100.0(1,003)	14.3	20.5	
비해당	0.0	73.8	26.2	0.0	0.0	100.0(4)	6.2	6.2	
$\chi^2(df), F$							72.2(12)***	8.1***	3.9*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4. 〈표 IV-2-2〉에서 인용
 *** $p < .05$

나.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지출 비용

-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미취업모는 7만원을 지출하였음.
- 취업모 중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지만, 이용 비용은 30만4천원으로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음.

〈표 8〉 모 취업상태별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명), 만원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기준 월평균비용
	정규 교육·보육비		선택적 교육비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	
취업모	3.8(36)	3.1(242)	5.3(150)	30.4(6)	6.0(293)
휴직자	1.9(3)	4.5(31)	6.6(17)	-	7.0(34)
미취업모	4.6(49)	3.3(292)	6.1(190)	-	7.0(339)
F	2.7	1.7	2.2	-	1.9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
 2)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9. 〈표 IV-2-6〉에서 인용

- 취업모의 유치원 이용 비용은 총액 기준 월평균 18만9천원으로, 미취업모의 지출비용인 19만8천원에 비해 약간 적었음.
-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달리 수업료의 지출 비용이 취업모 14만9천원, 미취업모 16만3천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취업모 8만1천원, 미취업모 8만4천원으로, 유치원 이용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수업료에 비해 적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비해서는 2~3만원가량 높았음.

〈표 9〉 모의 취업상태별 유치원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명), 만원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정규 교육비		선택적 교육비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	
취업	14.9(88)	5.3(120)	8.1(96)	5.7(27)	18.9(162)
휴직	12.4(4)	6.6(5)	15.0(4)	-	21.9(7)
미취업	16.3(126)	5.4(164)	8.4(112)	6.7(23)	19.8(208)
<i>F</i>	1.3	0.2	2.9	0.6	0.5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15. 〈표 IV-2-13〉에서 인용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취업모의 경우 월평균 66만2천원을 지불하는데 반해, 미취업모는 5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비용보다도 교육비가 전체 이용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경우 교육비 평균이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특별활동비 평균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반일제 학원 이용자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표 10〉 모 취업상태별 반일제 이상 학원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개, 만원(명)

	이용비용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교육비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종일반비	
취업	53.0	11.4	7.6	7.0	66.2 (19)
휴직	61.7	34.8	41.0	0.0	102.4 (3)
미취업	48.1	10.5	17.5	0.0	58.0 (54)
<i>F</i>	0.3	6.8**	10.4**		2.1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1$

- 취업모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은 월평균 시간제 학원 13만4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 13만6천원, 교구활동 7만7천원, 학습지 7만2천원, 통신교육 6만2천원 순이었음.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사교육 종류별로는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가 휴직중인 경우에 오히려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약간 높은 특징을 보임.

〈표 11〉 모 취업상태별 시간제 사교육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만원(명)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수)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취업	13.4	13.6	7.2	7.7	6.2	12.0	(240)
휴직	14.5	20.4	7.8	10.4	0.0	14.1	(25)
미취업	13.2	10.5	6.4	11.9	4.3	11.7	(313)
$\chi^2(df), F$	1.7(2)	2.9(2)	2.35(2)	1.4(2)	1.7(2)	7.0(2)**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1$

- 취업모의 경우 혈연도우미 이용비용이 53만8천원, 비혈연도우미 이용비용이 80만8천원으로, 혈연도우미 이용비용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음.
-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은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표 12〉 모 취업상태별 개별돌봄서비스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만원(명)

	혈연 도우미			비혈연 도우미			총액 평균	(수)
	평균 주당 이용일수	1일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평균 주당 이용일수	1일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취업	5.0	5.4	53.8	3.9	6.7	80.8	54.8	(138)
휴직	5.1	4.1	112.4	1.0	2.0	3.0	71.1	(12)
미취업	4.2	3.1	51.1	2.4	9.1	70.0	59.5	(29)
<i>F</i>	4.3**	3.0*	5.3**	2.4	4.6*	1.2	0.5	

주 :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30. 〈표 IV-2-20〉에서 인용

** $p < .01$

4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

- 현재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6.1%로,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 가구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취업모의 경우 현재보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지금보다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7%,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11.8%로, 미취업모에 비해 약간 적었음.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 높게 나타나,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15.7%,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13.4%에 달함.

〈표 13〉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단위: %, (명)

	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	현행 유지	조금 줄이고 싶음	$\chi^2(df)$	계(수)
전체	4.0	12.1	82.6	1.2		100.0(1,421)
모의 취업상태						
취업	2.7	11.8	84.2	1.3	36.7(9)***	100.0(639)
휴직	15.7	13.4	70.9	0.0		100.0(69)
미취업	3.9	12.4	82.4	1.2		100.0(710)
비해당	39.2	0.0	60.8	0.0		100.0(4)

자료 :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60. 〈표 V-2-3〉에서 인용

*** $p < .001$

-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이 얼마가 될 때까지 계속 보낼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취업모(52.8%)가 미취업모(44.1%)에 비해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5만7천원까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 5만7천원, 미취업모 5만5천원으로 금액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모가 휴직중인 경우 유보가격이 8만원으로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임.

〈표 14〉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만원(명)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47.6	18.6	20.9	10.2	1.5	1.2	5.7	100.0(1,421)
모의 취업상태								
취업	52.8	16.6	20.3	7.8	1.8	0.6	5.7	100.0(639)
휴직	33.9	13.1	21.9	17.6	10.3	3.2	8.0	100.0(69)
미취업	44.1	21.0	21.4	11.6	0.3	1.5	5.5	100.0(710)
비해당	81.4	18.6	0.0	0.0	0.0	0.0	1.0	100.0(4)
$\chi^2(df), F$			71.3(15)***			5.9***		

주: 유보가격은 최대 지불 의사 가격 평균으로 얼마가 늘든 계속 이용한다는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임.

자료: 최호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65. 〈표 V-2-6〉에서 인용

*** $p < .001$

- 유보가격 초과시 취업모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55.6%로 높은 반면, 미취업모는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1%로 매우 높음.

〈표 15〉 가구 특성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이용 시간을 줄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직접 양육	$\chi^2(df)$	계(수)
전체	32.4	46.0	11.7	1.6	8.2		100.0(691)
모의 취업상태							
취업	23.8	55.6	8.1	3.0	9.5	56.1(12)***	100.0(277)
휴직	35.4	31.9	18.5	5.8	8.5		100.0(40)
미취업	42.1	37.3	10.9	0.6	9.1		100.0(372)
비해당	0.0	0.0	100.0	0.0	0.0		100.0(2)

주: 유보가격은 최대 지불 의사 가격 평균으로 얼마가 늘든 계속 이용한다는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임.

자료: 최호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69. 〈표 V-2-9〉에서 인용

*** $p < .001$

5 결론 및 정책 제언

- 취업모 가구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하루 평균 최소 8시간 이상 보장하고, 오후 돌봄 시간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 특성을 보이며, 이용비용이 유보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 시간을 조정하기 보다는 저렴한 다른 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 특히, 취업모 가구는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영아 자녀의 돌봄을 어린이집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암시하고 있음.
 - 하지만, 취업모의 대다수는 현재 이용 시간인 8시간보다 기관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희망하지 않음.
 - 따라서,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8시간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제공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가 요구됨.
 -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 탄력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강화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하원 후 아이를 부모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취업모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개별 돌봄 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다각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하원 이후 개별 돌봄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 특성상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이 현격히 높음.
 - 일부 어린이집 혹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시간 이후에도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시간 기관 보육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태이며(김혜경·류왕효, 2006; 서문희·양미선, 2012; 송경섭, 2013 등), 정작 영유아 자녀가 있는 취업모 가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편임.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에도 적정 소득 수준이상의 경우 비용 할인이 되지 않는데다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이 용이치 않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함(전춘애·이종남·방한별, 2009 등).

- 따라서, 공동육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가구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보육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임.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학비지원계획.

김혜경·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07-225.

민연경·장한나(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8(1), 49-71.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서문희·양미선(20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송경섭(2013).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실태 및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 한국보육학회지, 13(2), 25-45.

전춘애·이종남·방한별(20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실태 및 가정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서울 거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25-237.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16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 개발 및 향후 과제

최 은 영 | 연구위원

1. 필요성
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안)
4. 논의 및 향후 과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 개발 및 향후 과제*

최은영 | 연구위원

요약

- 유아교육·보육 학계의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인 유·보 간 통합 논의를 고려할 때,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은 통합과정에서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1인당 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능함.
- 이에 본 고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연구들의 개념, 모형, 항목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에 대해 현장전문가(원장, 원감, 행정직,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산출모형(안)을 제시함.
- 또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을 4가지(안)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 향후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항목과 구성요소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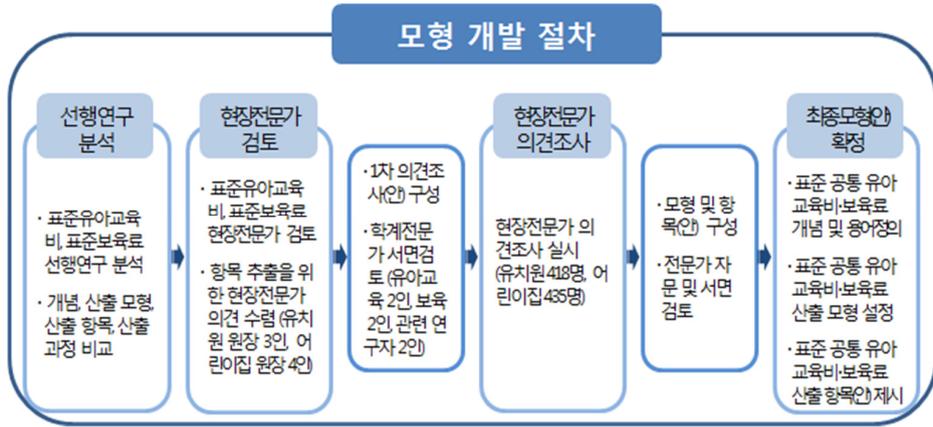
1 필요성

- 유아교육·보육 학계의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인 유·보 간 통합 논의¹⁾를 고려할 때,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연구는 통합과정에서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1인당 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능함.

*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최은영·김나영·최윤경·엄문영, 2016)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1) 2014년 2월 발족한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은 2016년까지 단계적인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 중임(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 2. 14).

- 이를 위해 질적 수준을 고려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체계와 기준 등이 상이하여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에도 항목과 기준이 다르나 국가가 연구를 통해 표준 비용을 산정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김현숙(2005)의 연구에서는 만 0~5세 연령에 따라 종일제(8시간)와 연장제(6시간)로 나누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으며, 구성항목은 김현숙(2009)의 연구와 동일하게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함.
 - 한편 한국여성부·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2005)의 연구에서는 만 0~5세 연령에 따라 종일제(8시간), 연장제(5~6시간)로 구분하여 표준보육·교육 단가를 산출하였는데, 구성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김현숙(2005, 2009)의 연구들과 항목과 산출방법은 동일함.
-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산출 연구를 비교하면, 크게는 유아교육비·보육료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으며, 보육료는 시설유형 및 연령별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 산출 항목, 산출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임.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연구들의 개념, 모형, 항목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에 대해 현장전문가(원장, 원감, 행정직,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산출모형(안)을 제시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안)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모형 개발 절차

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가.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시 필요 항목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해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조사함.
 -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표준인건비의 맞춤형복지비와 법정부담금이었으며, 표준공통운영비의 학생복리비임.

〈표 1〉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유아교육비

단위 : %(수)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표준인건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1.8	98.2	100.0(853)
	교원 및 직원의 체수당	3.3	96.7	100.0(853)
	맞춤형복지비	13.2	86.8	100.0(853)
	법정 부담금	13.7	86.3	100.0(853)
표준교육활동 경비	교구비	2.8	97.2	100.0(853)
	재료비	4.1	95.9	100.0(853)
	설비비	7.5	92.5	100.0(853)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표준공통운영 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8.1	91.9	100.0(853)
	공공요금	6.7	93.3	100.0(853)
	기본적 경비	6.6	93.4	100.0(853)
	학생복지비	11.6	88.4	100.0(853)

- 제 특성(기관유형, 지역규모, 유치원 설립유형)별로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의 필요 여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모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2〉 제 특성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2.7	97.3	3.0	97.0	3.3	96.7	100.0(853)	
기관유형								
유치원	4.3	95.7	4.8	95.2	4.5	95.5	100.0(418)	
어린이집	1.1	98.9	1.4	98.6	2.1	97.9	100.0(435)	
$\chi^2(df)$	8.097(1)**		8.365(1)**		4.118(1)*			
지역규모								
대도시	2.6	97.4	3.4	96.6	3.4	96.6	100.0(468)	
중소도시	1.3	98.7	2.6	97.4	2.6	97.4	100.0(233)	
읍면	5.3	94.7	2.6	97.4	3.9	96.1	100.0(152)	
$\chi^2(df)$	5.611(2)		0.483(2)		0.606(2)			
설립유형								
유치원	공립단설	0.0	100.0	0.0	100.0	0.0	100.0(15)	
	공립병설	6.9	93.1	2.7	97.3	3.2	96.8	100.0(188)
	사립법인	1.7	98.3	8.5	91.5	6.8	93.2	100.0(59)
	사립사인	2.6	97.4	6.4	93.6	5.8	94.2	100.0(156)
$\chi^2(df)$	5.905(3)		na		na			

* $p < .05$, ** $p < .0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표준보육료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교재교구비의 소모품, 관리운영비의 회의비, 여비, 차량비로 나타났으며, 시설비에서는 건축비 및 놀이터건축비로 응답됨.

- 이는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보육료

단위 : %(수)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인건비	급여	2.0	98.0	100.0(853)
	퇴직금, 퇴직적립금	3.8	96.2	100.0(853)
	사회보험 부담금	4.8	95.2	100.0(853)
	시간외 수당 정액	7.7	92.3	100.0(853)
교재교구비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3.5	96.5	100.0(853)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5.0	95.0	100.0(853)
	비품	7.6	92.4	100.0(853)
	소모품	10.1	89.9	100.0(853)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	7.2	92.8	100.0(853)
	직책급	10.2	89.8	100.0(853)
	회의비	19.5	80.5	100.0(853)
	여비	16.1	83.9	100.0(853)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7.7	92.3	100.0(853)
	연료비	10.0	90.0	100.0(853)
	차량비	16.3	83.7	100.0(853)
식단가	급간식 재료비	3.9	96.1	100.0(853)
	조리기기 및 소모품	9.3	90.7	100.0(853)
시설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13.4	86.6	100.0(853)
	시설유지관리비	7.0	93.0	100.0(853)

- 제 특성(기관유형, 지역규모,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식단가, 시설비의 필요 여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보육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 제 특성별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식단가		시설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2.3	97.7	4.0	96.0	4.2	95.8	4.5	95.5	7.3	92.7	100.0(853)
기관유형											
유치원	3.6	96.4	5.5	94.5	7.7	92.3	6.7	93.3	9.6	90.4	100.0(418)
어린이집	1.1	98.9	2.5	97.5	0.9	99.1	2.3	97.7	5.1	94.9	100.0(435)
$\chi^2(df)$	5.539(1)*		4.925(1)*		23.927(1)***		9.694(1)**		6.438(1)*		
지역규모											
대도시	2.8	97.2	4.5	95.5	5.1	94.9	5.6	94.4	8.3	91.7	100.0(468)
중소도시	0.9	99.1	3.0	97.0	3.9	96.1	3.4	96.6	4.7	95.3	100.0(233)
읍면	3.3	96.7	3.9	96.1	2.0	98.0	2.6	97.4	7.9	92.1	100.0(152)
$\chi^2(df)$	3.224(2)		0.895(2)		2.926(2)		3.090(2)		3.119(2)		
설립유형											
국공립	1.3	98.7	4.0	96.0	1.3	98.7	1.3	98.7	4.0	96.0	100.0(75)
사회복지법인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00.0(18)
법인/단체	2.8	97.2	5.6	94.4	5.6	94.4	5.6	94.4	5.6	94.4	100.0(36)
민간	1.9	98.1	3.2	96.8	0.6	99.4	1.9	98.1	6.3	93.7	100.0(158)
직장	0.0	100.0	2.3	97.7	0.0	100.0	4.7	95.3	7.0	93.0	100.0(43)
가정	0.0	100.0	0.0	100.0	0.0	100.0	1.9	98.1	3.8	96.2	100.0(105)
$\chi^2(df)$	na		na		na		na		na		

* $p < .05$, ** $p < .01$, *** $p < .00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나. 수정 및 추가해야 할 항목

-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항목 및 구성요소 중 항목 간 이동이 필요하거나 용어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문가 모두 표준보육료의 비품 및 소모품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비정규직 인건비가 표준인건비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5〉 세부 구성요소 중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요소

구분	내용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보육료의 시설유지관리비 → 관리운영비 표준유아교육비의 비정규직 인건비(방과후 전담사) 및 제수당은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설비비 → 관리운영비로 이동 표준공동운영비: 비정규직 인건비 → 비정규 및 일용직 인건비 항목 및 정규직 교원 및 직원의 기타 항목으로 이동 표준보육료의 비품, 소모품 → 관리운영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기기 및 소모품 → 관리운영비 표준유아교육비의 비정규직 인건비 → 표준인건비 표준보육료의 비품, 소모품 → 관리운영비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안)

가.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보육료는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한 개념을 갖음.
- 본 고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정의함.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함.

나.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

1)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구성

-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인건비, 교육활동 경비, 공동운영 경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등이 포함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교원과 시설 설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므로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교재교구비와 공동운영비로 구분하여 산출함.

2)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

-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은 현재 어린이집 법적 기준인 3세 15명, 4, 5세 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 이는 2015년 기준, 공·사립유치원의 평균 학급당 원아 수는 공립 16.5명, 사립 19.4명으로 평균 17.9명(교육통계연보, 2015) 약 18명과 유사한 수치이며,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학급편성 기준으로 가용하고자 함.

〈표 6〉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단위: 학급

구분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3세반	1	1	1	2	2	2	3	3
4세반	1	1	2	2	2	3	3	3
5세반	1	2	2	2	3	3	3	4

- 3학급의 경우,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3세반, 4세반, 5세반이 1개 학급씩 구성된 것으로 함.
 - 연령별로 학급당 이용아 수는 3세 15명, 4, 5세는 각각 20명으로 설정함.

〈표 7〉 규모별 이용아 수

단위: 명

구분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계	55	75	95	110	130	150	165	185
3세반	15	15	15	30	30	30	45	45
4세반	20	20	40	40	40	60	60	60
5세반	20	40	40	40	60	60	60	80

다.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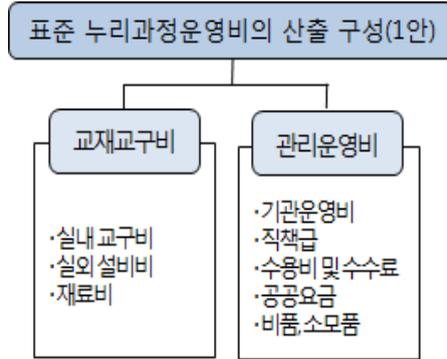
- 산출항목 구성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항목 각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인건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다소 나타남.

- 이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 항목만으로 구성함. 교재교구비는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구와 설비, 재료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며,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함.

〈표 8〉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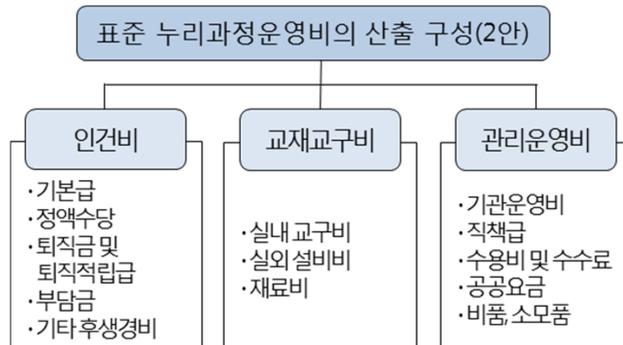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료		표준누리과정 운영비		비고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표준 인건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급여	인건비	기본급	1안에서 제외
	교원 및 직원의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시간외 수당 정액		정액 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표준 교육 활동 경비	교구비	교재 교구비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교재 교구비	실내 교구비	비품 및 소모품은 운영비에 포함
	재료비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실외 설비비	
	설비비		비품 소모품		재료비	
표준 공통 운영 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 운영비	기관운영비	관리 운영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여비, 차량비 제외/ 교재교구비의 비품, 소모품 포함
	공공요금		직책급		직책급	
	기본적 경비		회의비		회의비	
	학생복리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비품, 소모품	
	식단가	식단가	연료비	식단가	연료비	1안에서 제외
			차량비		급간식 재료비 조리 기기 및 소모품	
	시설비	시설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시설유지관리비			제외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 체계와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기에 인건비는 항목에서 제외한 안을 1안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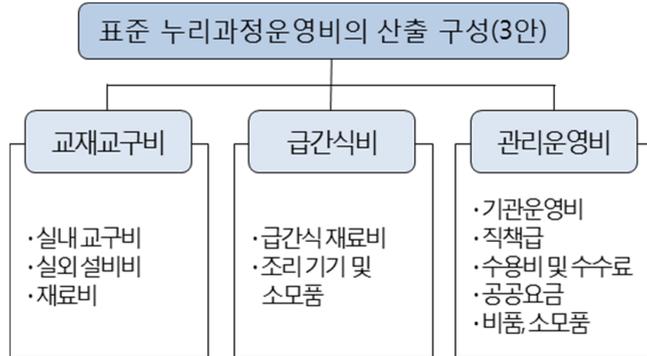
[그림 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1안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정의한 바 있음.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한다면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안으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교원 수준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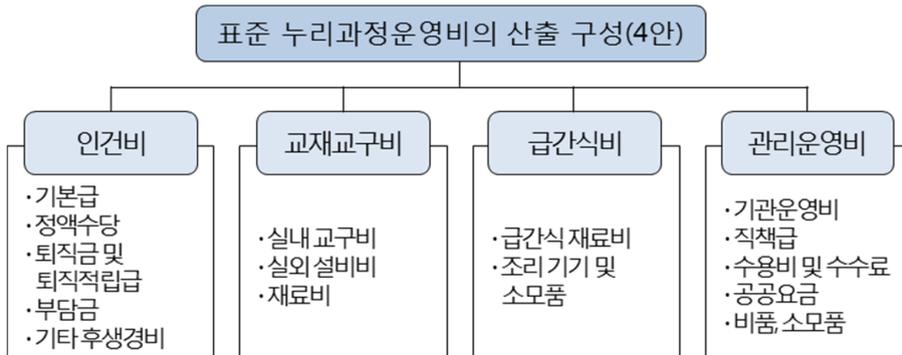
[그림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2안

- 2015년 2월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1일 4~5시간으로 편성하도록 함(교육부, 2015. 2. 24).
 - 이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급간식비를 포함한 항목을 3안으로 제시함.



[그림 4]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3안

- 4안은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고려하고,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를 모두 포함함.



[그림 5]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4안

4 논의 및 향후 과제

- 2013년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일원화되고, 양 기관이 동일하게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3~5세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에 이루어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개념임.

 - 본 고에서는 누리과정(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과 산출 항목을 설정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산출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은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에 따른 학급 수, 이용아 수를 제시함.

 -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의 표준학급 수는 현실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하는 수치로 학급 편성을 고연령 순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표준이용아 수는 만 3세 15명, 만 4, 5세 각각 20명으로 설정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이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모형으로 판단되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향후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비용 산출을 위한 산출항목 및 구성요소에 따라서 산출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객관성 담보도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

 - 보육료 개념에는 12시간 전일 보육이 포함되어 급식비, 차량비 등이 모두 ‘보육료 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급식비와 차량비 등이 대부분 ‘수익자부담 경비’임.
 -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되는 반면(보건복지부, 2012), 유아교육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되고 있으며(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 201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2월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1일 4~5시간으로 편성하도록 함(교육부, 2015. 2. 24).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에 급식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1안)을 크게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로 구분하였으며, 표준보육료의 구성 요소인 급간식비, 차량운행비는 제외하고, 기타 안을 포함함.
 -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 유보통합 등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과 구성요소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2. 24).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고시문.
- 국무조정실보도자료(2014. 2. 14).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발족.
- 김현숙(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포럼, 46-57.
- 김현숙(2009). 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8, 21-40.
-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 최은영·김나영·최윤경·엄문영(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여성부·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이슈페이퍼 2017-17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통한 신체 건강 증진 방안

박진아 |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설계
3.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 결과
4.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통한 신체 건강 증진 방안*

박진아 | 부연구위원

요약

- 최근 유아들의 체격은 커진 반면, 체력저하는 눈에 띄게 심화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소아비만도 점증 추세임.
- 스마트폰, 인터넷 등 스크린 타임의 증가,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 공간의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식품 섭취에 대한 선호,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움 등 유아의 행동 유발에 동기가 되는 내재화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유아기에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운동의 생활화 등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본고에서는 2015년에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김길숙 외, 2015)로 수행된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¹⁾을 4, 5세 유아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효과성 검증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효과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신체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측면, 프로그램 교육 측면, 프로그램 홍보와 활용 측면으로 제안함.
-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바깥놀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진행 시 수업에 필요한 교육 보급과 신체활동 전 공자에 의한 모니터링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함.
-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교육 방법과 부모를 포함한 프로그램 설계를 제안하였고 프로그램 홍보와 활용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 증진 캠페인과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활용한 보급을 제안함.

* 본고는 「김길숙·박진아·최윤경·임현정·이세용(2016).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Mission-X: Train Like an Astronaut」 프로그램을 4, 5세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국내에서 수정·보완한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Based on NASA’s Mission-X Challenge Materials”을 제시하고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사용해도 된다는 양해를 MX Project Coordinator(Nubia A. Carvajal)로부터 받았음(2016. 6. 27).

1 들어가며

- 신체활동의 부족 현상은 유아시기에 달성해야 할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며 체력 저하와도 연관됨.
 - 우리나라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1일 평균 이용시간은 대략 7시간으로 10년 새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길어짐.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신체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결과, 유아의 바깥놀이 또는 외출을 포함한 실외 놀이 시간이 일일 평균 약 1시간 정도였고 실외에서보다 실내에서 놀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김. 또한 취업모 자녀의 경우 실외 놀이 시간이 더 짧음.
- 유아들의 신체활동 부진 현상은 유아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 이후의 생의 주기에 도 영향을 미침.
- 유아기부터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운동의 생활화와 올바른 영양 섭취를 습관화한다면 추후 건강과 관련된 보건 지출비의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15년에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김길숙 외, 2015)로 수행된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²⁾을 4, 5세 유아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효과성 검증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설계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과 교사들의 의견(김길숙 외, 2015) 및 학부모의 의견(민정원 외, 2014)을 근거로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Mission-X 프로그램을 기초하여 4, 5세 유아용으로 수정·보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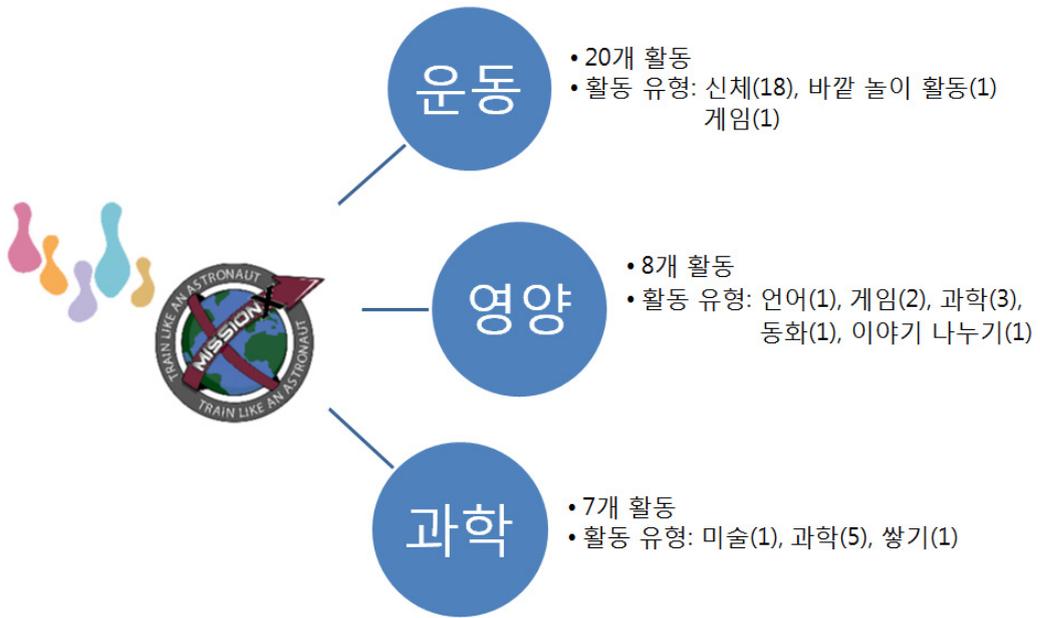
2) 상동



[그림 1]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구 수행 과정

가.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요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Mission-X, 우주인처럼 훈련해요(Mission X: Train Like an Astronaut) 프로그램」을 4, 5세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
 - 운동, 영양, 과학의 세 영역, 총 35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2 참조).
- 본 연구에서는 운동, 영양, 과학 영역 중 신체 건강과 관련된 운동과 영양에 해당하는 활동들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



자료: 김길숙·박원순·송신영(2015).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88의 그림을 발췌함.

[그림 2]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영역 및 활동 유형

나. 연구 설계 개요

□ 목표설정

-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선호를 조기에 형성시켜 신체활동의 습관화, 올바른 영양 섭취와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둠.

□ 표집방법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관 표집은 유치원 3개 기관, 어린이집 4개 기관을 임의로 표집함.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통제 집단은 무선 할당함.

〈표 1〉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유아 수

단위: 명

	프로그램 참여 집단	통제 집단	전체
기관유형별			
유치원	184	124	308
어린이집	155	216	371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통한 신체 건강 증진 방안

	프로그램 참여 집단	통제 집단	전체
연령			
	4세	166	193
	5세	173	147
전체	339	340	679

자료: 김길숙·박진아·최윤경·임현정·이세용(2016).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1):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7.

□ 프로그램 실행방법

- 사전 검사, 프로그램 진행,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4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됨.
- 영양 관련 8개 활동, 운동 관련 16개 활동인 총 24개 활동(표 2 참고)을 8주 동안 주 3회 실시. 9주와 10주차에는 16개 운동 활동을 재구성하여 주 3회 실시함.
- 또한 영양 관련 활동 중 4개 활동은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하고 그 외 활동들은 담임교사에 의해 진행됨.

(표 2) 효과성 검증을 위한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동 구성

주 차	구 분	활 동 명
1주차	영 양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
	운 동	우주 구르기 우주코스를 달려 봐요
2주차	영 양	〈충분한 물을 마셔요 1〉 수분 탐색하기
	운 동	행성이동! 중력을 견뎌라 우주에서는 어떻게 걸을까?
3주차	영 양	〈충분한 물을 마셔요 2〉 우주비행사 그림에 물 채워주기
	운 동	〈균형을 잡아요 1〉 여러 가지 자세로 균형 잡기 〈균형을 잡아요 2〉 한 발로 서서 과녁에 공 던지기
4주차	영 양	〈충분한 물을 마셔요 3〉 우주비행사에게 물 채워주기 게임
	운 동	〈우주비행사처럼 힘을 길러요 1〉 스쿼트 자세 〈우주비행사처럼 힘을 길러요 2〉 팔 힘 기르기
5주차	영 양	〈충분한 물을 마셔요 4〉 소변색을 관찰해요
	운 동	〈우주 자전거를 타요〉 누워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요 우주 정거장을 고쳐라!
6주차	영 양	우주비행사처럼 건강한 간식을 먹어요
	운 동	〈걸어서 기지로 돌아와요〉 우주기지로 돌아오기 우주비행사처럼 근육을 키워 봐요.

주 차	구 분	활 동 명		
7주차	영 양	식품구성 자전거		
	운 동	빛의 속도로 잡아라! 우주비행사의 심장 행성 X를 탐사하라!		
8주차	영 양	식품군 분류하기 게임		
	운 동	우주비행사의 심장 우주탐험 <점프해요, 달에 달도록!> 1. 줄을 뛰어넘기 2. 줄넘기		
9주차	시작운동	걷기/팔굽혀펴기/우주자전거	걷기/스쿼트/우주자전거	걷기/팔굽혀펴기/우주자전거
	본운동	우주 구르기	우주코스를 달려봐요	우주정거장을 고쳐라/빛의 속도
	마무리운동	코어	코어/ 균형을 잡아요	코어
10주차	시작운동	걷기/스쿼트/우주자전거	걷기/팔굽혀펴기/우주자전거	걷기/스쿼트/우주자전거
	본운동	행성이동중력을 견뎌라	점프해요 줄넘기	우주비행사의 심장
	마무리운동	코어/우주걸기	코어	코어/균형을 잡아요2

3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 결과

가. 프로그램 효과 분석

-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신체 발육을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2007:6, 7)에 근거하여 비교하면 5세 남아의 체중이 백분위수 50th에서 75th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키와 몸무게 모두 75th에서 90th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육 상태가 중상위에 속하고 있었음.

〈표 3〉 프로그램 참여 유아의 사전 신체 계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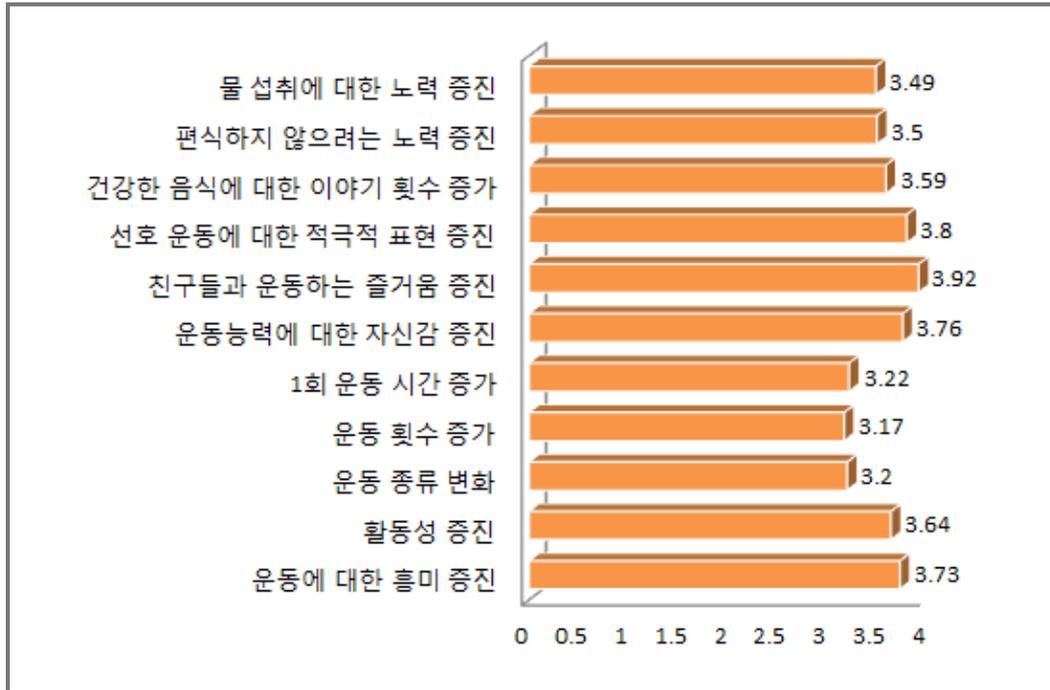
단위: cm, kg, 명

구분		키 M(SD)	몸무게 M(SD)	합계
4세	남아 (n=191)	107.4 (4.63)	18.9 (2.73)	337
	여아 (n=146)	107.8 (4.57)	18.8 (2.29)	
5세	남아 (n=167)	114.0 (4.88)	20.4 (2.72)	303
	여아 (n=136)	114.0 (5.07)	20.8 (3.17)	
전체				640

-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의 6개 영역 중 유연성($F=4.76$, $p<.05$), 평형성($F=8.68$, $p<.01$), 순발력($F=8.4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 집단 유아가 통제 집단 유아에 비해 유연성, 평형성, 순발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한편, 전체 참여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기관별, 연령별, 성별, BMI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남.
- 유아의 영양·식습관 효과 검증 결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음.
 - 반면, 프로그램 참여 후 유아의 변화에 대해 어머니 설문 조사 결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가 몸에 좋은 음식을 말하는 횟수가 증가하였고(59.5%),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였으며(53.6%),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50.6%로 나옴.
 -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중심으로 한정된 유아만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아의 영양과 식습관을 책임지는 부모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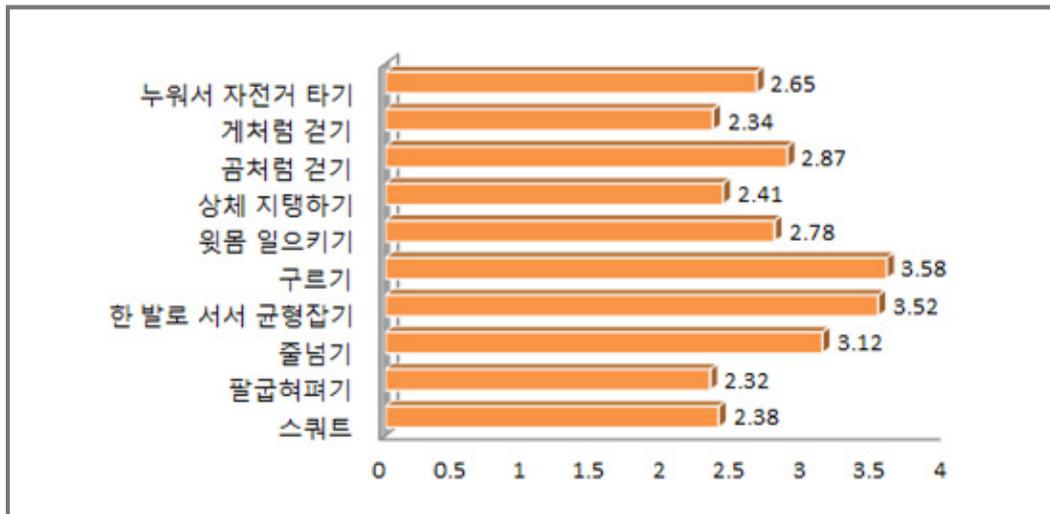
나. 프로그램 참여 후 유아의 변화

- 프로그램 참여 후 유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통 이상(3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친구들과 운동하는 즐거움이 가장 많이 증진하였으며($M=3.92$), 선호 운동에 대한 적극적 표현이 증진하였고($M=3.8$), 운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M=3.76$)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인 운동량의 증가라든가, 운동에 대한 흥미, 운동 횟수의 증가만이 아니라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그림 3 참조).
- 프로그램 참여 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배운 활동을 가정에서 얼마나 했는지 살펴본 결과, 구르기($M=3.58$)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다음으로 한 발로 서서 균형잡기($M=3.52$), 줄넘기($M=3.12$)였음. 반면 팔굽혀펴기($M=2.32$), 계처럼 걷기($M=2.34$), 스쿼트($M=2.38$), 곰처럼 걷기($M=2.41$)는 적게 함(그림 4 참조).



주: 5점 척도임.

[그림 3]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 집단 유아의 변화에 대한 평균 점수



주: 5점 척도임.

[그림 4]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 유아가 배운 활동을 가정에서 실행한 평균점수

- 이러한 결과는 계처럼 걷거나 곰처럼 걷기는 게임형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가정에서 유아 혼자 활동을 하기에는 흥미유발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는 활동 후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덜 한 것으로 유추됨.
- 반면, 구르기, 한 발로 서서 균형잡기, 줄넘기는 유아가 혼자서도 충분히 놀이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됨.

4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결과,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유연성, 평형성, 순발력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아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중심으로 한정된 유아만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아의 영양과 식습관을 책임지는 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함.
- 본고에서는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유아의 신체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측면, 교육 측면, 홍보 및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가. 프로그램 운영 측면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바깥놀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
 -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바깥놀이 시 교사들은 유아들과 함께 할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바깥놀이나 산책 시 활용 가능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됨.
 -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근력, 민첩성, 유연성 등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 중심으로 개발됨.
 - 따라서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³⁾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바깥놀이 시 유아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3)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길숙 외(2015).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 신체 건강 증진 활동 프로그램 진행 시 수업에 필요한 제작된 교구 보급
- 신체활동(체육) 전공자에 의한 모니터링 지원 체계 구축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교육을 받았지만, 몸에 익숙하지 않은 자세와 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유아에게 지도 시 정확한 동작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신체활동(체육) 전공자에 의한 모니터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체활동 전공자의 풀을 확보하고 본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으로 묶어서 기관 방문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영양·식습관 교육 시 외부 강사풀 활용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시 영양·식습관 교육 8개 활동 중 4개 활동은 영양의학과를 전공한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전공자인 외부 강사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역 대학에 있는 식품영양학과나 관련 학과의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원생을 포함한 강사풀을 만들고, 대학이 속한 지역 내 있는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유아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될 필요가 있음.

나. 프로그램 교육 측면

- 교사교육 시 집합교육 외에 잘 제작된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방법을 병행
- 유아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를 포함한 프로그램 설계를 고려. 또한 부모교육 시 집합교육, 가정통신문, 소책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다. 프로그램 홍보 및 활용 측면

- 신체 건강 증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어려서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건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야 함. 유아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부족한 운동은 소아비만이 될 소지를 높이며 소아비만은 각종 성인병 및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유아기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은 어려서부터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등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국립과학관 등에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연간주제에 적용한 활용안과 활동의 난이도로 편성된 활용안으로 구성⁴⁾되어 있음.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Mission-X, 우주인처럼 훈련해요(Mission X: Train Like an Astronaut) 프로그램」은 우주인을 모티브로 하여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들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는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됨.
- 신체 건강 관련 주요 부처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 모색하도록 함.
 - 우리나라 신체 건강과 관련된 주요 부처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으며, 각 부처별로 신체 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들이 있음.
 - 각 부처의 부서들의 사업 내용이 부처의 성격이 반영되어 특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만, 신체 건강 관련 주요 부처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면 국민의 신체 건강 관련 사업이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4)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용 안은 김길숙 외(2015).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01-105.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김길숙·박원순·송신영(2015).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길숙·박진아·최윤경·임현정·이세용(2016).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I):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민정원·김길숙·임현정·송신영(2014). 유아기 신체건강 증진방안-소아비만 예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 및 부모지원 연구

-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지원 요구 분석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배운진 부연구위원
-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통한 학령초기자녀 육아지원 방안
배운진 부연구위원 · 김은설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7-18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

권미경 | 부연구위원

1.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 필요성
2. 자녀 양육역량과 영향요인
3. 자녀 양육부담과 영향요인
4.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

권미경 | 부연구위원

요약

- 자녀를 기르는 일이 즐거움이기보다 어렵고, 부담스런 일로 보편화되는 상황에 양육지원의 방향이 비용 지원보다는 양육 즐거움 회복과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에 모아져야함.
- 영유아 부모는 양육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나 실제 자신의 역량은 낮게 평가하여 양육에의 자신감이 부족하며 이는 현재 자녀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역량감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영유아 부모대상 1,302명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육역량과 양육부담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가정 내 양육역량강화 방안을 구체화함.
-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현재 제공하는 지원정책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모교육과 정보제공 기회 확대를 제언하며, 특히, 양육 정보, 자신감 부족 등에서 상대적 취약 집단으로 나타난 영아 부모 대상 지원을 특화해야함을 제언함.

1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 필요성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는 일이 즐거움이기보다 어렵고, 부담스런 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양육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나 실제 자신이 역량은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부모의 양육지원 방향이 비용 지원보다는 양육 즐거움 회복과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량강화에 모아져야함.

* 본고는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권미경, 박원순, 엄지원)'을 토대로 구성됨.

- 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역량, 지원역량, 정보 습득 및 이용에 대한 역량 등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의 활용까지도 포괄함.
- 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양육 자신감 회복이 가능하므로 현재 영유아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역량과 양육부담을 진단하고 그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강화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자녀 양육역량과 영향요인

-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돌봄, 지원, 양육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 등, 그 중요도와 현재 영유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스스로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가. 돌봄 역량

- 돌봄 역량은 자녀발달을 이해하고,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돌보아야하는 지 알고, 자녀를 돌보는데 충분한 체력을 지닌 지를 의미함.

〈표 1〉 돌봄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 역량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0.1	0.4	24.0	75.5	100.0 (1,302)	3.7 (0.45)	2.9	40.7	48.6	7.7	100.0 (1,302)	2.6 (0.67)
자녀요구에 민감한 반응	0.1	0.5	31.1	68.3	100.0 (1,302)	3.7 (0.48)	4.1	44.4	44.2	7.3	100.0 (1,302)	2.5 (0.69)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	0.0	0.5	38.0	61.5	100.0 (1,302)	3.6 (0.50)	5.1	45.5	44.0	5.4	100.0 (1,302)	2.5 (0.68)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	0.2	0.2	28.1	71.6	100.0 (1,302)	3.7 (0.47)	19.1	52.7	24.4	3.8	100.0 (1,302)	2.1 (0.76)

주: 4점 척도임.

- 돌봄 역량의 중요 정도에는 '매우 중요함(4점)'에 가깝게 평가하였으나, 현재 어머니 자신의 역량은 '약간 충분함(3점)'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영유아기 어머니들은 특히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에 가장 낮은 역량감(2.1점)을 보여 양육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임.

나. 지원 역량

- 지원 역량으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등 일상적 지원,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요구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 형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함.
- 어머니들은 지원관련 역량 중 정서적 지원에 대한 중요도(3.8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사회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3.5점)에는 낮게 평가함.
- 현재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일상적 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역량감(3.0점)을 보임.
- 친구나 이웃 등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에는 비교적 낮은 역량감(2.3점)을 나타냄.

〈표 2〉 지원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나의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일상에 대한 지원	0.2	1.1	40.6	58.1	100.0 (1,302)	3.6 (0.53)	1.8	20.9	53.7	23.6	100.0 (1,302)	3.0 (0.72)
정서적, 심리적 지원	0.2	0.7	18.3	80.9	100.0 (1,302)	3.8 (0.43)	3.8	41.6	45.2	9.4	100.0 (1,302)	2.6 (0.71)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0.2	0.9	33.7	65.3	100.0 (1,302)	3.6 (0.51)	7.3	40.5	42.2	10.0	100.0 (1,302)	2.5 (0.77)
사회관계(친구, 이웃) 형성	0.2	2.2	44.3	53.4	100.0 (1,302)	3.5 (0.55)	11.4	49.9	32.8	5.8	100.0 (1,302)	2.3 (0.75)

주: 4점 척도임.

다. 양육 정보 역량

- 정보화 사회에서 양육을 위한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은 중요한 역량 요소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정보 접근성),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정보 활용성),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는 지(정보 충분성)로 구분함.
- 영유아 어머니들은 양육 정보 관련 내용에서도 중요도에 비해 역량감을 낮게 평가하면서, 정보의 접근성(2.7점)에 대해 활용성(2.5점)이나 충분성(2.5점)에 비해 다소 높은 역량감을 보임.

〈표 3〉 양육 정보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 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양육관련 정보 접근성	0.1	2.4	54.7	42.8	100.0 (1,302)	3.4 (0.54)	2.7	35.2	51.2	10.9	100.0 (1,302)	2.7 (0.69)
양육관련 정보 활용성	0.1	2.3	49.0	48.6	100.0 (1,302)	3.5 (0.55)	4.3	45.5	42.6	7.5	100.0 (1,302)	2.5 (0.70)
양육관련 정보 충분성	0.2	3.5	52.4	43.9	100.0 (1,302)	3.4 (0.57)	4.2	45.6	43.8	6.5	100.0 (1,302)	2.5 (0.68)

주: 4점 척도임.

라.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

- 현재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활용하는 지도 양육 역량으로 고려됨. 정책인지 인지(3.5점)나 정책 활용(3.6점)의 중요도보다 역량 감(인지, 2.4점; 활용, 2.3점)은 낮은 경향을 보임.

〈표 4〉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양육지원 정책 인지	0.0	1.0	45.2	53.8	100.0 (1,302)	3.5 (0.52)	8.6	50.6	34.4	6.4	100.0 (1,302)	2.4 (0.73)
양육지원 정책 활용	0.1	1.6	41.3	57.0	100.0 (1,302)	3.6 (0.53)	12.7	53.8	27.8	5.8	100.0 (1,302)	2.3 (0.75)

주: 4점 척도임.

마. 양육 역량에의 영향요인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회귀분석 방법으로 고찰함.

 - 돌봄, 지원, 양육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 각각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녀수, 자녀연령, 기관이용 여부,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¹⁾, 맞벌이 여부, 양육부담을 기본 독립변수로 설정함.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자신의 돌봄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beta=.192$)뿐만 아니라 자녀수($\beta=.087$)가 많을수록 돌봄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부담($\beta=-.287$)이 크다고 평가한 경우, 양육역량에 대해 낮게 평가함.
- 어머니의 지원양육역량감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 연령, 기관이용여부, 어머니 학력, 가계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자녀 연령($\beta=-.048$)이 높을수록, 양육부담($\beta=-.300$)이 클수록 낮게 평가하였고,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08$),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대학원졸 이상($\beta=.178$)인 경우와 가구 소득($\beta=.094$)이 높을수록 역량감을 높게 평가함.
- 양육정보역량감에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녀 연령($\beta=-.043$)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beta=-.177$)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어머니 자신의 양육정보역량을 낮게 평가하며,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에 비해 대학원졸($\beta=.178$) 이상에서 양육정보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자녀수($\beta=.089$)가 많을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67$) 정책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양육 부담($\beta=-.215$)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을 낮게 평가함.

1) 가구소득의 경우 편차가 심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하였음.

〈표 5〉 양육역량에의 영향 요인

	돌봄 역량	지원 역량	양육정보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
	β	β	β	β
(상수)	3.246***	2.970***	3.219***	3.066***
자녀수	0.087***	0.028	0.053	0.089**
자녀 연령	-0.006	-0.048***	-0.043**	-0.025
기관 이용	-0.006	0.108**	0.044	0.167**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졸	0.040	0.051	0.015	-0.033
4년제 대졸	0.037	0.109*	0.054	0.007
대학원졸 이상	0.192**	0.178**	0.178*	0.037
가구 소득 ²	-0.016	0.094***	-0.017	-0.046
맞벌이	0.036	-0.034	0.005	0.040
양육부담	-0.287***	-0.300***	-0.177***	-0.215***
R^2	0.110	0.127	0.040	0.043
F	17.757***	20.871***	5.945***	6.526***
N	1,302	1,302	1,302	1,302

* $p < .05$, ** $p < .01$, *** $p < .001$

바. 시사점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자녀의 수가 영향을 미침은 여러 번의 양육경험이 어머니의 역량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역으로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가 보다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감이 떨어진다는 결과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발달을 지원하기위한 부모 역량 강화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함.

3 자녀 양육부담과 영향요인

- 현재 자녀양육 어려움에 대해 1순위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16.4%)임.
 - 긴급 보육과 잠깐의 휴식 제공 요구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관에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줌.

〈표 7〉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명)

구분	전체	
	1순위	1+2+3순위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43.7	67.2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16.4	50.0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11.0	54.8
교육·보육 비용이 부담된다	10.3	37.3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용이 부담된다	5.5	20.1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4.4	25.1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4.1	16.0
수면시간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3.7	25.4
기타	0.8	3.9
계	100.0(1,302)	(1,302)

가. 양육 부담

-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담을 양육 책임자체에 대한 부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정서적 위축,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부담 정도를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부담됨(4점)’의 기준으로 답함(표 8 참조).
 - 전반적으로 ‘다소 부담된다(3점)’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양육 시 경험하는 육체적·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3.2점)이 비교적 높음(표 9 참조).
- 이러한 양육 부담 중 집단의 차이를 보이는 경제적 부담정도에 지역규모, 자녀연령, 자녀 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등에서 집단차이를 확인함.

-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의 연령이 12개월 미만 영영아와 만 4세, 만 5~6세 집단에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부담이 높았음.

〈표 8〉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평균 (표준편차)
부모로서의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3.5	14.8	58.0	23.7	100.0(1,302)	3.0(0.73)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	0.9	12.5	55.5	31.1	100.0(1,302)	3.2(0.67)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2.7	21.6	55.3	20.5	100.0(1,302)	2.9(0.72)
경제적 부담	1.0	13.0	52.3	33.7	100.0(1,302)	3.2(0.69)

주: 4점 척도임.

〈표 9〉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1.0	13.0	52.3	33.7	100.0(1,302)	3.2(0.69)		
지역 규모	대도시	0.6	13.6	50.4	35.5	100.0(529)	3.2(0.69)	4.078*
	중소도시	1.6	13.4	55.2	29.8	100.0(553)	3.1(0.69)	
	농어촌지역	0.5	10.7	49.7	39.2	100.0(220)	3.3(0.67)	
자녀 나이 ²	만0세	2.0	12.7	52.8	32.5	100.0(197)	3.2(0.71)	5.266***
	만1세	1.5	17.3	48.9	32.3	100.0(211)	3.1(0.74)	
	만2세	1.9	13.9	57.2	26.9	100.0(209)	3.1(0.69)	
	만3세	0.0	16.0	53.3	30.7	100.0(226)	3.1(0.67)	
	만4세	0.4	11.4	55.5	32.6	100.0(227)	3.2(0.65)	
	만5~6세	0.4	7.2	46.4	46.0	100.0(232)	3.4(0.64)	
자녀 수	1명	1.0	16.2	52.0	30.8	100.0(696)	3.1(0.70)	9.861***
	2명	1.3	10.3	53.9	34.4	100.0(483)	3.2(0.67)	
	3명 이상	0.0	5.7	47.5	46.7	100.0(123)	3.4(0.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	15.1	52.6	31.1	100.0(677)	3.1(0.70)	-2.741**
	맞벌이아님	0.8	10.8	52.0	36.4	100.0(625)	3.2(0.67)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0.0	3.6	40.8	55.6	100.0(195)	3.5(0.57)	36.067***
	250~350만원	0.0	7.3	56.6	36.1	100.0(374)	3.3(0.59)	
	350~500만원	0.8	14.5	54.2	30.4	100.0(367)	3.1(0.68)	
	500만원 이상	2.8	22.4	52.1	22.7	100.0(366)	2.9(0.75)	

주: 양육역량과 양육부담 변인에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본 분석 시 제외함.

* $p < .05$, ** $p < .01$, *** $p < .001$

나. 양육 부담에의 영향 요인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회귀분석 방법으로 살펴봄.
 - 양육책임 자체,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 문항의 평균값을 종속 변수로 하고 자녀수,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연령,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²⁾, 맞벌이 여부, 양육역량을 기본 독립변수로 함.

〈표 10〉 양육부담에의 영향 요인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신체적(체력) 부담	심리·정서적 위축감/부담	경제적 부담
	β	β	β	β
(상수)	4.087*	3.922***	4.424***	5.766***
자녀수	0.066	0.005	0.067	0.053
자녀 연령	-0.065	-0.030*	-0.069	0.055
기관 이용	-0.019	-0.030	0.008	0.014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졸	0.074	0.061	0.039	-0.079
4년제 대졸	0.131*	0.129*	0.048	-0.199**
대학원졸 이상	0.127	0.133	-0.075	-0.311***
가구 소득 ²⁾	-0.040	-0.025	-0.108*	-0.287***
맞벌이	0.002	0.033	0.045	0.044
양육역량	-0.351***	-0.232***	-0.375***	-0.383***
R^2	0.054	0.037	0.071	0.164
F	8.126***	5.483***	10.988***	28.067***
N	1,302	1,302	1,302	1,302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beta=.131$) 부담이 더 높았고, 양육역량($\beta=-.351$)을 높이 평가할수록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가구소득의 경우 편차가 심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하였음.

-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자녀 연령($\beta=-.030$)이 높고 양육 역량 감($\beta=-.232$)을 높게 평가할수록 신체적 부담을 낮게 평가하며,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beta=.129$)인 경우 양육 시 신체적(체력)부담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정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beta=-.108$)이 높고 양육 역량감($\beta=-.375$)을 높게 평가할수록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beta=-.199$), 대학원졸 이상($\beta=-.311$), 가구소득($\beta=-.287$)이 높을수록, 양육 역량($\beta=-.383$)을 높게 평가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낮다고 평가함. 자녀연령이나 취업유무는 집단차이는 보이거나 영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음.

다. 시사점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구소득은 심리적 위축, 경제적 부담 등에서의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음. 이는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 지원의 틀 안에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방안 모색을 필요로 함.
- 신체적 부담에 자녀연령이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는 영아 자녀일수록 수면습관이 불규칙하고, 자조기술 발달이 부족하여 양육자의 신체적 부담이 클 것임을 예측하게 함. 이는 자녀 양육에 심포를 제공하지는 시간제보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영아기 부모임을 보여줌.

4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 제언을 위한 논의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요인으로 자녀 수와 자녀 연령이 설명력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로 역량강화 기회가 필요함.

- 자녀양육과정에 요구되는 돌봄 역량, 지원 역량, 양육 정보 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 등에 대해 어머니들은 그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지원중인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양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에의 활용도와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함.
- 국가 지원에 수반되는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음과 양육지원에의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방안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는 가구소득이 심리적 위축,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음.
- 영아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육아에 잠시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용이나 함께 양육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양육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에의 접근 기회 확대를 도모해야함.
- 양육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체력적인 역량감이 떨어지고 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높음은 확인함.
-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소통의 통로 확보와 활성화가 필요함.
-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은 영유아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소한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출생신고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푸시 서비스 방식의 정책 안내를 제언함.
- 영영아 가구와 첫째 자녀 양육 가구, 저소득 가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가구들이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고, 정책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각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가정 내 양육 역량강화는 자녀의 출생, 성장과 더불어 부모도 성장하는 가족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그 기회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 제언

- 가정 양육역량강화 방안으로 현재 제공하는 지원정책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모교육 기회확대와 정보제공 강화를 제언하면서, 본 연구 결과 정보, 자신감 부족 등으로 상대적 취약 집단으로 나타난 영아 부모 대상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1) 정책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증진 방안

- 주민센터에 ‘미래인적 자원 육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 및 ‘양육지원요원’ 배치하며, 또한 전국에 촘촘하게 확산되어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 거점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 거점 설치 방안
 -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 양육지원 거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핵가족화와 이웃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 ‘양육지원요원’ 주민센터 배치 방안
 - 영유아 자녀를 둔 정책의 수요자에게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이용 신청까지 제공하기 위함.
 - 주민센터에 상근하는 ‘양육지원요원’은 임신, 출산, 양육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 시 그 신청까지 지원하는 것임. 중앙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사업을 안내 홍보하며, 영유아 놀이 공간, 병원, 예방접종 장소 등에서 다양한 양육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간단한 양육 상담도 실시함.
 -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공간을 설치하고 ‘양육지원요원’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호주의 ‘센터링크’ 개념을 접목하여 출생 신고 시부터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의 거점으로 활용
 - 독일의 패밀리센터, 우리나라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안임.

- 전국에 어린이집이 약 4만 1천여 개, 유치원은 8천여 개가 있는 상황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강점을 지니며, 또한, 양육 전문성을 지닌 원장과 교사가 양육 지원에의 안내 및 상담, 교육 기능 담당 가능함.
- 농어촌 지역에는 찾아가는 지원 사업 활성화
 - 외출이 어려운 영아, 환아, 야간 및 긴급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 지역사회 거점 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영유아와 가정으로는 찾아가는 양육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서 돌봄 방법을 안내하고 양육 상담과 기본적인 건강 및 영양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는 세종자치시의 방문간호사 제도나 독일의 헤베마가 대표적인 사례임.
 - 특히 이용이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렵거나,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은 경우 필요 충족을 위해 신규 설치나 확대는 소요 비용이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2) 부모교육 기회 확대

- 국가수준의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초 마련
 - 부모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책영역으로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여성가족부(2016.3.29.)의 ‘부모교육 활성화방안’이 배포되었으나 법제화가 필수적임.
- 부모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적 교육 모형 개발을 제언함.
 -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도 함께 성장함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해야함.
- 부모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묘안 찾기
 - 부모교육은 늘 관심 있는 부모들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역량강화가 더 요구되는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 접근성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제공 시 직장, 군부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교육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함.
 - 영유아가 부모대상 교육 시에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린이 집과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을 영유아 대상 부모교육의 거점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임.

3) 양육 정보 제공 강화

■ 국가 수준의 양육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구성 발간

- 영유아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발달에 맞는 양육지침서, 연령별 놀이활동지침서, 정책안내서를 구성·제공하자는 것임.
- 최근 영유아와 그 부모 대상 정책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한 지자체의 특화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정책수요자에게 정책 변화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은 정책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 중앙 정부의 공통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자체로 보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화사업이나 양육관련 정보를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보완하는 방법임.

■ 국가 수준에서 신뢰로운 온라인 육아정보 플랫폼을 구축함.

- 영유아 부모가 지역막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는 생생한 정보의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정보에 있어 마치 집단지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많아 웹상의 올바른 정보 안내가 필요함.

4) 영아기정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 거점형 영아 양육지원 센터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 자신감이 부족한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발달전문가가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부모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역사회 내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공동주택의 특정 공간(아파트 공용 공간) 등을 이용함.
-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정도로 하고 예약을 받아 운용하며 필요하다면 부모 자부담으로 하거나 지자체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 대안적 접근으로 초기 영아 양육지원 센터의 설치에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운용을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 아파트 주민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가능함.

□ 육아서포터즈 사업: 가천대 세살마을 사업 확산 방안

- 영영아 및 영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육아서포터즈가 방문하여 양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양육역량 및 자신감 회복뿐 아니라, 지속 방문으로 양육자와 육아서포터즈와의 라포 형성으로 양육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지원까지도 가능함.
- 영유아와 그 부모, 그 속한 지역사회, 학계 전문가, 후원자로의 기업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함께 키워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이와 더불어 육아경험을 지닌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로 선발하는 육아서포터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출산 전 예비부모교육, 3개월 경,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총 6회의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교육 내용은 양육 정보제공, 놀이방법, 육아기술에 대한 교육제공 및 실제 양육 상황에서의 코칭, 양육자 건강상태 스트레스 지수 확인 등 각 시기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안내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 사례와 양육 상담을 제공함.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세살마을 사업을 기획하여, 후원체(기업), 지원체(세살마을 연구진), 운영체(지자체)로의 역할을 분담함.

참 고 문 헌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19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지원 요구 분석

문 무 경 |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한부모의 부모됨 인식의 특징
3. 한부모 자녀양육관의 특징
4. 한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지원 방안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지원 요구 분석*

문 무 경 | 선임연구위원

요 약

- 한부모는 자녀 출산 전에 경제력보다도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인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좋은 부모됨의 조건으로 경제력보다 '자녀와의 소통'을 가장 중시하고 부족한 부모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자 노력함.
- 한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녀 뿐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과 치유를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함.
- 한부모는 주변의 편견과 간섭으로 인한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긴급한 상황에도 지원을 요청할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녀 혼자 있게 하는 경우가 있음(6.7%). 또한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여 양육정보를 습득함.
- 한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정책은 보육료·교육비, 탄력근무제 순임.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 출근~자녀등원 사이의 시간, 자녀하원~부모 퇴근 사이 시간에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탄력 근무제를 통해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서론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15년 30대 이하의 한부모 비율이 21.4%에서 25.3%로 증가하였고, 40대의 한부모의 비율이 여

* 본 이슈페이퍼는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연구」(문무경, 조숙인, 김정민)를 토대로 작성됨.

- 전히 가장 높음(2012년 63.7%, 2015년 61.2%)(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 2015:29).
- 대부분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가 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김은지 외, 2015:33), 2015년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가족의 비율이 47.3%,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가족 비율이 19.8%임(김은지 외, 2015:35).
 - 미취학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는 한부모의 실제 양육가치관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
 - 한부모가정 전체의 2015년 월평균소득은 약 189.6만원이며,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의 소득은 약 157만원으로 가장 낮아 양육·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큼(김은지 외, 2015:128-129).
 -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한부모 부재 시 대신 자녀 돌봄 대상을 찾는 어려움을 호소함(김은지 외, 2015:88).
 - 특히, 편부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형성 및 아버지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큼(박현정·이기연·정익중, 2013:209-211).
 - 본 고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한부모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이혼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한부모 조사의 응답자 특성과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은 이혼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고 있는 30~40대 성인, 총 107명임(여성 70명, 남성 37명).
 - 대부분 취업 상태로, 교육수준은 대졸 미만 42명, 대졸 이상 65명임. 월 가구소득은 300만 미만 68명, 300만 이상 39명임.

〈표 1〉 한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 (수)	구분	백분율 (수)
전체	100.0 (107)	자녀수	
성별		1명	57.9 (62)
여성	65.4 (70)	2명	36.4 (39)
남성	34.6 (37)	3명 이상	5.6 (6)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대졸 미만	39.3 (42)	300만 미만	63.6 (68)
대졸 이상	60.7 (65)	300만 이상	36.4 (39)

구분	백분율 (수)	구분	백분율 (수)
거주지역		취업상태	
도시(동)	72.9 (78)	취업	90.7 (97)
읍면	27.1 (29)	미취업	9.3 (10)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25.

- 조사 내용은 자녀의 필요성과 준비, 양육태도와 정서, 양육의 어려움, 자녀와 보내는 시간 및 양육정보 습득, 지원 요구 등임.

2 한부모의 부모됨 특징

가. 한부모의 자녀가치 및 부모됨 준비

- 한부모 응답자의 82.2%가 자녀가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여김. 그러나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준다는 것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음.

〈표 2〉 자녀의 필요성 및 자녀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자녀의 필요성	없는 것이 더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꼭 있어야 한다	계(수)	
전체	0.9	16.8	29.9	52.3	100.0 (107)	
여성	0	21.4	34.3	44.3	100.0 (70)	
남성	2.7	8.1	21.6	67.6	100.0 (37)	
$\chi^2(df)$	8.25(3)*					
자녀 가치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전체	3.6	2.7	3.0	2.2	2.0	2.5
여성	3.5	2.8	3.0	2.2	1.8	2.5
남성	3.7	2.7	3.0	2.1	2.4	2.5
t	-1.5	0.5	-0.3	0.5	-3.2**	-0.3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50-151.

* $p < .05$, ** $p < .01$

- 한부모의 경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리·정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함. 특히, 이혼함으로써 한부모가 된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초과함(55.1%).
- 반면, 자녀때문에 한부모가 된 것을 가끔 후회한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남. 즉, 자녀가 타인을 의식하거나 위축될 때,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혼을 후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성이 다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역할에 한계를 느낄 때'와 '혼자 벌어 기르기에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각각 18.8%로 많음.

〈표 3〉 한부모됨의 선택 및 후회 이유

단위: %(명)

한부모됨 선택 이유	자녀 때문에 한부모가 된 것을 이따금씩 후회한 적이 있다		한부모가 된 것은 자녀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계(수)	
전체	44.9		55.1				100.0 (107)	
여성	42.9		57.1				100.0 (70)	
남성	48.6		51.4				100.0 (37)	
$\chi^2(df)$	0.328(1)							
한부모됨 선택 후회 이유	① 이성 자녀에게 부모역할 한계 느낌	② 자녀가 부모이혼으로 위축됨	③ 경제력이 충분치 않음	④ 긴급 상황에 자원요청할 사람 없음	⑤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 많음	⑥ 자녀가 자신 때문에 이혼했다고 여길 때	기타	계(수)
전체	18.8	41.7	18.8	8.3	8.3	2.1	2.1	100.0 (48)
여성	13.3	46.7	26.7	3.3	3.3	3.3	3.3	100.0 (30)
남성	27.8	33.3	5.6	16.7	16.7	0.0	0.0	100.0 (18)
$\chi^2(df)$	10.406(6)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 ~ '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성이 다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역할에 한계를 느낄 때
- ②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타인을 의식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된다고 생각될 때
- ③ 혼자 벌여 자녀를 기르기에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 ④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 상황에 양육지원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
- ⑤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 ⑥ 자녀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할 때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53-154.

- 또한 한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는 대학 졸업까지(36.4%), 대학 입학 전까지(26.2%) 순으로 많고, 평생 동안은 17.8%로 나타남. 경제적지지 역시 대학 졸업까지(46.7%), 대학 입학 전까지(22.4%), 취업까지(15.9%) 순임.

- 이는 본 연구의 20~50대 일반부모가 정서적 지지는 평생 동안(33.4%)이 가장 높으며, 경제적 지지는 대학 졸업까지(49.3%), 취업까지(23.6%), 결혼까지(12.0%) 순으로 높게 응답한 것에 비하여 다른 양상을 나타냄.

〈표 4〉 자녀 지원시기

단위: %(명)

구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평생 언제라도	계(수)
정서적 지지	26.2	36.4	14.0	4.7	0.9	17.8	100.0 (107)
경제적 지지	22.4	46.7	15.9	6.5	3.7	4.7	100.0 (107)
20~50대 일반부모							
정서적 지지	19.5	17.2	8.1	12.3	9.5	33.4	100.0 (1,013)
경제적 지지	9.9	49.3	23.6	12.0	3.0	2.3	100.0 (1,013)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56.

나. 한부모의 좋은 부모됨의 조건 및 부모역할 수행

- 한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됨의 조건으로는 자녀와의 소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의 편견과 간섭이 가장 많이 지적됨. 과반 수 이상의 한부모가 한부모라는 사실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5〉 좋은 부모됨의 조건 및 걸림돌

단위: %(명)

좋은 부모됨의 조건	경제력	정서적 지지	자녀 관심과 사랑	책임감	자녀와의 소통	인내심	바른 인성	근면·성실성	믿음	지식·지성	건강함	계(수)
전체	16.8	9.3	5.6	0.9	32.7	19.6	8.4	2.8	0.9	0.9	1.9	100.0 (107)
여성	14.3	8.6	5.7	1.4	31.4	21.4	8.6	2.9	1.4	1.4	2.9	100.0 (70)
남성	21.6	10.8	5.4	0.0	35.1	16.2	8.1	2.7	0.0	0.0	0.0	100.0 (37)
$\chi^2(df)$	3.996(10)											
좋은 부모됨의 걸림돌	경제력	주변의 편견과 간섭	인내력	권위적인 태도	세대 차이	직장생활로 함께하는 시간 부족	자녀에 대한 기대치	공감능력 부족	계(수)			
전체	29.0	36.0	4.0	7.0	7.0	10.0	2.0	5.0	100.0 (100)			
여성	29.9	32.8	3.0	7.5	7.5	11.9	3.0	4.5	100.0 (67)			
남성	27.3	42.4	6.1	6.1	6.1	6.1	0.0	6.1	100.0 (33)			
$\chi^2(df)$	3.123(7)											

좋은 부모됨 한부모의 제약	한부모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기에 한계가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한부모라서 제약이 되지는 않는다	계(수)
전체	43.9	56.1	100.0 (107)
여성	42.9	57.1	100.0 (70)
남성	45.9	54.1	100.0 (37)
$\chi^2(df)$	0.094(1)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56-157.

- 한부모(48.6%)는 기혼 유자녀 부모(23.9%)에 비해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 2배 정도 많음.
 - 특히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300만 미만에서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 소득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부모역할이 부족한 점으로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부족, 배우자 부재로 인한 성역할 모델링 부족 등을 보고함.
 - 자신의 부모 역할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한부모 중 49.1%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한다고 응답하였고, 27.3%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제로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부모역할 수행 평가, 부족한 점 및 보완 방법

단위: %(명), 점

부모역할 수행 평가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계(수)	5점 평균	
전체	9.3	39.3	47.7	3.7	100.0 (107)	2.5	
여성	12.9	35.7	48.6	2.9	100.0 (70)	2.6	
남성	2.7	45.9	45.9	5.4	100.0 (37)	2.5	
$\chi^2(df)/t$	3.772(3)					0.9	
300만원 미만	7.4	30.9	57.4	4.4	100.0 (68)	2.4	
300만원 이상	12.8	53.8	30.8	2.6	100.0 (39)	2.8	
$\chi^2(df)/t$	8.024(3)*					-2.5*	
20~50대 일반부모	2.4	21.5	49.4	23.5	100.0 (697)	3.0	
부모역할 부족한 점	양육 지식	정서적 지지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 지도	경제적 지원	배우자 부재로 인한 성역할 모델링	계(수)
300만원 미만	11.9	19.0	7.1	2.4	45.2	14.3	100.0 (42)
300만원 이상	0.0	30.8	0.0	23.1	7.7	38.5	100.0 (13)
$\chi^2(df)$	15.697(5)**						

보완 방법	①	②	③	④	⑤	기타	계(수)
전체	9.1	49.1	9.1	27.3	3.6	1.8	100.0 (55)
여성	5.6	50.0	11.1	25.0	5.6	2.8	100.0 (36)
남성	15.8	47.4	5.3	31.6	0.0	0.0	100.0 (19)
$\chi^2(df)$	3.699(5)						

주: 1)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20~50대 조사 결과 중 '매우 충분함(3.2%)'을 제외하고 비교함.

3) 보완방법: ① 양육 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함/ ②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노력/ ③ 자녀의 학업 지도를 위해 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직접 자녀 학업을 지도함/ ④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간제로 추가 근무를 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봄/ ⑤ 배우자를 대신 하여 성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혈연 및 비혈연 성인과 만남 제공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58-160.

* $p < .05$, ** $p < .01$

- 한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 방법(53.3%), 한부모가 이용가능한 제도와 서비스 안내(50.5%) 등이 높게 응답됨.

〈표 7〉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원만한 관계 유지방법	자녀와의 소통방법	성이 다른 자녀의 양육지원 전략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안	한부모로서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극복 방안	한부모가 이용가능한 제도와 서비스 안내	(수)
전체	28.0	12.1	15.0	53.3	41.1	50.5	(107)
여성	25.7	14.3	10.0	57.1	42.9	50.0	(70)
남성	32.4	8.1	24.3	45.9	37.8	51.4	(37)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1.

3 한부모의 자녀양육관

가. 한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정서

- 한부모는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에 관심이 많으며(3.3점/5점 기준), 엄격한 부모상에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잘못할 경우, 체벌할 수 있음에 도시지역과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동의 수준이 높고, 읍면지역과 300만원 이상에서는 낮음.

- 또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함’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3.3점/5점 기준).

〈표 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점), (명)

구분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수)
전체	3.0 (0.6)	2.6 (0.6)	2.9 (0.7)	3.3 (0.5)	3.1 (0.5)	2.6 (0.6)	2.0 (0.7)	(107)
여성	3.0 (0.6)	2.5 (0.6)	2.9 (0.7)	3.3 (0.6)	3.1 (0.5)	2.5 (0.6)	2.0 (0.7)	(70)
남성	3.0 (0.5)	2.7 (0.5)	2.8 (0.6)	3.2 (0.5)	3.1 (0.5)	2.6 (0.6)	2.2 (0.7)	(37)
<i>t</i>	-0.1	-1.7	0.4	0.6	0.1	-1.2	-1.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 (0.6)	2.6 (0.6)	3.0 (0.6)	3.3 (0.5)	3.1 (0.5)	2.6 (0.6)	2.0 (0.7)	(68)
300만원 이상	3.0 (0.6)	2.6 (0.6)	2.6 (0.8)	3.3 (0.6)	3.1 (0.5)	2.4 (0.6)	2.1 (0.7)	(39)
<i>t</i>	0.6	-0.1	2.6*	-0.3	0.2	1.4	-1.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2.

- 자녀 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측면은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가 38.3%로 가장 높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30.8%, ‘자녀의 성장에 대한 성취감’ 29.9% 순임.
 - 특히 여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크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표 9〉 자녀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점

단위: %(명)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수)
전체	29.9	38.3	30.8	0.9	100.0 (107)
여성	21.4	37.1	41.4	0.0	100.0 (70)
남성	45.9	40.5	10.8	2.7	100.0 (37)
$\chi^2(df)$					14.188(3)**

주: 20~50대 조사 결과 중 ‘자녀 돌봄과 지도(2.0%)’를 제외하고 비교함.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5.
 ** $p < .01$

-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이 27.1%로 가장 높고, 일·가사의 병행 25.2%, 자녀의 심리적 안정 18.7% 순으로 나타남.

〈표 10〉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부모 개인 시간 부족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 상황에 양육지원자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5.2	27.1	2.8	5.6	18.7	0.9	4.7	8.4	5.6	0.9	100.0 (107)
여성	28.6	27.1	1.4	4.3	20.0	0.0	5.7	7.1	5.7	0.0	100.0 (70)
남성	18.9	27.0	5.4	8.1	16.2	2.7	2.7	10.8	5.4	2.7	100.0 (37)
$\chi^2(df)$	7.72(9)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6.

나. 한부모의 양육시간, 비용 및 양육정보 습득

- 한부모의 영유아기 자녀는 부모 출근 후 이용기관에 등원 및 기관 등원 후 부모 퇴근 전까지 혼자 보내는 비율이 각각 33.6%, 34.6%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출근 후와 퇴근 전에 자녀를 돌보아 줄 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긴급한 상황, 예상치 못한 연장근무 시에는 조부모와 혈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음(59.8%). 친·인척 이외의 사회적 양육지원을 받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자녀 혼자 있는 경우도 6.7%임.

〈표 11〉 상황별 주된 양육 지원자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조부모 외 혈연자	전 배우자	아이돌 보미, 시터	학원	이웃, 친구 부모	초등돌봄,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	직접 돌봄	자녀 혼자	등·하교(원)시간에 맞춰 조정	기타	계(수)
아프거나다치는 긴급상황	37.4	21.5	4.7	-	-	0.9	0.9	26.2	4.7	2.8	0.9	100.0 (107)
예상치 못한 야근, 휴일근무	41.1	19.6	2.8	-	-	1.9	-	8.4	23.4	0.9	1.9	100.0 (107)
부모 출근 후 ~자녀 등원 전	33.6	8.4	0.9	1.9	1.9	-	0.9	13.1	33.6	4.7	0.9	100.0 (107)
자녀 하원 후 ~부모 퇴근 전	33.6	6.5	1.9	1.9	4.7	-	2.8	8.4	34.6	4.7	0.9	100.0 (107)

주: 근무시간과 관련한 문항의 '직접 돌봄'에는 미취업 부모의 응답을 포함함.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7.

-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 간 소통이 없는 경우가 49.5%로 거의 절반에 가까움. 전 배우자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29%로 주당 평균 1회도 채 만나지 못하는 것(주당 평균 0.9회)으로 조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한부모 전체의 79.5%가 자녀와 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식함.

〈표 12〉 자녀와 전 배우자 간 소통방법, 빈도 및 평가

단위: %(명), 회(명)

구분	자녀와 전 배우자 간 소통방법					정기적 만남 빈도		
	정기적으로 얼굴보고 만남	생일 등 특별한 날 만남	전화, 이메일, sns 등 이용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음	계(수)	평균(주)	표준편차(주)	(수)
전체	29.0	11.2	10.3	49.5	100.0 (107)	0.9	1.7	(31)
성별								
여성	25.7	10.0	14.3	50.0	100.0 (70)	0.8	1.6	(18)
남성	35.1	13.5	2.7	48.6	100.0 (37)	1.1	1.8	(13)
$\chi^2(df)/t$	4.176(3)					-0.4		
전 배우자의 소통평가	전혀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원활한 편이다	매우 원활하다	계(수)	4점 평균		
전체	0.9	19.6	69.2	10.3	100.0 (107)	2.9		
여성	0.0	17.1	70.0	12.9	100.0 (70)	3.0		
남성	2.7	24.3	67.6	5.4	100.0 (37)	2.8		
$\chi^2(df)/t$	3.856(3)					1.7		

주: 평균은 '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9.

- 한부모는 양육비용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37.9%를 지출하며, 응답자의 64.5%가 양육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81.3%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함.
- 특히,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한부모가 느끼는 부담정도는 평균 2.9점으로 높음.

〈표 13〉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지출비용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비용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 정도					
	평균	표준편차	(수)	매우 부담	부담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계(수)	4점 평균
전체	37.9	18.5	(107)	13.1	51.4	30.8	4.7	100.0 (107)	2.7
여성	38.8	20.0	(70)	17.1	50	30	2.9	100.0 (70)	2.8
남성	36.1	15.5	(37)	5.4	54.1	32.4	8.1	100.0 (37)	2.6
t	0.7			4.101(3)					1.6

구분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비용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수)	매우 부담	부담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계(수)	4점 평균
300만원 미만	40.0	20.2	(68)	17.6	54.4	23.5	4.4	100.0 (68)	2.9
300만원 이상	34.1	14.7	(39)	5.1	46.2	43.6	5.1	100.0 (39)	2.5
<i>t</i>	1.7			6.559(3)					2.3*

주: 평균은 '전혀 비부담' 1점~'매우 부담'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70.

* $p < .05$

- 아버지 한부모의 경우는 양육비 지원받는 경우가 13.5%에 불과함(어머니 한부모 45.7%).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 월평균 약 61만5천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14〉 전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지원 여부 및 월 평균 지원비용

단위: %(명), 원(명)

구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 여부				월 평균 지원비용
	받은 적 없음	정기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받음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계(수)	평균(수)
전체	72	12.1	15.9	100.0 (107)	614,706 (17)
여성	64.3	14.3	21.4	100.0 (70)	590,000 (15)
남성	86.5	8.1	5.4	100.0 (37)	800,000 (2)
$\chi^2(df)$	6.33(2)*				-0.9

자료: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71-172.

* $p < .05$

- 20~50대 일반부모의 70%가 친구와 부모 등으로부터 양육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한 것에 비해, 한부모의 주된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인터넷이 33.6%임. 한편, 한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정보원은 부모 및 친인척(35.5%)으로 나타남.

〈표 15〉 양육정보 습득경로 및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원

단위: %(명)

양육정보 습득경로	부모, 친인척 등	친구, 이웃, 부모 등	인터넷	TV 프로그램	육아 서적	기타	계(수)
전체	26.2	20.6	33.6	10.3	8.4	0.9	100.0 (107)
여성	22.9	22.9	31.4	10.0	11.4	1.4	100.0 (70)
남성	32.4	16.2	37.8	10.8	2.7	0.0	100.0 (37)
$\chi^2(df)$	4.398(5)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원	부모 및 친인척 등	친구, 이웃, 부모 등	인터넷	TV 프로그램	부모 교육 (센터등)	육아 서적	기타	계(수)
전체	35.5	17.8	12.1	13.1	9.3	11.2	0.9	100.0 (107)
여성	30.0	18.6	11.4	17.1	8.6	12.9	1.4	100.0 (70)
남성	45.9	16.2	13.5	5.4	10.8	8.1	0.0	100.0 (37)
$\chi^2(df)$	5.589(6)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72-173.

4 한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지원 방안

가. 한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 한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은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24.3%), ‘탄력근무제’(17.8%), ‘육아휴직’(13.1%) 순임.
 - 여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탄력근무제’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보육료·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높음.
 -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300만원 이상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16〉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구분	불임 부부 지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탄력 근무제	보육료 교육비 지원	가정양 육수당 지원	방과후 돌봄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계(수)
전체	2.8	7.5	13.1	17.8	24.3	3.7	5.6	0.9	24.3	100.0 (107)
성별										
여성	4.3	5.7	15.7	22.9	15.7	1.4	2.9	1.4	30.0	100.0 (70)
남성	0.0	10.8	8.1	8.1	40.5	8.1	10.8	0.0	13.5	100.0 (37)
$\chi^2(df)$	21.458(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5.9	11.8	17.6	14.7	4.4	5.9	1.5	35.3	100.0 (68)
300만원 이상	2.6	10.3	15.4	17.9	41.0	2.6	5.1	0.0	5.1	100.0 (39)
$\chi^2(df)$	18.069(8)*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80.

* $p < .05$, ** $p < .01$

-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의 자녀교육관련 프로그램,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17〉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계(수)	5점 평균
개인상담	1.9	11.2	34.6	42.1	10.3	100.0 (107)	3.5
부모교육	1.9	12.1	28.0	45.8	12.1	100.0 (107)	3.5
자녀교육	0.9	12.1	23.4	37.4	26.2	100.0 (107)	3.8
자조모임	5.6	24.3	36.4	28.0	5.6	100.0 (107)	3.0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	5.6	7.5	22.4	40.2	24.3	100.0 (107)	3.7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 1점~'매우 필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82.

- 편부의 경우는 편모에 비하여 자조모임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18〉 한부모가정 자조모임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어느 정도 필요	매우 필요	계(수)	5점 평균
전체	5.6	24.3	36.4	28.0	5.6	100.0 (107)	3.0
여성	2.9	31.4	38.6	21.4	5.7	100.0 (70)	3.0
남성	10.8	10.8	32.4	40.5	5.4	100.0 (37)	3.2
$\chi^2(df)/t$	10.373(4)*						-1.2

자료: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82.

* $p < .05$

- 한편,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응답자의 3.7%에 불과하며,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54.2%에 달함.

나. 한부모의 양육지원 방안

- 무엇보다도 한부모가정의 증가는 표준적인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을 시사함.
- 한부모가정은 부모로서의 심리정서적 준비와 자녀와의 소통 및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를 우선시하므로,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의 활성화 및 출퇴근 시간 전후 돌봄 서비스 제공

- 특히,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린 자녀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한부모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한부모의 공백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
- 상당수의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므로(응답자의 64.5%)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직 정보 제공 및 구직 상담 제공
- 한부모는 특히 미디어(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넷스마트폰 등) 활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육아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므로,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에서는 주말 여가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되는 육아정보와 최신 정책 정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기제가 필요함.
- 또한 주변의 편견과 간섭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소 심리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친인척 지원체제, 개별상담 및 한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함.
- 특히, 편부가정의 경우, 자조모임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함.
-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한부모가 많으므로(응답자의 52%),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을 통하여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의 위치 및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 알려서 한부모의 육아에 실질적인 기여도를 제고함.

참 고 문 헌

-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혜영·김상돈·박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성희·이대균(2011).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313-335.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2008).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II)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현정·이기연·정익중(2013). 이혼한 한부모 아버지의 양육경험-가정이라는 밀림 속으로 들어간 남자. 한국가족복지학, 41, 199-224.

최연실·고선주·권희경·남영주·배희분·성미애·송명숙·양현아·이경희·이소영·이재림·장주영·정정기·조은숙·진미정·최새은(2015). 한국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이슈페이퍼 2017-20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

이 윤 진 | 연구위원

1. 아버지 양육참여의 필요성
2. 아버지 양육지원 제도
3.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역량 실태
4.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방안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

이 윤 진 | 연구위원

요 약

- 정부는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성육아휴직 사용을 독려, 배우자출산휴일 확대(유급휴가 확대), 아빠의 날 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옴. 남성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녹녹치 않은 기업문화, 초과근무의 일상화가 우리사회의 현주소임.
-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버지 교육, 아빠 자조모임 활성화 등 아버지 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임.
- 자녀연령(생후 12개월 이상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아버지, 초과근무가 적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보다 양육역량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이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아버지, 자녀양육에 관심이 높은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임.
- 영유아 아버지의 경우, 양육역량 4개 영역 중에서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 점수가 낮게 나옴.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측면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육아시설 인프라 부족으로도 해석 가능함.
- 아버지의 양육역량 증진을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방안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장려, 남성 육아휴직제도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확대, 칼 퇴근법 제정 등을 제안함. 아버지 대상 교육 지원으로는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의 자녀에게 국공립 기관 입소 시 가산점 부여,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아버지에게 연차 지원 또는 유급휴가 지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의 예산 지원, 지역사회에 ‘아빠카페’ 개설 등을 제시함.

* 본고는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이 수행한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1 아버지 양육참여의 필요성

-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Parke는 이를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라 명명함.
 -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임(Parke, 2000).
 - 초저출산 시대에 한명 한명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아버지 육아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이 중요한 이유임.
- 그러나 실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매우 짧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결과임.
 - 유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1.3시간, 주말 4.1시간임. 반면, 취업모의 양육참여시간은 평일 3.5시간, 주말 7.5시간임(김은설, 2012).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참여시간이 평일은 약 3배, 주말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정책적으로 아버지 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저조함. 본고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양육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 아버지의 양육역량 증진방안을 모색함.
 - '양육역량'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기능뿐 아니라 양육자로 해낼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잠재력까지 포함된 용어임.
 - 본고에서 활용한 아버지 양육역량은 인식, 실행, 성장의 3개 역량의 각 역량별로 4개 영역(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으로 구성함.¹⁾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기술함.

2 아버지 양육지원 제도

가. 법제도

-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19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음(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4).
 -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함(법 제18조의2).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을 적용 받아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함.
 -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친화기업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됨. 남성 육아참여 관련 지표를 보면, 중소기업은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지표는 5점 가점이지만, 대기업은 필수항목으로 포함됨.

나. 정책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총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양성평등관점에서 남성(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지원해 옴.
 - 제1차(2006~2010)에서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무급 3일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제2차(2011~2015)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제로 지원을 강화함.
 - 제3차(2016~2020)는 브릿지(BRIDGE) 플랜이라 해서, 여기서 'D'는 'Daddy'의 이니셜로서, 남성의 가사일과 양육참여를 강조함. 현재 약 5% 수준인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발표함.

2) 건강가정 기본계획

- 제1, 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남성의 참여도는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음(대한민국정부, 2016:8).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 등의 남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조함(대한민국정부, 2016:10).

3) “100인의 아빠단”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11년 “100인의 아빠단”을 출범함.
 - 100인의 아빠단은 2015년까지 약 750여명의 아빠들이 참여하였는데, 선정된 멘토 및 초보아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빠들만의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는 아빠 육아모임임(보건복지부, 2015:11-13)

4) “워킹대디 사업”

-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와 아버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발표함.

- 육아참여, 자녀와의 교감 방법 등 워킹대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아버지 교육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 아버지 모임 지원과 학부모회 참여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 문화 확산 등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의 제시함(여성가족부, 2015:45-46).
- 2016년 6월 기준으로 6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82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함(여성가족부, 2016:9).

다.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조아 아빠교실’, ‘아이조아 놀이교실’를 운영함.
 - “아이조아 아빠교실”은 서울시청 인근(행정구역 중구)의 영유아 자녀를 둔 남성 직장인들 50명 내외 대상으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카드 회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임. 직장인들 점심 시간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5,000원임(점심도시락과 강의 자료 제공).
 - “아이조아 놀이교실”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빠참여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함.

2)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 교육 및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변경함 (표 1 참조).
 - 2016년도에 강조된 사업이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강화, 아버지 자조모임 활성화, 요일구분 없이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임.

〈표 1〉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달라진 내용 일부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변경사유
사업 방향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예비 직장맘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교 육 내용 추가 - 아버지 교육 중 일부를 직장맘 남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 로그램 활성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활성화 - 관공서·공공기관· 학교·기업·군부대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활성화 - 아버지 교육 중 일부를 직장맘 남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 로그램 활성화 - 육아정보 공유를 위해 아빠자조모임 운영·지원	찾아가는 부모(아버지)교육을 강화하고 아빠 자조모임 활성화 명시
가족 돌봄 사업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돌봄 프로그램 - 토요일/공휴일 2시간 이상, 연간 24 시간 이상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 - 1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대를 위해 요일구분 없이 사업 확대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8-9.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렌디’ 사업

- 프렌디는 친구(friend)와 아빠(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는 아빠, 우리 아이가 원하는 아빠의 의미를 갖음(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
 셔, 2016).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아버지 대상 집합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신나는 아빠놀
 이티), 아빠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개 주중 저녁
 이나 주말에 실시하고 있음.

3) 유아교육진흥원

-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
 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비중이 적으나, 일부 진흥원에
 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역량 실태

-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전국의 아버지 1,500명 대상(영아 500명, 유아 500명, 초등 1, 2학년 500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을 객관화하기 위해 아버지 표집과 동일한 표집방법으로 어머니 1,500명(영아 500명, 유아 500명, 초등 1, 2학년 500명)을 따로 추출하여 배우자(남편)의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 평가를 실시함. 즉, 본 조사에서 표집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가 아니고 별도로 표집함.
 - 표집틀은 조사업체의 패널을 이용함.
- 양육역량은 2013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self-checklist)를 아버지 양육에 맞춰 변용해서 활용함.
 - 2016년 체크리스트는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 문항수를 축소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함.

〈표 2〉 2013년과 2016년 체크리스트 비교표

구분	2013년 버전		2016년 버전	
영역	7개 영역	I. 영유아 발달 II. 건강과 안전 III. 가족관계 IV. 물리적·물질적 환경 V. 놀이 VI. 생활지도 VII. 지역사회 연계	4개 영역	발달과 놀이(I+V)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II+VI) 가족관계(III)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IV+VII)
문항수	67문항		51문항	
종류	영아용, 유아용		영아용, 유아용, 초등저학년용	
척도	5점 척도			
비고	2016년 영아용은 생후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제한함.			

자료: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77.

- 실행역량이 33개 문항수로 가장 많고, 인식역량 11개, 성장역량 7개순임. 인식역량은 문항 내용을 알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고 실행역량은 실천을 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며 성장역량은 자기반성적 내용의 문항임.

〈표 3〉 2016년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 영역과 문항수 구성

역량	영역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 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계
인식역량		2	3	2	4(3)	11
실행역량		9	9	8	7(6)	33
성장역량		2	3	1	1	7
계		13	15(16)	11	12(11)	51

주: 건강과 안전 및 생활지도의 괄호안은 유아 문항수이며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의 인식역량 괄호안은 영아 문항수, 실행역량의 괄호 안은 유아문항수임.

자료: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77.

가.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1) 아버지 근무 실태

-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주 5일제 근무를 함(76~77%).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약 20%이며 5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소수로 나타남. 주당 평균 초과근무횟수 3회 이상이 가장 많음.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당 초과근무 횟수가 많아짐.

〈표 4〉 본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 근무 실태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초등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주당 근무일 수						
5일 미만	4.5	1.7	2.2	3.5	3.5	2.3
5일	77.0	77.4	77.0	75.9	75.9	69.1
6일 이상	18.5	20.9	20.9	20.6	20.6	28.6
주당 평균 초과근무 횟수						
없음	19.4	12.2	15.8	13.8	13.8	15.0
1회~2회	39.4	37.7	40.0	39.8	39.8	36.1
3회 이상	41.2	50.1	44.1	46.4	46.4	49.0

주: 본인은 아버지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이며, 남편은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응답임.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6.

2)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및 아버지 교육 현황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본인)는 약 20%로 내외로²⁾ 사용하지 않은 아버지가 대다수임.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기간은 6개월 미만 사용이 가장 많았음.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사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
- 아버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험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1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5〉 본 조사 참여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및 아버지교육 현황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초등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육아휴직 사용여부						
사용함	18.2	15.5	18.6	13.1	23.6	16.9
사용하지 않음	81.8	84.5	81.4	86.9	76.4	83.1
육아휴직 사용기간						
6개월 미만	57.7	50.2	59.6	54.0	60.0	53.2
6~12개월	29.9	29.9	18.7	36.8	27.8	36.1
13개월 이상	12.4	19.9	4.7	9.2	12.2	10.7
아버지 교육 이수 여부						
있음	10.1	9.2	11.7	9.1	14.1	13.0
없음	89.9	83.5	88.3	86.4	85.9	77.3
잘 모름	-	7.3	-	4.5	-	9.7
아버지 교육 이수 횟수						
1회	53.1	42.1	45.5	52.5	48.7	49.0
2회	23.5	28.1	29.1	23.9	32.2	27.9
3회	15.5	10.6	17.1	8.7	12.4	7.1
4회 이상	7.9	19.2	8.3	14.5	6.7	15.9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87-88.

2)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10%가 채 안되는 데, 본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는 조사업체의 패널에서 표집한 결과로 해석됨.

3)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

- 아버지 본인 응답 기준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주중은 2~4시간이 주말은 10시간 이상이 가장 많음. 그러나 배우자의 평가는 이와는 다르게 나옴. 주중은 2시간 미만, 주말은 2~4시간, 4~6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 자녀양육에 대해 아버지 본인과 배우자(남편)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 본 조사 참여 아버지 자녀양육시간

단위: %(명)

구분	본인			남편		
	영아	유아	초등	영아	유아	초등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주중 양육시간						
2시간 미만	23.0(115)	30.1(151)	30.5(152)	38.2(191)	48.3(241)	46.0(230)
2~4시간 미만	45.7(229)	41.3(207)	36.9(185)	37.4(187)	35.3(176)	31.6(158)
4~6시간 미만	17.8(89)	16.2(81)	16.1(80)	13.9(69)	7.8(39)	11.5(57)
6시간 이상	13.4(67)	12.3(62)	16.5(82)	10.5(53)	8.6(43)	11.0(55)
주말 양육시간						
2시간 미만	4.4(22)	4.2(21)	8.5(42)	11.8(59)	17.1(85)	22.8(114)
2~4시간 미만	16.0(80)	18.5(92)	26.8(134)	23.0(115)	29.6(148)	31.6(158)
4~6시간 미만	19.4(97)	23.0(115)	26.3(132)	24.2(121)	22.6(113)	24.0(120)
6~8시간 미만	12.5(62)	14.7(73)	11.4(57)	13.0(65)	10.4(52)	6.2(31)
8~10시간 미만	17.0(85)	11.2(56)	8.7(43)	9.7(49)	8.5(42)	4.9(25)
10시간 이상	30.6(153)	28.4(142)	18.3(91)	18.3(91)	11.9(59)	10.4(52)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88-89.

나.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1)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량

-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 주당초과근무 횟수가 적은 아버지 집단의 양육역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아버지,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함.
- 4개 영역에서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가장 낮음.

〈표 7〉 영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5(0.6)	3.5(0.6)	3.5(0.6)	3.1(0.7)	3.4(0.5)
육아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6(0.6)	3.7(0.6)	3.7(0.6)	3.5(0.7)	3.6(0.5)
	사용안함	3.4(0.6)	3.5(0.6)	3.4(0.6)	3.1(0.7)	3.4(0.5)
<i>t</i>		3.81***	4.48***	6.09***	7.87***	6.42***
아버지 교육이수	이수함	3.7(0.6)	3.8(0.6)	3.8(0.7)	3.6(0.7)	3.7(0.6)
	이수안함	3.4(0.6)	3.5(0.6)	3.5(0.6)	3.1(0.7)	3.4(0.5)
	잘모름	3.4(0.5)	3.4(0.6)	3.6(0.6)	3.1(0.6)	3.4(0.5)
	<i>F</i>	4.720***	5.174***	4.746***	6.688***	6.138***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4(0.6)	3.6(0.6)	3.6(0.5)	3.2(0.7)	3.5(0.5)
	1~2회	3.5(0.6)	3.6(0.5)	3.5(0.6)	3.2(0.7)	3.5(0.5)
	3회 이상	3.4(0.6)	3.4(0.6)	3.4(0.6)	3.0(0.7)	3.3(0.6)
	<i>F</i>	3.04*	8.90***	6.95**	9.65***	8.59***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설문항목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101-102.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량

- 영아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 주당초과근무 횟수가 적은 아버지 집단의 양육역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 영역별로는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가 3.1점으로 가장 낮고,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가 3.5점으로 가장 높음. “가족관계”와 “발달과 놀이” 영역은 각각 3.4점으로 동일함.
 - 영아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영역 점수가 가장 낮음.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측면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육아시설 인프라 부족으로도 해석 가능함.

〈표 8〉 유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4(0.6)	3.5(0.6)	3.4(0.6)	3.1(0.7)	3.4(0.6)	
육아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7(0.5)	3.7(0.6)	3.7(0.5)	3.5(0.6)	3.6(0.5)
	사용안함	3.4(0.6)	3.5(0.6)	3.4(0.6)	3.0(0.7)	3.3(0.6)
	<i>t</i>	5.07***	4.76***	5.97***	8.39***	6.85***
아버지 교육이수	이수함	3.7(0.6)	3.8(0.6)	3.7(0.6)	3.5(0.7)	3.7(0.5)
	이수안함	3.4(0.6)	3.5(0.6)	3.4(0.6)	3.0(0.7)	3.3(0.5)
	잘모름	3.7(0.4)	3.7(0.5)	3.7(0.5)	3.2(0.6)	3.6(0.4)
	<i>F</i>	5.81***	5.58***	4.74***	6.23***	6.29***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5(0.6)	3.6(0.6)	3.5(0.6)	3.2(0.7)	3.4(0.5)
	1~2회	3.5(0.6)	3.6(0.5)	3.5(0.6)	3.2(0.6)	3.5(0.5)
	3회 이상	3.3(0.6)	3.5(0.6)	3.3(0.6)	3.0(0.7)	3.3(0.6)
	<i>F</i>	12.45***	9.30***	15.82***	16.94***	17.02***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설문항목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05.

*** $p < .001$

3)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량

- 영아 및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집단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 초과근무가 적은 아버지의 양육역량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 자녀연령과 상관없이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다는 것을 재차 확인함.
-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이 3.7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3개 영역은 3.6점으로 동일하게 나옴. 영아와 유아 아버지의 양육역량 점수가 낮게 나온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는 낮게 나오지는 않음.
 -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초등 저학년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지역사회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원 등을 같이 다녀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 9〉 초등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육아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6(0.6)	3.7(0.6)	3.6(0.6)	3.6(0.7)	3.7(0.6)
	사용안함	3.3(0.6)	3.5(0.6)	3.4(0.6)	3.1(0.7)	3.3(0.5)
	<i>t</i>	7.07***	4.59***	5.65***	9.20***	7.53***
아버지 교육이수	이수함	3.7(0.5)	3.8(0.5)	3.7(0.5)	3.7(0.6)	3.7(0.5)
	이수안함	3.3(0.6)	3.5(0.6)	3.4(0.6)	3.2(0.7)	3.3(0.6)
	잘모름	3.4(0.6)	3.6(0.6)	3.5(0.5)	3.3(0.7)	3.5(0.5)
	<i>F</i>	7.067***	5.651***	5.466***	8.10***	7.41***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4(0.6)	3.6(0.6)	3.4(0.6)	3.2(0.7)	3.4(0.6)
	1~2회	3.5(0.6)	3.6(0.6)	3.5(0.6)	3.4(0.7)	3.5(0.5)
	3회 이상	3.3(0.6)	3.5(0.6)	3.4(0.6)	3.2(0.7)	3.3(0.6)
	<i>F</i>	8.08***	6.20**	8.65***	9.201***	9.784***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은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08.

** $p < .01$, *** $p < .001$

4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방안

가.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 패널조사라는 특수성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들이 10% 대 후반으로 높게 나옴.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사용한 아버지는 적었고, 절반 이상이 6개월 미만이었음.
-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 사용과 양육역량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제도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제 혜택, 대출 요건 완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지표에서 가점으로 되어 있는 “남성육아휴직 이용”을 필수지표로 함.
 -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에서 현행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점,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5점을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독일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할당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현행 최대 월 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못한 수준임.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급여 수준의 80% 이상까지 끌어올림.
 - 새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휴일 10일로 확대하고, 출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2개로 인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더불어민주당, 2017:161).
- ‘칼 퇴근법’ 제정
- 초과근무 횟수가 적은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았음. 우리 사회의 잦은 야근, 회식의 기업 문화를 법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새정부는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칼퇴근법’을 제정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발표함(더불어민주당, 2017:161).

나.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 지원

-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지원
- 혼인,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연계성있고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아버지 교육 가이드 라인(안)”을 제작하여 병원, 주민지원센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함.
 -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버지(남성)의 자녀(유아)의 경우, 국공립 기관에 입학 시 가산점을 부여함.
- 학부모회 등에 참여하는 아버지에게 연차 외 지원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 회의나 참관수업에 참석하는 아버지는 연차에서 삭감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로 지원함.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
 - 남성 직원이 많은 직장(전체 직원수 70% 이상)에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강사 및 교육비 지원
- 아빠 카페 개설
 -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역량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옴.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또래 아버지들과 공동양육을 할 수 있는 “아빠 카페” 등의 육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아빠들의 자조모임도 지원, 확대해 나감.

참 고 문 헌

-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더불어민주당(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 보건복지부(2015). 100인의 아바단.
- 김은설(2012).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04호.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셔(2016).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우리아빠는 프렌디.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년 ‘아이조아 아바교실’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6).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2016년도 시행계획.
-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6.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이슈페이퍼 2017-21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배 윤 진 | 부연구위원

1. 서론
2. 입양가정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
3.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구
4. 서비스 질 제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배 윤 진 | 부연구위원

요 약

-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아동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었으며, 입양가정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의무교육으로서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입양가정에게 양육수당, 입양아동 의료비,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사후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
-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이 가족생활주기 및 아동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 구성되며, 입양 전에는 의무교육의 횟수나 시간을 늘리고, 입양 후에는 좀 더 활성화된다면 입양아동 양육에 도움이 될 것임.
-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자원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용과 대표적인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보급,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연장입양아동과 장애입양아동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체계화하여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도울 수 있음.

1 서론

-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아동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는 등 입양절차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양가정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이 원고는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입양가정은 일반가정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입양가정만의 이슈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다른 일반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입양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입양에서도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그 이후 양육기간 동안의 상담, 교육 등 사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
 - 입양가정의 경험을 파악하고 지원 요구를 수렴하여 입양가정만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정임.
-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이에 대한 입양가정의 이용 현황 및 요구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지원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입양 활성화의 목적이 아닌 입양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입양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함.

2 입양가정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

가. 예비입양부모교육 실시

- 「입양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 전에 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현재 주요 입양기관에서 격월 혹은 분기별로 1회 8시간의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www.law.go.kr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나. 입양가정 지원

-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입양알선 비용, 양육수당,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및 입양 후 1년간의 사후관리가 있음.
 - 「입양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사후관리 및 서비스를, 그리고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2〉 입양가정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입양알선 비용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양육수당		만16세전까지	월 15만원/월
입양아동 의료급여		만18세전까지	의료급여 1종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만18세전까지	월20만원 한도/월
입양장애아동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만18세전까지)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장애 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월627천원/인
		2.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월551천원/인
	3.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학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의료비		만18세전까지	연간 260만원 한도
사후관리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제공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8).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붙임 3. 입양 관련 지원 현황. 2)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pp.23-37.

다.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들은 입양 후 1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서비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국내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서비스는 2012년부터 국외입양인에서 국내입양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4년부터 중앙입양원 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56).

-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입양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나누어지며, 자조모임 등 입양가정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음.

〈표 3〉 사후서비스 사업 내용

구분	사업 내용
입양가족 정서심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사업 • 입양아동이 생애주기별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고, 입양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움 • 입양부모가 자녀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로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입양가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 가족교육을 통해,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입양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 교류 • 입양아동 또한 자신의 입양 사실을 건강하게 인지하고,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 • 양육정보·공개입양 여부·입양 관련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 실시
행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이 공통의 활동을 통해 단합할 수 있는 사업 • 입양가족의 단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입양가족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의 밤,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 • 입양가족은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함께 만나고 활동할 수 있으며, 입양가족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p.61 〈표21〉

3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구

- 영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입양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영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입양자녀를 둔 입양가정 39사례를 면담한 결과도 일부 제시하였음.

가. 입양 전 예비입양부모교육

-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의무화 된 2012년 이후에 입양한 부모는 모두가 참여하였으나,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인 경우에는 77.3%의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함.

- 대부분 부모들이 입양 전 부모교육이 실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해주길 원하는 의견이 있었음.
- 예비입양부모교육의 8시간에 대해서는 61.4%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고, 교육 참여 시 불편하였던 점으로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43.0%), 교육 장소가 멀리 있다(26.5%) 등이 있음.

〈표 4〉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시 불편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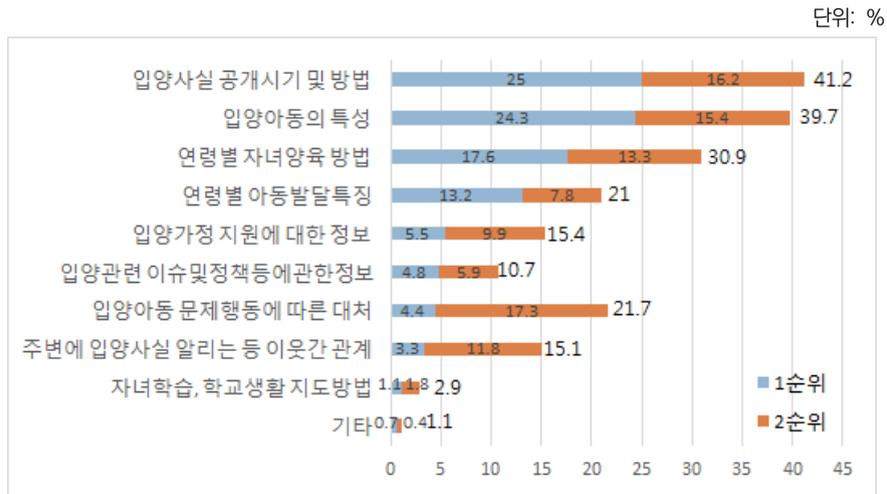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교육 장소가 멀리 있음	시간을 내기 힘들	교육 일정이 없거나 대기함	기타	없었음	계(수)
전체	26.5	43.0	5.3	2.0	23.2	100.0(151)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6.1	34.8	2.2	2.2	34.8	100.0(46)
2012년도 이후	26.7	46.7	6.7	1.9	18.1	100.0(105)
친생자녀 유무						
있음	28.8	32.2	3.4	3.4	32.2	100.0(59)
없음	25.0	50.0	6.5	1.1	17.4	100.0(9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0.7	53.4	5.2	1.7	19.0	100.0(58)
휴직 중	33.3	33.3	8.3	8.3	16.7	100.0(12)
미취업	30.4	38.0	5.1	1.3	25.3	100.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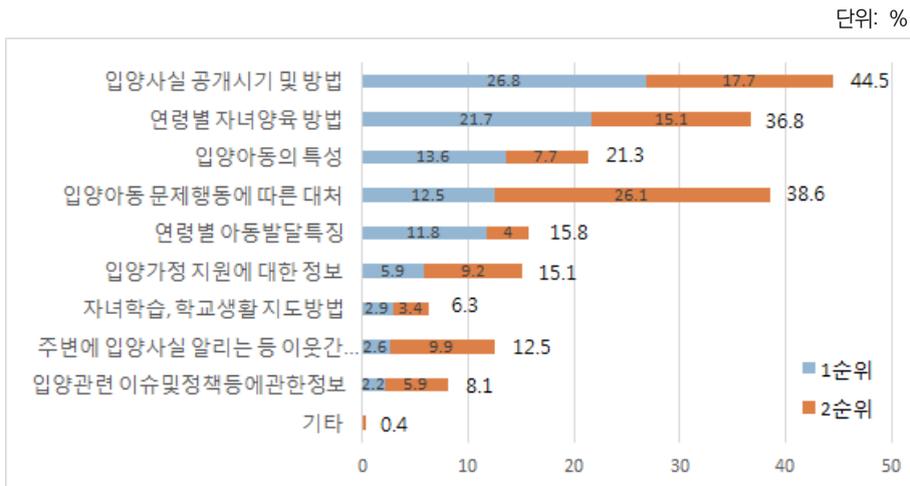
주: 1) 153명 중 무응답 2사례 제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

- 부모교육 시 필요한 내용은 입양 전의 경우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 입양아동의 특성,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순으로 나타남.
- 입양 후의 경우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뿐만 아니라 입양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등을 많이 응답함. 입양 전과 후에 서로 다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입양 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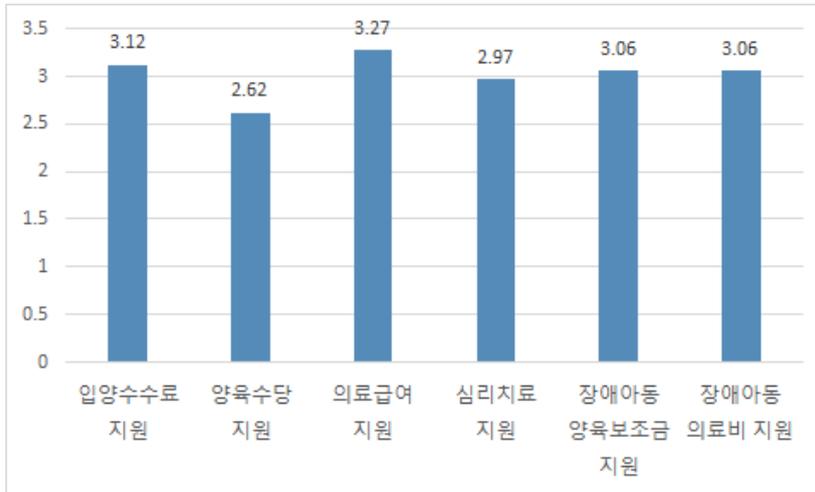
[그림 2] 입양 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

나. 입양가정 지원 제도

- 양육수당(97.1%)과 의료비 지원(97.4%)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입양수수료(69.7%)와 입양 아동 심리치료(68.6%)에 대한 인지율은 낮은 편임. 입양가정 면담에서도 해당 지원 제도를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 각 지원의 수혜율은 양육수당 96.2%, 의료급여 94.7%, 심리치료지원 38.7%,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16.9%,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지원 18.2%임.
- 현재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그 중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낮고,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높음(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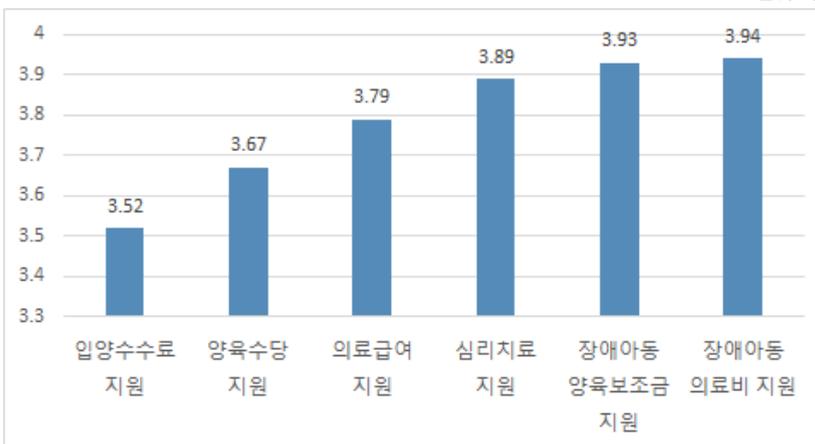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3] 입양가정 지원 정책 만족도

-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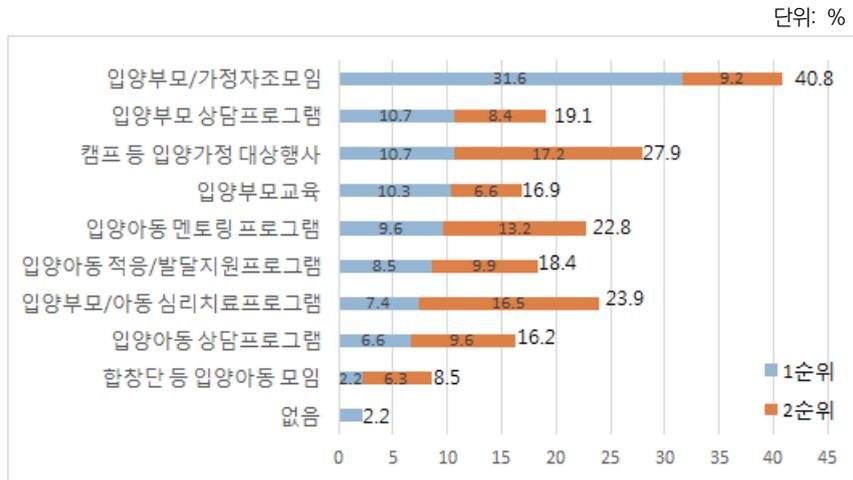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4] 입양가정 지원 정책 필요성

다.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및 입양 관련 모임

- 입양가정 자조모임이나 사후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자조모임 참여율이 가장 높고(84.2%),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57.7%), 입양부모교육(51.5%)에 과반의 부모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참여율이 높은 자조모임(3.45점)과 입양가정 대상 행사(3.37점), 입양부모교육(3.3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4점 척도), 자조모임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음.
- 양육하면서 정보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할 때 입양가정 자조모임에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필요로 하는 양육정보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연령별 양육방법과 더불어 입양공개방법이나 시기 등 입양가정 고유의 이슈가 있음.



[그림 5] 활성화되길 바라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

- 면담에서 나타난 입양아동 양육 경험은 사후서비스가 자녀의 발달단계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 입양이슈 다루기, 뿌리찾기, 입양사실의 외부 공개 등의 주제는 영유아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아동기에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다시 사라짐.
 - 대부분 가정에서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지만 특히 연장입양아동1)을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신생아 입양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입양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점차 양육의 어려움이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며, 연장입

양아동은 입양 직후부터 특히 입양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입양가정 적응에 어려움을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보 부족, 치료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입양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입양부모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함. 즉, 입양부모들 간 교류를 통해 심리사회적 도움을 주고받기를 원하고 있음.

4 서비스 질 제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구성 및 확대

- 입양 전에는 현재의 8시간 교육에 입양대상아동이나 예비입양부모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로 교육받도록 하는 예비입양부모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함.
 - 추가 교육 내용은 연장이(입양대상아동의 연령대), 장애아, 난임·불임 가정, 친생자녀 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 현재의 8시간 의무교육이 결연 이전에 실시된다면, 결연 이후 법원 허가까지의 기간을 활용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음.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이 입양부모 자신과 아동에게 함축하는 의미를 통찰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변미희·안재진·강지현, 2015) 최소 두 차례에 걸친 교육은 입양부모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의무교육시간과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 교육 실시 방법 다양화 등 부모교육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재 국내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기간은 1년이지만, 그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입양부모로서 입양공개 이슈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입양 후 부모교육 역시 활성화되어야 함.

1) 일반적으로 입양 당시 아동의 연령이 1세 이상인 경우 연장입양아동으로 지칭하고 있음.

- 자녀가 영아기일 때는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및 방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지도 방법, 입양관련 이슈나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연령별 차별화가 필요함.
- 또한 입양아동의 특성이나 공개와 같은 공통 주제에 입양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입양 후 부모교육을 입양 전처럼 의무화한다면, 입양 전에는 기본 교육, 입양 후에는 개별 가정 특성에 맞는 선택 교육을 참여하는 방안도 있음.
- 입양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율이나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나 아버지로서의 부모 역할을 다룬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교육의 효과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짐.

나.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

-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입양가정은 그들만의 독특한 고민과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가정에서 궁금해 하는 정보 또한 필요로 하고, 일반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동일하게 경험함.
 - 1차적으로는 현재 사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들의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시군구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실시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2차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급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입양가정이 특별하다는 인식에서 보편적인 지원 대상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
- 입양가정 대상 사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입양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를 제안함.
 -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1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적 홍보만 있어왔음. 또한 입양부모가 해당 입양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의 회원이거나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지방의 경우 원거리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실정임.

- 중앙입양원은 전문가들을 통해 입양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활동을 담은 대표적인 프로그램 패키지를 개발·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각 지역에서 순회방식으로 여러 차례 실시한다면 많은 입양가정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입양형제자매를 둔 비입양형제자매를 위한 상담 혹은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접근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람.
- 거주지역이나 입양공개여부에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함. 부모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때에 해당 내용을 얻을 수 있어야 의무교육이 아니어도 부모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내용의 개발과 보급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단체에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면 입양가정에게 도움이 될 것임.

다.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연장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해 입양 후 초기 개입이 아주 중요하므로, 입양 초기 2~3년 간 입양기관 실무자가 직접 혹은 상담 전문가와 연계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연장입양아동은 분리 경험 횟수가 많거나, 생부모와 살다가 신생아 때가 아닌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입양이 의뢰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음.
 - 앞서 제시한 입양 전후 부모교육 내용의 차별화 및 추가교육을 통해 연장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연장입양아동의 특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및 연장입양아동이 우선 적용되는 방안을 제안함.
- 장애입양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서는 입양아동 지원의 관점에서 현재처럼 비장애아동과는 구별된 양육보조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함.

- 입양장애아동과 그들의 가정은 입양에 대한 시선과 장애에 대한 시선으로 인해 두 가지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애와 관련하여 정보 부족, 치료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영유아의 발달특성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치료와 교육, 가족지원 등 여러 전문영역의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며, 가족중심의 조기개입서비스는 일상 활동을 통해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음(최석범, 2016. 11. 16).

참 고 문 헌

- 배운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변미희·안재진·강지현(2015).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8).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입양특례법 www.law.go.kr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www.law.go.kr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 최석범(2016. 11. 16). 장애유아 가족중심 조기개입체계 제도화 필요.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6&NewsCode=002620161116134407860965>에서 2016년 11월 17일 인출.

이슈페이퍼 2017-22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통한 학령초기 자녀 육아지원 방안

배 윤 진 | 부연구위원

김 은 설 | 연구위원

1. 서론
2. 초등 취학시기 패널자료의 주요 결과
3. 학령초기 육아지원에의 시사점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통한 학령초기자녀 육아지원 방안*

배 윤 진 | 부연구위원 · 김 은 설 | 연구위원

요 약

- 2008년 이후 동일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동의 직·간접적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삶의 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 8차조사 시 패널아동은 초등학교학령기에 접어들었음.
- 패널아동 어머니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취업모 자녀의 행동 및 생활 특성은 미취업모 자녀와 다르게 나타나 취업부모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함.
-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와 현재 이용하는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제도 등을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
- 학령초기 아동의 학교적응과 교사의 효율적인 아동지도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교로 생활기록부를 연계하는 안을 제안함.
- 아동의 거주 환경에 따라 발달지연이 나타나거나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득수준과 같은 가구특성이나 읍면지역 등 지역규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동일한 아동을 출생 이후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직·간접적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삶의 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 이 원고는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II)」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조사를 중단 없이 진행해오고 있으며, 8차조사에 해당하는 2015년은 패널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아동발달단계에서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령기에 들어섰음.
- 아동패널연구의 내용은 아동의 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 및 가구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을 포함하며, 학령기에 해당하므로 학교 특성 또한 살펴보았음.
- 그 중에서도 모취업 여부나 소득 등의 부모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아동의 발달 특성 등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육아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초등 취학시기에 해당하는 8차년도 조사자료의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령초기자녀 육아지원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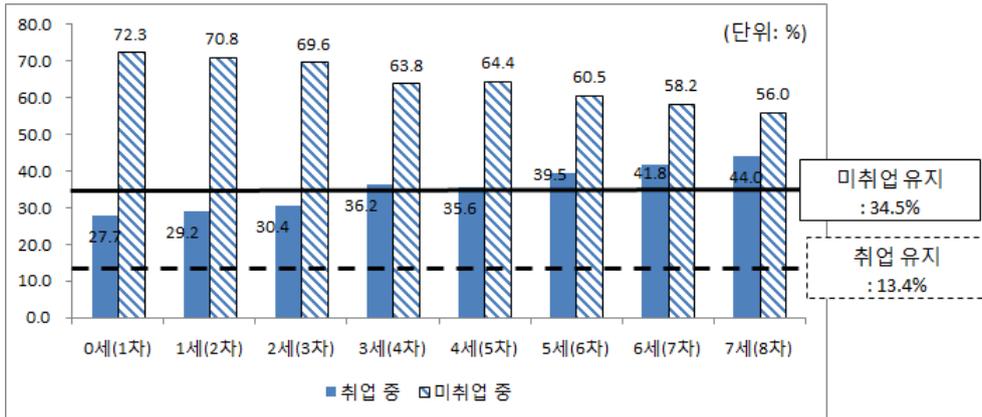
2

초등 취학시기 패널자료의 주요 결과

-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등 취학시기를 조사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의 분석 결과들 중에서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음.
- 총 1,57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아동의 평균 월령은 87.98개월로 만7세에 해당함. 학교 조사에서는 아동의 담임교사 1,031명이 응답함.

가. 어머니 취업률 증가 및 취업모 자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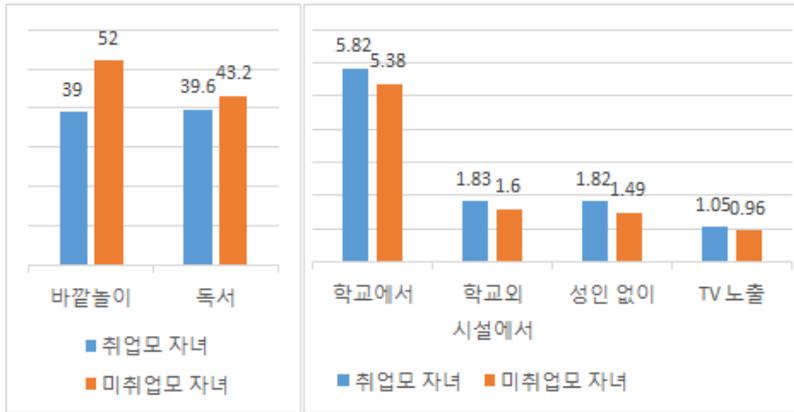
- 어머니의 취업률(학업 중 포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자녀가 1세 이하이던 시기에는 20%대의 비율로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었으나 6세가 되던 해에는 40%를 넘겼고 초등학교 1학년인 8차년도 조사에서는 44%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어머니의 취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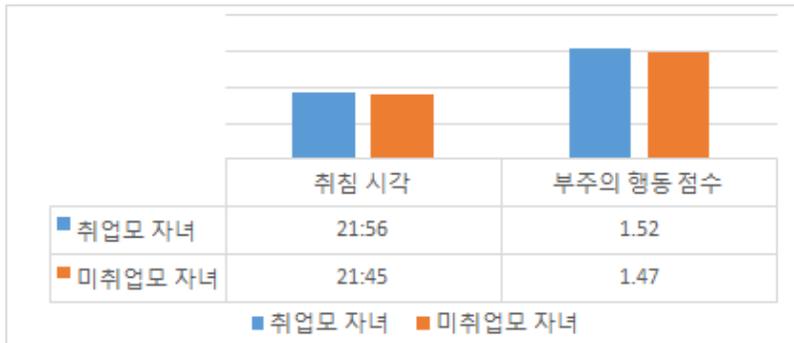
-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동의 생활·행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 취업모 자녀가 주중에는 미취업모 자녀보다 바깥놀이를 하는 평균 시간과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짧고, 취침하는 시각이 늦으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학원 등 학교의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더 길었음.
 - 또한 하루 중 성인 없이 아이들끼리만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주중 TV에 노출되는 시간 또한 더 길었으며, 어머니가 아동이 부주의하게 행동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관련 변인 즉, 출생순위나 자녀 수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모의 취업이라는 변수가 아동 간 차이를 모두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분석결과가 보이는 경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음. 즉, 미취업모 자녀와 비교했을 때 취업모 자녀가 질적으로 부족한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단위: 분, 시간



[그림 2]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생활/행동 특성1

단위: 시:분, 점



주: 부주의 행동은 3점 척도에 대한 응답임.

[그림 3]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생활/행동 특성2

나. 이상적 자녀 수 및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기대치는 1.9명으로 여전히 2자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2자녀인 가정이 전체 응답자의 63%이고 1자녀 가정이 11.5%임.
- 각 직장에서 여성의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비율은 51.9~58.5%, 남성의 육아휴직은 33.0~36.3%정도이며, 유연근무제는 25~30%, 그 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15.9~18.6%정도임.
 - 이용률에 있어서는 대체로 어머니가 제도를 이용한 비율이 높아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를 보임.

- 지원제도 중 어머니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아버지의 경우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각각 4.42점, 4.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5점 척도).

〈표 1〉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시행률과 이용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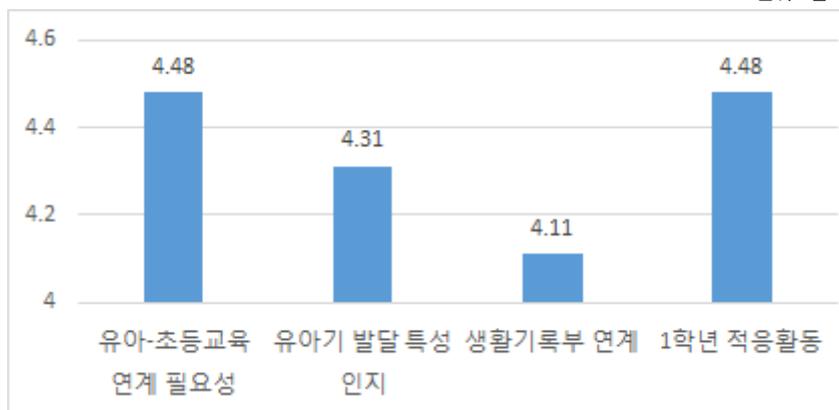
구분	아버지		어머니	
	시행률	이용률	시행률	이용률
여성의 육아휴직	58.5(802)	-	51.9(356)	57.7(206)
남성의 육아휴직	36.3(502)	11.3(65)	33.0(229)	-
가족돌봄휴직	21.9(293)	14.2(39)	18.7(128)	24.1(31)
유연근무제	25.3(337)	21.5(67)	30.6(208)	42.8(93)
대체인력풀	18.9(262)	11.7(32)	26.5(184)	39.7(76)
가족친화 관련프로그램	18.6(255)	21.1(53)	15.9(113)	36.8(39)

다. 유아-초등교육 연계에 대한 인식

□ 아동의 담임교사들은 유아-초등연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초등학교 1학년인 패널아동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은 스스로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4.31점), 유아-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해서는 생활 기록부의 공유가 도움이 되며(4.11점), 1학년 학기 초에 실시하는 적응활동이 학생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4.48점).

단위: 점



주: 5점 척도에 대한 응답임.

[그림 4] 담임교사의 유아-초등교육 연계에 대한 인식

라. 지역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아동 발달 특성

-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도시/농어촌) 등에 따라 아동의 인지·언어, 정서 및 문제행동, 식생활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아동의 계획 및 조직화, 정서 통제에서의 곤란 정도 및 부주의 경향에 대해 더 높게 보고하였음.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에서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정상 발달 범위에 더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더 높은 반면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증상의 수준은 낮게 나타남.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읍면지역 아동보다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높게 보고하였음.
 - 식생활에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와 농어촌 지역일수록 단백질 음식과 과일의 섭취가 적고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비율도 낮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1박 이상의 여행이나 문화체험, 예술활동 등의 참여 횟수가 적게 나타남.

마. 공공·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

-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이용 편리성에 대한 조사 결과, 놀이터, 도서관, 산책로, 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지만 비교적 이용 편리성이 높게 나타난 놀이터, 도서관, 산책로, 공원 이용에 있어서도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편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 이용 만족도 역시 편리성과 유사하게 도서관, 놀이터, 산책로, 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 시설들이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며, 이용 시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 공공·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놀이터	6.7	7.0	16.9	28.9	40.6	100.0(1,556)	3.90
공원	8.6	15.2	23.5	32.0	20.6	100.0(1,556)	3.41
산책로	8.5	12.7	23.4	32.2	23.2	100.0(1,556)	3.49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놀이공원	28.6	28.3	24.5	15.0	3.5	100.0(1,556)	2.37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11.4	20.1	28.3	29.3	11.0	100.0(1,556)	3.08
실외 체육시설	13.1	22.2	32.5	23.9	8.4	100.0(1,556)	2.92
영화관	13.5	17.0	26.5	29.9	13.4	100.0(1,556)	3.13
관람 및 체험시설	19.1	27.9	39.7	18.6	4.7	100.0(1,556)	2.62
공연시설	19.2	29.2	29.6	16.5	5.6	100.0(1,556)	2.60
도서관	5.7	8.8	31.2	38.3	16.1	100.0(1,554)	3.50

〈표 3〉 공공·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놀이터	8.6	9.5	29.5	36.5	16.0	100.0(1,556)	3.42
공원	9.3	11.2	29.3	34.3	15.9	100.0(1,556)	3.36
산책로	9.7	9.7	28.8	35.7	16.2	100.0(1,556)	3.39
놀이공원	20.5	18.3	34.7	21.4	5.1	100.0(1,556)	2.72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11.1	15.0	38.9	27.0	8.0	100.0(1,555)	3.06
실외 체육시설	12.2	16.6	42.8	22.5	6.0	100.0(1,556)	2.93
영화관	10.6	9.8	33.8	31.9	13.8	100.0(1,556)	3.28
관람 및 체험시설	16.2	17.6	38.0	23.2	5.0	100.0(1,556)	2.83
공연시설	15.7	20.5	39.5	19.6	4.7	100.0(1,556)	2.77
도서관	5.7	8.8	31.2	38.3	16.1	100.0(1,554)	3.50

3 학령초기 육아지원에의 시사점

가. 취업부모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 초등학교 1학년 등 저학년 수업 시수의 재고가 필요함.
 - 방과후 과정이나 학교 외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수적으로 늘어나는 취업모가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조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유아기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보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하루 수업 시간이 더 짧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 그러나 단순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돌봄을 편리하게 하자고 학교 종료 시간을 늦추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아동의 관점에서 학교 수업을 늘리는 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고 발달에도 긍정적 도움이 되어야 함.
- 해외 국가의 경우 초등학교 전학년이 동일한 일일 수업시간을 갖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나, 주간 혹은 연간 수업시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특히 막 유아기를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 시수를 늘린다면, 현재와는 다른 교실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 즉, 유치원·어린이집 교실 환경 및 수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다 여유롭고 느슨하게 통합교과를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진행 되어야 함.
- 취업부모 자녀들을 위한 돌봄 지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반 개방을 제안함.
 - 취업모 자녀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남. 특히 부주의한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음.
 - 입학 전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과후 또는 종일반이 운영된다면 이를 돌봄이 필요한 초등 1학년 아동에게도 개방하여 아동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이 있으나(보건복지부, 2017: 364)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운영이 보다 탄력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교사 조건, 학교와의 연계 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부모의 근로시간이나 조건에 맞추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보다는 먼저, 어린 아동의 자녀양육이 가능한 근로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나. 출산 대책의 방향성

- 다자녀 가구를 자녀 3명부터 인정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을 2자녀부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조사 결과,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2자녀 이하에 머물고 있었음. 즉, 2자녀 가정을 3자녀 가정으로 변화시키기에 앞서 1자녀 가정을 2자녀 가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임.
- 일례로, 1자녀를 두는 것이 2자녀를 두는 것보다 결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주택, 세제 혜택 등에서도 3자녀 가정에게 우선 지원을 하기 보다는 2자녀 가정도 차별적 지원이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방향성 전환을 위한 국가 예산 규모의 검토와 재원의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겠음.
-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필요한 유연근무제가 모든 직장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기와 비교해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달라진 점은 취업모나 맞벌이 부모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며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증가시킴.
- 출퇴근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시간선택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근무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다. 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연계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생활기록부가 아동의 입학과 함께 초등학교에 전달이 된다면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개별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 연계의 필요성을 학교 교사들이 느끼고 있었음. 특히 유아기의 생활기록부가 학교 기록과 연결될 수 있다면 교사의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연계가 비교적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자 문서로 생활기록부를 저장하도록 하고 서로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호환 가능하도록 국가 수준에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음.
- 서버 구축과 연결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스템 이용을 위한 교사 교육도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활용할 수 있음.

- 단, 이전 기관에서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교사에게 아동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료의 긍정적인 활용을 위한 장치가 함께 고안되어야 함.

라.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읍면지역 거주 혹은 저소득 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라 아동의 경험이나 행동 발달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차이가 어떤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원을 다각화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동의 거주 환경에 따라 발달의 지연이 나타나거나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원 정책 마련 및 개선 시 고려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 아동의 독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어휘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인지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바우처를 이용하여 학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의 경우 독서전문지도사가 초등학교에 주 1-2회씩 파견되어 학생들의 읽기 지도가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 저소득층에게는 가정 방문을 통한 독서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음.
 - 하지만 일부 상업적 독서교육기업 등이 관여하여 독점하거나 부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마. 지역사회 자원인 공동도서관 활용성 제고

-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도서관이 문화적 체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공공·문화시설 중 도서관이 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음. 이는 도서관이 다른 문화 시설이나 체험 공간보다 접근성이 높고 이용의 벽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 내 도서관의 기능 정비 및 공공시설 간 협력 등을 통해 지역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문화적 허브로서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일부 공공 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영화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차이가 있음.
-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특정 연령 아동의 부모 참여에 치우쳐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함.

참 고 문 헌

-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 발달 종단연구2016(한국아동패널Ⅱ).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사업 안내.

2017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17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일 | 2017년 8월

발행인 | 우남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398-7797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